

2015

책
이야기

서평과
사서추천도서
가 있는 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이야기

2015 서평과 사서추천도서가 있는 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책이야기

2015년 서평과 사서추천도서가 있는 책

발행인 여위숙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1 (우)06130

홈페이지 www.nlcy.go.kr

전화 02-3413-4774

팩스 02-3413-4759

디자인 이코노믹리뷰 02-6321-3040



내용 및 수록범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도서관이야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서평'과 '사서추천도서'
원고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배열

서평

그림·동화책, 동시, 청소년·문학 외로 장르를 구분하여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서추천도서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청소년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각 대상 내에서 문학과 문학 외로 분류하여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contents



일러두기 03

2015 서평 06

그림·동화책 08

동시 54

청소년·문학 외 82

2015 사서추천도서 128

유아 문학 130

문학 외 150

초등저학년 문학 152

문학 외 172

초등고학년 문학 178

문학 외 190

청소년 문학 198

문학 외 210

찾아보기 217

2015 책 이야기 서평

그림책 · 동화책

강아지와 염소 새끼 두 동물 친구에 비춘 아이들의 마음 이승원 |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 역사를 왜곡하는 저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동화 류근원 | 나 홀로 지하철 여행 진정한 용기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을 일깨워 주는 동화 류근원 | 눈 먼 할머니네 식구들 구수한 입담의 동화작가 류근원 | 도시에 사는 우리 할머니 멋진 삶을 살며 다음 세대를 포용하는 할머니 김세희 | 러브레터야, 부탁해 오주영 | 막내 도토리의 세상 배우기 애들야, 2015년이 밝았다. 세상 배우러 떠나자 류근원 | 말하는 옷 나를 표현하는 나의 옷 김세희 | 멋대로 도서관 나부터 꼭 가고 싶은 곳 '멋대로 도서관' 오주영 | 바삭바삭 갈매기 바삭바삭한 과자의 유혹에서 하늘로 훌훌 김세희 | 빠이빠이 기저귀! 나도 번기에 앉아서 응가하고 싶어요! 김세희 | 사자와 작은 새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나기 김세희 | 실 끝에 매달린 주앙 어둡고 외로운 밤, 주앙의 꿈나라를 함께 여행해요 이승원 | 엄마 사용 설명서 엄마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법 없을까? 오주영 | 여름이 반짝 숨과 숨이 만드는 오늘의 반짝임 오주영 | 열네 번째 금붕어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산다 오주영 |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 ?로 시작해서 !로 끝나는 동화 류근원 | 작은 배추 작은 배추가 눈부신 꽃을 피울 때까지 이승원 | 작은 파도 소년과 함께 책의 바다를 헤엄치다 이승원 | 플라스틱 섬 인간이 만들어 낸 거대한 쓰레기 이승원

동시

글자 동물원 소통보다 재밌는 불통 이현승 | 라면 맛있게 먹는 법 시 맛있게 읽는 법 이현승 | 사과의 길 아이들에게 봄을! 이현승 | 숙제 다 했니? 아이들의 말로 본 안녕 이현승 | 아, 너였구나! 감각과 깊이 조화 이안 | 안녕, 외계인 아이의 자리, 동심의 자리 이현승 | 엄마의 토끼 선물 같은 오월을 위하여 이현승 | 의자를 신고 달리는 ·처음엔 뼈뼉하게 청소년시, 따로 있어야 할까? 이안 | 지렁이 알기 예보 재치와 유머, 깊이의 상상력 이안 | 큰 바위 아저씨 시인 자신을 갈아치우는 시 이안

청소년 · 문학 외

답 없는 너에게 노장 멘토의 나침반을 발견하다 오선화 | 모두 잠언 공어, 공간, 공뽀! 김윤 | 변두리 옷자란 가지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남지현 | (야단법석) 부처님 박물관 불상에 깃든 아름다움을 찾아서 백수린 |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어린이들에게 '호세 무히카'를 이야기하다 오선화 | (연우와 함께하는) 습지 이야기 우리의 보물, 습지 백수린 | 십번기 사랑하며 돕는 것 남지현 | 싸우는 소년 '싸우다'와 '강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 김윤 | 어린이를 위한 무역의 모든 것 무역으로 가까워지는 세계 백수린 | 역사 아는 십대가 세상을 바꾼다 멈출 수 없는 역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선화 | 옆집의 영화 씨 SF, 장르문학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김윤 |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 스스로 또다 함께 지키는 안전 백수린 |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모두 다 우리 이웃 백수린 | 정글북 사건의 재구성 퍼즐 맞추기로서의 추리소설 읽기 남지현 | 차별 없는 세상을 연 넬슨 만델라 용서와 화해로 폭력을 이겨 낸 대통령 백수린 | 창밖의 아이들 '창밖의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이나 김윤 | 청소년을 위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눈높이를 맞춘 인문학, 청소년의 마음에 닿다 오선화 |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울타리 밖으로 내미는 손길 김윤 | 칼의 아이 역사가 건네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 남지현 | 톡톡 톡 톡 판타지가 현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남지현



두 동물 친구에 비춘 아이들의 마음

글 이승원 그림책 작가

『강아지와 염소 새끼』

권정생 글 | 김병하 그림

창비 | 2014 | 39p

경북 안동 조탑마을 작은 집에서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아픈 몸으로 평생을 지내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남겨 주신 권정생 선생님의 시가 그림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온몸으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민족의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삶을 보내셨지만, 선생님의 작품에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삶을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야기가 많다. 작은 벌레나 풀 한 포기같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기 쉬운 어린 생명들을 마주하는 이야기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삶이 빛날 수 있다는 메시지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강아지와 염소 새끼』는 권정생 선생님이 열다섯 소년 때에 썼던 알려지지 않은 시였는데,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뒤숭숭한 세상을 맞이해야 했던 소년의 마음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어떤 하루를 담고 있었을까.

풀밭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던 염소에게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놀자고 짹짹 다가온다. 귀찮은 염소는 못 들은 척 다시 잠을 청해 보지만, 놀고 싶은 강아지는 염소에게 폴짝 뛰어 덤비며 괴롭힌다. 배경 없이 흰 바탕에 단순하게 그려 놓은 귀여운 동물 두 마리가 오히려 생생하게 눈을 사로잡는다. 천방지축 강아지는 갈색 파스텔 선으로만 맑게 그렸고, 새침한 염소는 유분기가 있는 까만 쿵테를 써서 좀 더 촌촌하게 칠했다. 그림 재료가 갖는 성분만으로도 성격이 제 각각인 두 주인공의 모습이 명쾌하게 대비된다. 성분은 다르지만 부드러운 느낌의 쿵테와 파스텔이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진다.

그림을 그린 김병하 작가는 이 시에 숨겨진 권정생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또한 자기 나름의 그림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공들였다고 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 듯한 두 캐릭터의 생생한 모습 외에도, 그림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이야기 안에 그림으로 새롭게 리듬을 주고자 고심했을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강아지의 도발로 화가 난 염소는 작은 뿔로 강아지와 싸워 보려 하지만, 묶여 있는 밧줄 탓에 마음대로 되질 않고, 신이 난 강아지는 더 폴짝폴짝 뛰어오르며 둘이 아웅다웅 싸우다가 결국엔 밧줄이 묶인 못이 뿔뿔히 뚫고 만다. 사실 원작 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대목을 그림으로 더 재밌게 끌고간 부분이다. 둘의 싸움을 지켜보던 독자들도 모두 이 대목에서 신이 날 것이다. 밧줄이 풀려 몸이 자유로워진 염소는 마음껏 들판을 달리며 강아지를 잡으러 간다. 파란 하늘 아래 신나게 달리는 강아지와 염소를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다 시원해진다. 화가 잔뜩 났던 염소도, 겁이 나 줄행랑을 치던 강아지도 어느새 같이 웃고 있다. 혼내 주려고 쫓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즐거운 ‘잡기놀이’가 된 셈이다.

한참을 싸우고 웃으며 달리다 보니 갑자기 하늘에서 제트기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강아지와 염소는 싸우던 것도 잊고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만 쳐다본다. 아마도 권정생 선생님이 이 시를 썼을 무렵인 1950년대 전쟁 직후의 시대에 종종 있었을 풍경이었으리라. 암울했던 시대에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웃으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겠지. 작가는 귀여운 어린 동물들이 노는 모습을 담은 동시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읽어내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게 하는 힘이 되어 주는 ‘놀이’의 소중함을 즐거운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온갖 장난감, 게임기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지어서 즐기며 자랄 만한 공간과 시간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한편으론 씁쓸하다.

들판을 거침없이 내달리며 뛰노는 강아지와 염소 새끼, 그리고 골이 머리끝까지 나서 씩씩대며 싸우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어울리는 두 어린 동물은 즐겁게 놀다 싸우며 크는 건강한 어린이의 모습 그대로다. 어린이는 스스로 만들고, 놀고, 깨우치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그 힘이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작고 어린 두 동물의 모습을 들려주는 귀여운 동시와, 생동감을 불어넣어 준 단순하고 명쾌한 그림이 어우러진 이 책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이로운 힘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염소 새끼도

눈이 땡글

하늘을 쳐다봤다

골대加里

다 잊어버렸다

— 본문 중에서

느닷없는 제트기 소리에 깜짝 놀란 두 동물 친구의 귀여운 모습으로 시는 끝이 나지만, 그림 작가는 여기에 상상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집어넣었다. 해 질 녘 들판에서 신나게 놀던 두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에 권정생 선생님을 등장시킨 것이다. 언덕 아래로 권정생 선생님이 살았던 조탑동 작은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하루 일을 마친 농사꾼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달빛 아래 주황빛 지붕이 선생님의 집인가 보다. 언덕 아래 작은 집 마당에서 권정생 선생님이 강아지와 염소 새끼를 보듬는 다정한 모습으로 끝이 난다. 앞선 장면들과 달리 마을은 구체적으로 묘사된 현실세계다. 자칫하면 무리할 수도 있는 설정임에도 이 마지막 장면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까닭은 당신의 삶과 작품이 일관되었던 권정생 선생님 덕분일까. 선생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모르고 보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 해가 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창문에서 엄마가 ‘○○야, 밥 먹어라!’ 하며 부르던 소리를 듣고 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생각이 나기도 했다. 그 소리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던 시간이 끝나는 아쉬운 종소리인 동시에, 비록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따뜻한 저녁밥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포근함이 묻어나는 소리기도 했을 것이다. 들판에서 신나게 놀던 귀여운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는 권정생 선생님이 계시는 마지막 장면이

내 마음도 포근히 보듬어 주는 것 같아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별이 되셨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선생님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어쩌면 밧줄에 매인 염소처럼 아이들의 삶 또한 답답하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고 달리면서, 때로는 답답한 밧줄도 당당히 끊어 내며 아이들은 씩씩하게 스스로 놀며 자란다. 마음껏 뛰놀고 즐겁게 어울리는 하루를 어린이 스스로 꾸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역사를 왜곡하는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화

글 류근원 동화 작가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

임나라 글 | 백선제 그림

아이들판 | 2015 | 106p

일본 총리의 앵무새 입

일본 총리 아베가 미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5월 초 돌아갔다. 아직까지도 그가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이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방문 중에 그의 입은 초지일관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여전히 인신매매라고 규정하며 ‘가슴 아프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군대 위안부라는 표현을 하거나, 사죄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1993년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접수를 시작한 뒤 총 238명이 등록했다. 그중 183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생존자는 53명뿐이다. 숫자로 드러난 238명 외에 얼마나 많은 위안부가 더 있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억장 무너지는 삶을 살았을까?

동화작가가 만든 그 아픈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잔잔하게 파고들고 있다. 작은 여울물 같은 목소리가 천둥소리로 감동을 주고 있다. 동화작가 임나라의 단편동화집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작가에 대한 단편적 이해

동화작가 임나라는 198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경력이 오래된 작가이지만 그의 동화집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과작이어서 그럴까, 그의 동화는 숙성 단계를 잘 거친 음식처럼 독자들에게 오래 가는 향기로 남아 있는 작품이 많다. 필자가 한때 신춘문에 병에 걸렸던 때가 1980년 초반이다. 그때 그의 당선작 〈파랑이의 구름마차〉를 읽은 기억이 새롭다.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도 그때의 감동이 여전하기만 하다.

나직한 물소리같이 들려주는데도 감동이 큰 동화

이 동화책엔 7편의 단편동화가 실려 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가슴속에 담았을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 비밀 이야기로 벌어지는 주인공의 심적 변화를 따스하게 그린 〈비밀〉, 가슴 아픈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 어머니가 치매 할머니를 돌보려 간 사이 어머니의 어릴 적 일기장을 훑쳐보며 부모님의 연애사건과 주인공의 여자 친구가 찾아오는 장면을 재미있게 교차한 〈엄마의 일기장〉, 떠돌이 만수강산 할아

버지와 주인공 파랑이의 교감을 애잔하게 그린 〈파랑이의 구름마차〉, 밤하늘의 셋별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하늘 마을의 사랑〉, 아버지의 오랜 투병생활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읍이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그린 〈읍이네 울타리〉,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춘기 주인공의 갈등을 그린 〈네모 상자와 하얀 눈〉이 실려 있다.

7편의 동화는 주인공들이 공통분모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주인공 대부분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작가들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직설적으로 주변 사회에 대해 교훈적인 큰 소리를 내기 쉽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임 작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귀엣말처럼 나직하게 들려주고 있다. 나직나직 들려주는 주인공들의 목소리에서 따스함이 담뿍 배어 나온다. 슬프면서도 때론 잔잔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동화이다.

7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을 꼽는다면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라 할 수 있다.

장편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

지난 5월 초,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올해 100살을 맞은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를 위한 효 축하잔치가 열렸다. 정 할머니는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 가운데 최고령이다.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던 십 대 소녀들은 이제 여든, 아흔의 할머니가 되었고,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를 받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떴거나 뜨고 있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임 작가의 동화집 속에 들어 있는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는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이웃에 사는 어린 기인의 시선으로 할머니의 억장 무너지는 삶이 조곤조곤 묘사되어 있다. 광덕 할머니는 소녀 시절, 저녁밥을 짓다가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었다. 그 억장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하느라 ‘얕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광덕 할머니. 동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할머니가 불쌍해. 누나, 우리 할머니 몸을 더 깨끗이

땀아 드리자. 반짝반짝! – 본문 중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하루속히 어린 주인공의 바람처럼 ‘반짝반짝!’ 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임 작가가 이 소재로 장편을 썼더라면 더 큰 감동을 독자들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단편동화에서 장편 같은 감동이 배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화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

작가의 서문(특별, 문 두드리는 말)조차 장편(掌篇,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품이라는 뜻으로, 매우 짧은 산문을 이르는 말) 동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작가는 서문에 질경이를 등장시켜 “동화는 사람을 그리워할 줄 아는 그 질경이의 세상을 넌지시 들여다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동화 전반에 질경이 같은 주인공들이 나온다. 질경이 같은 주인공들의 시선이 오히려 따스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어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오히려 소소하게 말하는 그들의 언어가 아름답다. 그들을 통해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롯하게 보여 주고 있는 동화, 『광덕 할머니의 꽃자리』이다.



진정한 용기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을 일깨워 주는 동화

글 류근원 동화 작가

『나 홀로 지하철 여행』

송재찬 글 | 이소영 그림

가문비 | 2015 | 96p

지하철의 아픈 추억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아픈 추억이 있다. 그 추억을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 식은 땀이 흘러내릴 정도이다. 휴대폰도 없던 오래된 시절, 시골학교에 근무할 때이다. 도농교류 활동으로 고학년 열 명을 데리고 상경했다. 홈스테이를 끝내고 내친김에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었다. 고궁을 돌아본 뒤 서 울역에서 만나자고…….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아이들 몇이 나타나질 않았다. 기다리는 초조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서너 시간이 지난 후, 콧물눈물 범벅이 되어 나타난 아이들…….

동화작가 송재찬의 『나 홀로 지하철 여행』을 서점에서 구입하며,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피식 쓴웃음을 흘렸다. 『나 홀로 지하철 여행』을 읽으면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지하철을 타는 독특한 경험을 했다.

작가에 대한 단편적 이해

작가 송재찬은 197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된 후 수많은 동화집을 발간했다. 현재까지 명작으로 읽히는 동화책도 많은 인기 동화작가이다. 한국동화문학상, 소천문학상, 대교문학상, 이주홍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등 굵직한 문학상을 거의 수상했을 정도이다. 『제비야 날아라!』, 『숲속의 이상한 뱀』, 『무서운 학교의 아이들』, 『돌아온 진돗개 백구』 등 많은 동화집이 있다.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도 씬없이 도서관 및 학교에 초빙되는 동화작가이다.

주인공 명규가 되게 하는 흥미진진하고 묘한 매력의 동화

주인공 명규는 2학년이다. 명규는 겨울방학을 맞아 담임선생님이 내 준 자율숙제로 〈혼자서 친척집(이모 댁) 방문하기〉를 정한다. 이모는 인천에 살고 있다. 결코 허락해 주지 않을 엄마를 생각하며 명규는 엄마의 시선이 잘 가지 않는 계획서의 비고란에 슬쩍 써 놓는다. 그리고 엄마가 TV 드라마에 푹 빠져 있을 때 방학계획서를 내놓는다. 명규의 기막힌 작전에 엄마는 비고란에 있는 자율숙제를 보지 못하고 사인을 한다.

후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명규를 회유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지만 명규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유괴와 납

치, 성폭력과 살인 등 범죄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아이 혼자 외출하는 것을 냉큼 허락해 줄 엄마는 이 나라엔 없다. 그러나 명규는 엄마와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한다.

엄마는 고민 끝에 누구에겐가 비밀스레 전화를 한다. 독자는 이 부분에서 ‘무슨 전화일까?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잔뜩 기대를 하면서 읽어 내려간다. 어느 틈엔가 독자는 벌써 명규가 되어 있다.

사건의 연속과 수상한 여인의 정체

엄마가 주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명규는 당당하게 이모 댁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동묘역 인천 방향 승강장에서 의문의 멧쟁이 여자가 명규를 따라붙지만 명규는 눈치채지 못한다. 로즈 웨딩홀을 묻는 의문의 부부가 첫 번째로 명규에게 접근한다. 웨딩홀의 위치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명규를 치켜세우며 아이스크림을 사 준다고 꼬드기는 의문의 부부. 명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있지도 않은 아빠를 부르며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 그들에게서 벗어난다. 그러나 의문의 멧쟁이 여인이 명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붙고 있다.

동묘역 인천 방향 승강장 의자에서 명규는 의문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의문의 여인은 음반제작자라며 명규의 머릿속을 뒤집어놓는다. 그렇잖아도 가수가 꿈인 명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훌쩍 넘어가고 만다. 집 전화번호와 부모의 휴대폰 번호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명규, ‘이제 명규는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의문의 여자는 음반제작자일까?’ 책장을 넘길수록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한다.

열차가 도착하자, 명규는 엄마와의 다짐을 떠올리며 재빨리 열차 안으로 뛰어들어 위험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마머리 아줌마가 명규의 주변을 훑어보며 때를 노리고 있다. 열차 안에서는 젊은 남녀가 벌이는 애정 행각을 한 할아버지가 제지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명규와 파마머리 아줌마의 활약에 버릇없는 젊은 남녀는 꿈무늬를 빼고, 명규와 파마머리 아줌마는 단숨에 친해진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이 사회의 한 단면을 보게 되어 씁쓸하기 그지없다.

너 참 의젓하고 용기 있더라. 요즘은 다들 다른 사람들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해. 잘못하다간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말이야. 그래도 아까 그 할아버지 봤지?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분명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다른 어른들이 모른 척해서 속상했어요.

— 본문 중에서

친해진 명규와 파마머리 아줌마는 인천역에 함께 내리고, 이모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다는 파마머리 아줌마의 유혹에 명규는 꽃집까지 따라간다. 그러나 명규는 전화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이모가 사는 아파트로 내달린다.

유쾌한 반전 그리고 독자의 상상에 맡긴 결말

명규 앞에 나타난 의문의 부부, 멧쟁이 여인, 파마머리 아줌마는 도대체 누구일까? 정말 명규를 유괴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일까?

파마머리 아줌마가 명규의 이모가 사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끝까지 따라붙던 의문이 대화 속에서 모두 풀린다. 멧쟁이 여인과 파마머리 아줌마는 동일인이고 의문의 부부는 명규의 먼 친척이다. 다시

명규가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갈 때, 명규를 뒤쫓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 이 의문의 여인이 누군지 이제 어린 독자들도 씩 웃으며 짐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규의 나 홀로 지하철 여행은 끝이 난다. 어느 작가 같았으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다는 결말까지 친절하게 묘사했을 텐데 이 동화에서는 생략되어 있어 여간 기쁜 게 아니다.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작가의 혜안이 번뜩인다.

개학날 담임선생님이 명규의 용기 있는 숙제에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콧 찍어 주는 모습이 보너스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용기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남을 일깨워 주는 동화이다. 명규 같은 아이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더 밝아질 수 있다.





구수한 입담의 동화작가

글 류근원 동화 작가

『눈 먼 할머니네 식구들』

김정현 글 | 이한중 그림

세계문예 | 2015 | 178p

‘옛날 옛날에……’라는 말부터 나올 것 같은 작가

동네 서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인터넷 서점과 달리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점의 정가 10% 할인보다 훨씬 많은 보너스가 동네 서점에는 있다. 안락의자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가족이 함께 책을 고르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동네 서점에는 사람 냄새가 난다. 꼬마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마저 음악 소리로 들려온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찬찬히 훑어보면 날이 갈수록 서점을 찾는 손님들의 수가 줄어들을 체감한다. ‘동네 서점 살리기’에 관한 정책들이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곳 도시에서도 알아주는 서점 한 곳이 문을 닫고 말았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서점에서 김정현 작가의 동화책을 구입했다. 대충 훑어만 봐도 그를 만나면 ‘옛날 옛날에……’라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책에서 묻어 나온다. 아이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 ‘옛날 옛날에……’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침을 꿀꺽 삼키며 그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작가에 대한 단편적 이해

작가 김정현은 고향을 지키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다. 1987년 〈아동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동화집 『그 많은 도깨비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를 비롯, 10여 권의 동화집을 출간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의 고향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들을 채록, 『삶과 상상력이 녹아 있는 우리 동네』를 발간하여 흥성의 문화유산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아동문예 작가상, 충남문학대상, 그리고 고향 흥성 군민들이 주는 홍주문화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대한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책 제목에서 가족과 식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의 동화

동화책 제목이 『눈 먼 할머니네 식구들』이다. 가족이란 틀에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네 일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제목이다. 왜 ‘눈 먼 할머니네 가족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작가의 낱말 하나하나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리한 섬광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지칭한다. 부모와 자식, 형제, 친척, 배우자, 배우자의 가족 등을 비롯해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나와 법적인 관계로 매인 사람들

을 가족이라 한다. 그러나 식구는 다르다. 나와 같은 지붕 아래에 살면서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입’을 식구라고 한다. 혈연이나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친구나 동식물까지도 식구가 될 수 있다.

이 동화책엔 5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두 편(눈 먼 할머니네 식구들, 하늘로 올라가는 장구 소리)은 창작동화이다. 나머지 세 편(자, 부옹이 먹어라, 그 산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 400년 후)은 작가의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동화에 접목한 재창작동화이다.

「눈 먼 할머니네 식구들」은 산동네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동물을 등장시켜 인간과 동물을 한 식구로 승화한 감동적인 내용의 동화이다. 눈먼 할머니와 손자 용재, 그리고 수고양이 점박이와 암개 누렁이가 등장한다. 용재의 어머니는 병으로 죽고, 아버지는 가출한 뒤 소식이 없다. 슬픈 내용이지만 이야기가 점점 밝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머니가 누렁이에게 미역국을 끓여 주는 장면은 작가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행방불명이던 용재 아버지가 돌아오는 장면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읽고 난 뒤 따스한 그 무엇을 한 아름 안겨 주는 동화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장구 소리」는 노처녀 선생님과 그의 반, 개성 강한 아이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과정을 사물놀이를 매개체로 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사고를 칠 때마다 쟁과리를 치게 하는 선생님, 그 별로 인해 사물놀이부가 자연스럽게 조직되고 아이들의 심성도 바뀌어 간다. 결말 부분, 주인공이 사물놀이를 통해 이혼 위기에 빠진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장면은 가족의 의미를 곰곰 생각하게 만든다.

나머지 세 편의 동화는 작가가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온,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동화로 다시 탄생시킨 수작들이다.

「자, 부옹이 먹어라」는 용봉산 상하리 마을에 전해 오는 부옹이 설화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마을의 노총각 심부름꾼이자 이야기꾼인 부옹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동네 처녀 영이누나가 시집가던 날 부옹이가 홀연 마을을 떠나자 소문이 만발한다. 얼마 뒤 부옹이가 부엉이가 되어 부엉바위로 돌아왔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이 “자, 부옹이 먹어라” 하고 바위에 음식과 술을 뿌린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수레 설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 산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는 백월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재구성한 동화로, 교육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잘 살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비 출신 최풍운은 왜구들의 침략으로부터 김 진사 가족을 구하고 백월산의 수호신이 된다. 작가는 이 설화를 현대로 접목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특히 주인공이 동굴 속 노인과 만나게 되는 장면은 이 동화의 백미이다.

「400년 후」는 홍동면에 묘가 남아 있는 실존인물 평양 기생 ‘난향’의 애절한 이야기를 재창작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찾아 황 도령을 만나러 온 난향, 그러나 이미 결혼한 황 도령은 죽고 난향은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지낸다. 난향이 죽자 마을사람들은 황 도령 무덤 옆에 난향의 무덤을 만들어 준다. 400년 후, 황씨 문중 후손들이 난향을 정식 조상으로 인정하고 난향은 꽃상여에 실려 황씨 문중 선산으로 향하게 된다. 작가의 섬세한 묘사로 마지막 부분은 좋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기쁨

김정현 작가는 서두에서도 밝혔듯 지난 20여 년 동안 그의 고향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채록하여 『삶과 상상력이 녹아 있는 우리 동네』를 발간,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우리 동네 많은 사람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재미있고 구수한 옛이야기 같은 동화를 써

나갈 것입니다. 이런 동화를 통해서 많은 독자의 가슴속에 꿈이 가득한 도깨비방망이를 하나씩 선물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동화집 『그 많은 도깨비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많은 검증을 받아 온 작가이다.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멋진 삶을 살며 다음 세대를 포용하는 할머니

글 김세희 그림책 연구가

『도시에 사는 우리 할머니』

로렌 카스티요 글 · 그림 | 이상희 옮김

재능교육 | 2015 | 40p

멋진 삶을 살며 다음 세대를 포용하는 할머니

필자는 최근 할머니가 되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손주와 놀아 주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지만 진정 행복한 시간이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며 하루 하루 전쟁을 치르듯 힘들게 보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기도 했고 주관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던 것 같다. 손주를 보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더 포용력 있는 나를 스스로 감지하면서 몸은 고달프지만 성취감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훨씬 크다. 아마도 많은 할머니가 필자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리라 짐작된다.

도시 생활을 즐기는 할머니

이전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감정은 병약하고 늙은 외모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또 얼마 전까지는 젊은이들이 모두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도시로 떠나고 쓸쓸히 남아 시골을 지키는 사람들로 연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그림책 속 할머니는 도시 생활을 즐긴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놀러 온 손자와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손자가 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할머니는 빨간 털실로 망토를 짜서 불안해하는 손자에게 입힌다. 마치 슈퍼맨이 된 듯 빨간 망토를 걸친 손자는 용감하게 도시 속으로 들어가 도시의 삶을 다시 들여다본다. 할머니의 지혜로운 도움으로 손자는 도시 생활을 편안한 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젊고 당당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30~40년 전에 결혼했던 세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고 있다. 그들은 아직 생산 현장에 있거나, 또는 은퇴했더라도 오랫동안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나름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배우며 열심히 살고 있다. 박물관에서 열리는 강연을 들으러 가 보면 잠깐씩 쏟아지는 졸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강의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열성적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아직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꿈도 많다. 젊을 때 하던 일을 계속 깊이 있

게 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일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을 새로 시작하여 또 다른 10년, 20년을 계획하는 이들도 있다. 노년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해 가면서 끝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을 때와 달리 속도도 느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빛깔의 결과물들을 내놓는다. 이렇듯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다.

다음 세대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가짐

96세 노인에게 만약 인생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다. 아주 젊은 날에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살아 보니,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 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진정 음미할 수 있는 시기인 60대 중반~70대 중반이 우리 인생의 절정기이며 노른자다”라고 회고하였다고 한다. 이 글은 며칠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었다며 친지가 보내 준 것이다.

이 대답은 육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손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는 엄마가 아이를 이해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부모와 아이는 가장 가까운 혈연임에도 서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왜냐하면 둘 다 성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연륜에서 나온 따뜻함으로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다면 아이는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손주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해 주는 할머니가 아니라, 평생을 체득해 온 인생 경험에 육아 지식을 더 얹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라면,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모든 것을 갖춘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한 양육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 도시 풍경 속 할머니와 손자

빨강, 노랑, 주황의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나무들을 배경으로 여름의 푸르른 빛을 잃어 가는 잔디밭 위를 손을 잡고 걷는 그림책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 안경, 백, 모자 장식, 부츠까지 빨간 색으로 갖춰 입은 할머니와 휘날리는 빨간 망토를 걸친 소년은 가을 풍경을 완벽하게 만든다.

할머니는 외출할 때는 빨간색으로 치장하지만, 집에서는 초록색 안경을 끼고 초록색 실로 뜨개질을 한다.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초록색 옷을 제쳐 두고 밤새 손자를 위해 빨간색 실로 망토를 뜬다. 할머니 역시 도시에 도착해서 처음에 느꼈던 복잡하고 시끄럽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상을 오히려 멋지고 떠들썩하고 신나는 곳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빨간색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손자가 잠옷 위에 할머니가 만들어 준 망토를 걸치고 빙그르르 돌고 달려 보는 장면이 펼친 면 하나에 가득 펼쳐지고, 망토를 휘날리며 걷는 아이의 모습은 바로 이튿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 파트를 나서는 장면의 아이와 겹쳐진다. 이제 소년은 할머니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할머니는 뒤에서 소년의 망토 끝자락을 잡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

우리가 더 보고 싶은 할머니 삶의 단면

마침내 소년은 ‘이 도시엔 할머니들이 할 일이 아주 많아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여 준 도시에서의 삶은 대부분 바라보는 삶이다. 할머니의 말대로 ‘굉장한 모습의 도시’ 광경들이다. 이런 바라보는 삶이 진정 도시를 즐기는 삶일까? 이것은 관광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도시이다. 물론 새로운 도시에 온 손자에게

는 관광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도시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일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할머니의 삶도 그랬다면, 손자는 할머니가 도시에서 살아야 할 당위성을 마음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다음 책에서는 뜨개질한 옷들을 가게에 납품하는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뜨개질하는 사람들과 사교모임 활동을 하는 등 도시에서 더욱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할머니 모습을 기대해 본다.



러브레터야, 부탁해

글 오주영 동화 작가

『러브레터야, 부탁해』

오카 슈조 글 | 정가애 그림 | 고향옥 옮김

웅진주니어 | 2015 | 155p

진심이 만드는 마법의 힘

나는 어린 시절의 물건이 별로 없다. 졸업사진첩마저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딱 한 가지만은 여태껏 잘 간직하고 있다.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쪽지와 편지를 모아 놓은 편지 상자. 지금까지 수없이 이사하는 동안, 나는 상당한 부피의 편지 상자를 꼭 끌어안고 다녔다. 그건 나에게 온 것, 온전히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담긴 글이었으니까. 다만 당시의 진심일 뿐이었다고 해도 말이다. 자질구레한 일상사부터 초대 편지, 우정 편지, 러브레터까지 그 편지들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때로 궁금해진다. 내가 보낸 편지로 나처럼 위로받고 있는 친구도 있을까. 서툴게 쓴 편지 속 글자와 글자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머뭇머뭇 담아 보낸 진심을 내 수신자는 알아주었을까.

『러브레터야, 부탁해』의 단편 「마법의 약」은 러브레터에 담긴 진심이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보여 준다. 준의 엄마가 힘든 밤 꺼내어 읽는 아빠의 러브레터. 아빠는 하늘로 떠났으나 아빠의 러브레터는 엄마 곁에 남아 힘든 하루를 위로하고, 다음 날 새로이 씩씩하게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이게 엄마가 갖고 있는 마법의 약이야,
아빠의 이 편지가.”

그때 엄마의 웃는 얼굴이란!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을 잊지 못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답답한 일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루지만 엄마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힘을 내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고작 몇 줄의 글에 불과한데, 그 글줄에 담긴 ‘너’의 마음이 ‘나’를 그토록 다정히 감싸 온다. 러브레터 속 진심이 만드는 마법의 힘이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담긴 마음

편지를 쓰는 일은 어렵다. 나에겐 그렇다. 내 마음을 ‘너’라는 타인에게 전해야 하므로, 나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기보다 수십 수백 배 더 어려웠다. 아무렇지 않게 쓴 듯한 글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울음이 담기는지, 그게 러브레터라면 더할 터다. 「돈짱」의 사도미는 료에게 첫 러브레터를 쓰며 고민한다.

처음에는 마지막 ‘잊지 마’ 앞에 ‘나를’이라고 썼다.

하지만 웬지 부끄러워서

‘사쿠라 초등학교를’이라고 고쳐 썼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아

‘편지해 줘’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에게 편지해 줘’라고 쓰고 싶었지만

차마 ‘나에게’라는 말은 쓸 수가 없었다.

- 본문 중에서

‘나를’을 넣을까 넣지 말까, 이 작은 차이로 갈등하는 사도미의 마음에 공감이 간다. 나 또한 마음을 알리고는 싶은데, 너무 넘치게 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별 차이도 안 날 편지를 수없이 고쳐 썼다. 지금은 직접 편지를 쓸 일이 줄었지만 편지 대신인 메일을 쓸 때 여전히 망설이게 된다. 짧은 글 몇 줄을 보내기 위해 글자를 지우고 고치며 고민을 거듭한다. 나에게 메일이 편지보다 쉬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고민스런 악필을 숨기려 애쓸 필요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보내기 쉽다는 것. 편지는 메일과 달라 전달이 쉽지 않다. 특히나 그게 러브레터라면,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라면 더더욱 어렵다. 얇은 종이 한 장 들어 있을 뿐인 가벼운 봉투가 천근만근 마음을 누르니, 전하려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그렇더라도 러브레터를 쓰기까지의 떨림과 고민, 용기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마지막 추억」의 남자아이 ‘나’는 전학 가는 게이코에게 러브레터를 들고 갔다 우연히 함께 산책까지 하게 된다. 그러나 끝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러브레터를 찢어 강에 던져 버린다. ‘나’는 마음이 텅 빈 듯하다. 쑥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쿵쥔대는 마음, 화나는 마음 그리고 텅 빈 마음. 좋아하는 게이코가 떠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수많은 마음이 ‘나’의 안에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비밀한 마음의 무늬다.

가랑비처럼 소박한 사랑 이야기

이 책을 덮고 가랑비가 떠올랐다. 가랑비처럼 소박한 5, 6학년 아이들의 사랑이 가랑가랑 마음을 적셔 왔다. 전학 가는 게이코에게 러브레터를 보내고 싶은 ‘나’, 전학 가는 쇼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뒤 후회하는 사도미, 단짝 친구 모에의 러브레터를 좋아하는 남자애의 가방에 넣어야 하는 가에데, 친구들의 장난 러브레터를 받고 두근대는 고타, 소꿉친구 료가 러브레터를 받은 걸 안 뒤부터 료에게 끌리는 루미, 아빠가 보낸 러브레터를 보게 된 준. 여섯 아이의 마음에 막 사랑이 들어오며, 사랑을 깨달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나’와 ‘너’가 만나기까지의 이야기, 둘의 관계 맺음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를 담은 이야기가 맑고 싱그럽다. 꽃봉오리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 터지기 직전의 싱싱함과 설렘이 이 안에 있다. 책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어린이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는 점이 매력이라면, 그 사랑이 맑고 순수한 프레임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나는 이 책에 끌린다. 그 풋풋함에, 그 소박한 사랑에, 진심을 담은 편지의 울림에.



애들아, 2015년이 밝았다 세상 배우러 떠나자

글 류근원 동화 작가

『막내 도토리의 세상 배우기』

조대현 글 | 박수현 그림

오늘 | 2014 | 126p

유년시절 도토리에 대한 추억

장년층의 유년시절엔 지금과 같은 다양한 장난감이 없었다. 그 당시엔 도토리도 좋은 장난감 구실을 했다. 도토리에 성냥개비를 박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힘을 주어 돌리면 훌륭한 도토리 팽이가 되었다. 서너 명이 모여 지금의 팽이 놀이처럼 부딪치게 해서 게임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도토리로 인형도 만들고 시소도 만들어 놀았다. 그런 도토리가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배우러 나왔다.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줄곧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애들아, 2015년이 밝았다. 세상 배우러 떠나자!”

작가에 대한 단편적 이해

『막내 도토리의 세상 배우기』를 지은 조대현 동화작가는 우리나라 아동문학계의 원로이다. 1939년생이니까 올해 76세이다. 196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동화를 써 온 지 46년째나 된다. 아직도 동화를 빚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현상이며 많은 아동문학가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만큼 동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깊기 때문이다. 언젠가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난다.

‘우리 설화에 뿌리를 둔 장편 판타지 동화를 쓰고 싶은 게 꿈이란 이야기,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 막내 도토리가 꿈을 이룬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동화

작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설정했다.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는 동화작가가 이상한 이파리 한 장을 줍게 된다. 암초처럼 써져 있는 이상한 이파리, 동화작가는 고심하다 이파리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마술처럼 이야기가 펼쳐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년 열두 달을 배경으로 다달이 재미있는 사건이 전개되는 연작동화이다. 열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이 한곳에서 만나듯 작가의 계산된 의도에 결부되어 있다. 그래

서 재미있게 읽히며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곳곳에 있다.

주인공은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상수리나무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막내 도토리이다. 막내 도토리에겐 꿈이 있다. 엄마처럼 큰 나무가 되어 산 아래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게 꿈이다. 그러나 배고픈 다람쥐의 등장으로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된 도토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다친 아기 토끼에게 그물을 짓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진달래와의 만남에서는 세상에는 힘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다.

들쥐에게 잡혀 먹힐 뻔했다가 살아나며 무서운 세상을 경험하고, 엄마의 소중한 울타리까지 생각하는 막내 도토리. 준호와 간호사의 만남으로 파스한 세상을 경험한 후 외딴섬에서 물새와 풍랑으로 떠내려 온 아저씨를 만나면서 어느새 도토리는 얼룩부리 갈매기의 거만한 마음씨까지 순화해 주는 도토리로 성장한다.

얼룩부리 갈매기로 인해 도토리는 물으로 오게 되고, 불개미들에게 두더지를 이길 수 있는 지혜까지 가르쳐 준다. 이야기가 정점에 도달하면서 도토리는 두루미와의 만남으로 산속까지 오게 된다. 2월에 만났던 토끼의 도움으로 도토리는 무사히 엄마 나무와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도토리의 꿈이 이루어지며 독자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눈앞에는 애니메이션을 본 듯한 잔상까지 남게 된다.

꿈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

어느 동화이든 그 속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독자는 동화를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책 읽는 재미와 감동에 빠지게 되고, 그 감동은 독자가 자라는 데 좋은 양분이 되어 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 동화의 내용은 겁쟁이 도토리가 열두 달 동안 낮선 세상에서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겁쟁이에서 용기 있는 도토리로 변한다는 내용이다. 그 와중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홀로 다스릴 줄 알게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도토리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소중한 삶의 자세이며 인성을 아름답게 해 주는 큰 덕목이다. 작가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막내 도토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산속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엄마 나무 곁에서 엄마처럼 큰 나무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도 주인공 막내 도토리처럼 어릴 때부터 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 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다. 꿈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 꿈꾸지 않고서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스페인의 철학자 그라시아의 명언이 떠오른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새해가 되자마자 읽게 된 꿈을 주는 동화책 『막내 도토리의 세상 배우기』이다. 이 동화를 다 읽고 난 뒤, 탁상달력을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삽화와 주요 글귀를 넣어서 만든 열두 달 탁상달력, 동화와는 또 다른 기쁨과 꿈을 선물하지 않을까?



나를 표현하는 나의 옷

글 김세희 그림책 연구가

『말하는 옷』

홍나영 글 | 이장미 그림

보림 | 2015 | 45p

TV사극을 볼 때마다 과거 우리 민족이 때와 장소에 맞추어 저토록 다양한 옷을 잘 갖추어 입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그 옷들에는 나름의 미적 감각이 가미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장신구, 허리끈, 모자(갓), 신발들은 그것을 갖추어 입은 개인들의 개성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TV라는 영상 미디어의 특성이 우리 옷의 전통을 변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그림책을 보면서 영상미의 화려함을 염두에 두더라도 영상 속에 재현된 복식문화가 허구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 전통 옷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보며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 보자.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지닌 옷

초기 인류는 추위나 뜨거운 태양과 모래, 바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이 필요했다. 동물들과 달리 털이 적은 인간은 무엇보다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 동물의 가죽이나 자연물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한 실용적인 이유로 옷을 입던 인간은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 하는 본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옷을 활용해 왔다.

북방 유목민의 뿌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즐겨 입던 초기 옷은 남녀 모두 바지와 저고리로 말 타기 등의 활동에 편리하도록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당시 저고리의 다양한 여밈 방식과 바지 모양은 우리 조상들이 기능성 이상으로 일찍이 의복에 예술적 감각을 가미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책에 담긴 일관된 메시지는 우리 민족이 다양한 한복과 관련 장신구, 모자, 신발에까지 실용성과 더불어 자신의 정신세계를 담은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전통 복식에서 읽을 수 있는 세계적 교류와 시대적 문화

인터넷과 교통의 발전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현대가 아닌 그 옛날에 먼 거리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의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놀랍다. '신라 고분 속의 팔찌와 반지가 로마 양식이고, 구슬 목걸이의 고운 옥 위 푸른 구슬은 페르시아풍'이며 당시 수입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문물교류에 따른 유행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일을 쓴 고려 아가씨’ 장에서는 조선시대에 비해 여성의 권위가 더 높고 여성에게 많은 것이 허용되었던 고려시대 문화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여인들의 몸수는 이슬람의 베일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 당나라로 전해지면서 유행했을 것이라는 논의는 무척 흥미롭다.

현대사회에서 의류 패션계가 이끄는 선도적인 유행 변화의 물결은 의류와 의류 관련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의 의복생활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옷감, 패션, 공급체계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다양해진 지금, 유행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유행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자신이 입은 옷에 더욱더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을 것이다.

세계 의류산업의 중심이었던 한국

한때 의류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입는 옷의 변화에 대한 연구, 생산, 판매에 집중한 결과 자연스럽게 의류산업과 관련 산업(신발, 가발 등)이 발전했다. 또한 국내의 수많은 의류산업 기반과 인력은 남미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나뭇대로의 또 다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의류산업의 발달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항상 기능성에 더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해 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복식문화가 기반이 되었음은 이 그림책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확신이다.

실루엣과 어우러진 그림

표지에는 조바위를 쓰고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있는 양중맞은 소녀 주변으로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 이 그림책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보라는 듯 백제 왕비의 금관 장식 실루엣을 비롯한 여러 실루엣 그림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림책 뒷 부분의 찾아보기와 참고 문헌은 이 책에 담긴 내용이 학문적 연구와 고증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친숙한 옛 그림들도 이 책이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용된 이 옛 그림들의 원전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독자로서 지나친 욕심인지는 모르나, 읽으면서 그 부분이 아쉬웠다. 한편으로 많은 정보를 한정된 지면에 제공하려는 집필진의 노력과 별개로 어울리지 않는 옛 그림들의 배치는 눈에 거슬린다. ‘조선 복식열전’에서 임금과 왕비의 일상복과 예복 차림 부분에서 왕비의 어깨 뒤 어색한 소년의 그림을 예로 들 수 있다.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박물관 관람

이 그림책은 고대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옷의 역사적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박물관에서 이 모든 것을 보려면 오랫동안 서서 설명을 읽어 가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다. 『말하는 옷』과 같이 글과 그림으로 잘 구성된 정보 그림책은 많은 시간을 들여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박물관 관람의 수고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게다가 개인의 관심사인 특정 주제나 흥미 있는 그림을 볼 때는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말하는 옷』은 그림책이 유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모든 이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다.



나부터 꼭 가고 싶은 곳 ‘멋대로 도서관’

글 오주영 동화 작가

『멋대로 도서관』

신현경 글 | 에스더 그림

푸른책들 | 2015 | 157p

책 읽기가 싫은 이유

책에 관한 한 나는 늘 자유로웠다. “책 좀 읽어!”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 무엇을 읽을 권리와 읽지 않을 권리는 언제나 나에게 있었다. 그 덕에 나는 오롯이 책을 사랑할 수 있었다.

요즘의 아이들은 나처럼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책을 읽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고르도록 내버려 두지 못한다. 좋은 부모라면 좋은 책을 읽혀야 하므로, 독서야말로 대입 논술의 중요한 바탕이 될 터이므로, 검증된 책을 골라 아이 앞에 밀어놓고 말해야 한다.

“읽어!”

어쩔 수 없다. 무한경쟁시대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학년별 ‘필독’이라고 붙은 도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아이 머릿속에 우겨 넣어야 한다. 학교는 다달이 추천 도서를 내놓고 독서 골든벨을 열어 읽은 내용을 확인한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가 독서 장려를 위해 노력할수록 아이들은 책과 점점 더 멀어진다. 독서가 의무가 된 순간, 스스로 골라 읽을 자유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책은 공부의 또 다른 연장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독서를 즐기란 말인가.

『멋대로 도서관』은 이런 현실의 문제를 비상하게 잡아낸다. 우리 아이들이 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지 독자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읽고 싶은 책일까, 읽어야 하는 책일까

강우네 마을에 새로 생긴 ‘멋대로 어린이 도서관’에는 어른이 들어올 수 없다. 이곳에 있는 단 한 명의 어른인 도서관 관장님은 아이들이 멋대로 책을 즐기길 바란다. 여기서만 과자 부스러기를 잔뜩 흘리며 먹는다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다. 바른 자세로 앉아 책을 읽을 필요도 없다. 아예 누워서 뒹굴며 책을 보라고 4층 침대까지 가져다 놓았다. 여럿이 어울려 책 이야기를 떠들어도 되고, 혼자 조용히 책을 읽어도 좋다.

그런데 이곳의 첫 고객이 된 강우는 재미없는 5학년 추천도서를 신청해 그것만 부지런히 읽고 있다. 강우뿐만이 아니다. 독서 골든벨에서 우승을 노리는 아이들은 만화책이 칸칸이 꽂혀 있는 이 곳에서조차 추천도서에 코

를 박고 있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도 않은 등장인물의 이름과 별명까지 달달 외워 가며 말이다. 조금도 즐겁지 않은 독서를 좋은 독서라고 할 수 있을까?

강우는 놀이터 같은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진심으로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추천도서에 대해 그동안 해 본 적 없던 고민에 빠져든다.

‘이 책은 읽고 싶은 책일까, 읽어야 하는 책일까?’

사실 강우에겐 독서 골든벨에서 우승해서 자기가 무식하지 않다는 걸 슬기한테 증명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읽어야 하는 책’인 추천도서를 읽고 안 읽고는 강우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이런 점에서 강우는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 반면 골든벨의 우승을 노리는 다른 아이들에겐 추천도서를 읽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없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 아니 기대라는 이름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책을 붙들고 있어야만 한다.

멋대로 할 자유

어느 날 강우는 자기가 신청한 5학년 추천도서 맨 앞장에 적혀 있는 낙서를 발견한다.

나는 협박을 받고 있어.

너도 혹시 협박을 받아서 이 책을 읽는 거니?

— 본문 중에서

누군가가 강우에게 보낸 메시지다. 강우는 이 메시지 낙서에 대한 답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앞장에 정성껏 쓰고 책 뒷장에 동화의 결말을 바꾼 낙서까지 남긴다. 그 낙서들은 도서관에서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건만 아이들은 책 뒷장에 텅달아 흥미진진한 낙서를 적고, 다른 아이들의 낙서를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펴 나간다. 아이들의 소망과 꿈이 담긴 낙서는 책 읽기를 열 배 스무 배 더 즐겁게 만든다. 재미난 별명만큼 사연도 갖가지인 아이들이 낙서의 주인을 추리하고 낙서를 통해 소통하는 가운데 도서관은 멋대로 책을 읽는 어린이들의 진짜 놀이터로 변모한다. 그 속에서 강우는 골든벨 우승과 진짜 독서의 의미를 스스로 판단하고 우승에 연연치 않는 ‘멋대로’ 아이로, 자기 삶의 진짜 주인으로 성장해 나간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에겐 자유가 너무 적다. 해라, 하지 마라, 돼라, 읽어라……. 날마다 아이들 머리 위로 어른들의 명령이 쏟아진다. 이 무수한 명령문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명령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더욱 현명해질 수 있는 생생한 경험의 기회를 지워 버린다.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부모의 믿음, 그리고 멋대로 -내 뜻대로 선택- 할 자유임을 『멋대로 도서관』을 통해 돌이켜 보게 된다.



바삭바삭한 과자의 유혹 에서 하늘로 훌훌

글 김세희 그림책 연구가

『바삭바삭 갈매기』

전민걸 글 · 그림

한림출판사 | 2014 | 37p

유람선을 따르는 갈매기 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유람선을 타는 곳이면 어김없이 갈매기 떼가 배를 따라온다. 그 이유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던져 주기 때문이다. 어떤 배에서는 갈매기에게 주는 모이를 따로 팔기도 한다. 손가락으로 과자 가장자리를 잡고 있으면 갈매기가 날아와 과자를 낚아채는 솜씨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한다.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과자, 사람들의 환호 소리, ‘찰각’ 소리에 한때 갑판 위는 축제장을 방불케 한다.

과자 맛에 매혹된 갈매기

배가 고프면 고등어를 잡아먹으며 큰 바위섬에서 친구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주인공 갈매기는 어느 날 큰 배에서 사람들이 던져 주는 과자를 처음 맛보게 된다. 갈매기가 부리로 쪼아 보니 “툭툭! 바스락!” 예사롭지 않은 소리와 ‘쫄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하다.

과자를 한입 깨물어 보는데, “와그작 바삭! 바삭!” 생전 처음 맛보는 특별한 음식 맛에 갈매기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모든 갈매기가 과자를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 배 뒤를 따른다. 바삭바삭한 맛에 매혹된 갈매기들은 이제 고등어를 잡을 생각은 않고 바다 대신 부둣가에서 ‘바삭바삭’을 찾아 헤맨다.

‘바삭바삭’을 찾은 갈매기

큰 배를 따라 부둣가 마을에 도착한 갈매기들은 부둣가에서 바삭바삭을 찾아다니고 주인공 갈매기는 드디어 마을의 과자 가게에서 바삭바삭을 찾아낸다. 바삭바삭을 찾은 기쁨에 차 있던 갈매기는 이미 많은 갈매기가 과자를 실컷 먹고 취해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들은 털도 빠지고 갈매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변해 버린 이상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썩 똥과 오물 속에서 과자를 계속 먹어 대고 있다. 게다가 고양이도 달려들어 갈매기들은 날 수도 없어 도망도 못 간다. 주인공 갈매기도 잘 날 수 없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날개를 힘겹게 저어 겨우 지붕 위로 날아오른다. 갈매기는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큰 배를 따르는 다른 갈매기들과 멀리 떨어져 바다 위를 날며 갈매기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다.

반생태윤리적 행위

어떤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의 먹이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한다. 산행을 하면서는 산새들이나 다람쥐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음식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본적도 있다. 하지만 나 또한 유람선에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워했고, 갈매기에게도 좋은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우리가 유람선에서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던져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갈매기들의 건강을 해치고 갈매기의 본성도 잃게 하는 반생태윤리적 행위였음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

갈매기의 건강을 해치는 과자 부스러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과자 맛에 길들여져 좋아하는 과자만 먹는다면, 혹은 입이 즐거운 피자, 햄버거, 콜라만 먹는다면 아이들은 배도 부르고 살도 찌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몸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든 밥과 반찬을 먹으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갈매기들이 날개 빼와 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의 섭취원으로 물고기가 필요하듯이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극적인 맛의 과자가 아닌 평범한 식사를 꾸준히 하는 습관은 다른 생활습관으로도 이어진다. 아이들이 자극적인 오락과 게임에 길들여지면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 가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책 읽기는 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독서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나 영상에만 열중하게 될 수 있다.

『갈매기의 꿈』의 조너선 리빙스턴

문득 나는 젊은 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1963)을 떠올렸다. 주인공 조너선은 배불리 먹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배움과 단련으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특별한 갈매기다. 고기잡이배들이 물고기 떼를 끌어들이기 위해 뿌리는 밀밥에 달려들어 쉽게 먹이를 구하는 다른 갈매기들과 달리 조너선은 높이 나는 고된 연습을 한다. 배부른 음식의 유혹에서 자유를 얻었던 조너선과 같이 이 책의 주인공 갈매기도 과자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바삭바삭 과자의 유혹에서 벗어나 바다 위를 홀로 난다.

영화 장면을 보는 듯한 여러 시점의 그림들

갈매기의 시점(視點), 즉 새의 시점인 조감도(鳥瞰圖)로 내려다본 부둣가와 바다 그리고 클로즈업된 갈매기의 얼굴 표정은 변하는 장면 속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낮과 밤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 주는 부둣가에서 원경과 근경으로 표현된 갈매기들의 움직임은 인간처럼 느껴질 만큼 잘 의인화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 갈매기가 과자를 처음 맛본 느낌을 표현하는 장면은 글과 그림 모두에서 과자의 맛이 대단히 매혹적임을 전해 준다.

이 그림책은 주인공 갈매기의 시각과 목소리로 독자들이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어울림을 생각하게 만든다. 멋진 그림과 군더더기 없는 장면으로 구성된 이야기는 발단, 전개, 절정까지 급속도로 진행되어 결말에 이른다. 우리는 주인공 갈매기의 뒤를 따르면서 바삭바삭 과자 맛과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다가 주인공 갈매기와 함께 과자로부터 탈출한다. 『바삭바삭 갈매기』는 글과 그림의 조화 그리고 통찰력을 주는 메시지의 전달,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림책으로 작가의 다음 그림책이 기대된다.



나도 변기에 앉아 응가하고 싶어요!

글 김세희 그림책 연구가

『빠이빠이 기저귀!』

레슬리 패드리셀리 글 | 마술연필 옮김

푸른책들 | 2015 | 26p

아기가 태어나 자신이 소속된 문화에 적응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업은 '산 너머 산'과 같다. 하지만 그 하나 하나의 성취는 마치 기적 같아서 부모들은 놀라움과 더불어 기쁨으로 맞이한다. 아기는 젖을 떼고 우유와 이유식을 먹을 무렵이면 젖니가 나기 시작하고, 배밀이를 하며 기어 다니다 물건을 잡고 일어나 옆으로 이동하고 마침내 스스로 걷게 되는 일련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에 반해 기저귀를 떼는 순간은 너무나 더디게 온다.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대소변 가리기 전까지 사용한 기저귀를 쌓아 놓으면 엄청난 높이가 될 것이다. 이 그림책을 통해 변기에 앉아 응가를 할 수 있게 된 아가의 성취감을 함께 느껴 보자.

영아용 보드북

최근 몇 년 사이에 '영아 그림책' 혹은 '아기 그림책'으로 불리는 보드북이 많이 수입, 제작,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보드북의 외형상 특징은 아가들이 두드리고 던지고 깨물어도 책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 겹의 종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은 아가들이 이리저리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져 있고, 아가들의 침이나 손으로 만져 생긴 얼룩도 손쉽게 닦인다.

『빠이빠이 기저귀!』는 형태상 보드북이지만, 내용은 반복을 기저로 하는 대부분 영아나 아기 그림책 수준을 넘어선다. 이 그림책은 기승전결의 견고한 스토리와 재미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아용 그림책으로 제작되었더라도 무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아가 대소변 가리기를 시작하는 18개월쯤부터 완료되는 30개월 정도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책으로는 보드북의 형태가 더욱 적절하리라 본다.

아가의 주체적인 노력

『빠이빠이 기저귀!』는 아가가 응가하고 싶는데 '기저귀에 응가할까? 아니면?' 하는 아가의 심리적 갈등으로 시작된다. 대소변을 가리게 되는 동기 중 하나는 기저귀에 응가했을 때 느끼게 되는 불쾌감을 인지하면서라고 한다. 엉덩이 전체에 퍼진 배설물과 그것을 닦아 내는 과정의 불쾌함을 반복적으로 인지하면서 아가는 기저귀는 찾지만 서서 응가를 하거나, 응가를 기저귀에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그림책은 아가가 진지한 작업처럼 대변 가리기에 성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가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변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야

말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부모와 보면서 아가는 인지적으로 대소변 가리기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아기 변기의 활용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책은 이러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 이상으로 에피소드를 많이 담은 재미있는 그림책이다. 아가는 지난한 노력과 하품 날 정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변기에 응가를 한다. "짜잔, 짜잔, 짹짹!"의 의성어와 초록 바탕 위의 노란 별들은 아가의 노력과 성공에 대한 보상을 상징한다. 커다란 노란 별 위의 "내가 해냈어요"라는 글과 귀까지 걸린 아가의 입은 최고의 성취감을 보여 준다. 다음 장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줄줄 풀리는 하얀 화장지를 들고 뛰는 아가 뒤를 손뼉을 치며 따라가는 아빠와 엄마에서 아가의 주도적인 모습은 더욱 강조된다.

눈여겨볼 예술적 표현

이 그림책은 아가의 대소변 가리기를 돕는 교육적 효과를 넘어서 그림으로 작가의 예술적 감각과 성 평등 의식도 보여 주는 책이다. 우선 발가벗은 아가 캐릭터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 없도록 그려 탁월한 표현력을 보여 준다. 그리고 아가 입의 변화 혹은 눈과 눈썹의 변화로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아가의 피부색과 같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등장은 통일성을 보여 주어 아이와 동일시하기에 좋다. 고양이는 모래상자에, 강아지는 한 다리를 들고 나무 옆에서 응가를 하는 걸 보고 아가는 아기 변기에 앉아서 응가해 보려고 시도한다.

각 페이지의 바탕색은 보라, 초록, 노랑, 빨강, 파랑, 주황, 청록색, 주홍, 연두와 초록의 분할 등 다양한 색을 사용했지만 산만하지 않고 통일감을 보여 준다. 대부분 원색을 사용했지만 바탕색과 같은 계열의 약간 짙은 색 그림자를 아이의 발아래 깔아 놓음으로써 독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남아와 여아의 귀여운 팬티 그림들은 "예쁜 팬티는 모두 내 거!"라는 아가의 목소리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다시 남녀의 구별을 원치 않는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영아 그림책에서의 다양한 시도들

응가가 나오려는 급한 순간 한 펼친 면에 아이의 당황하는 네 개의 모습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근 사선으로 표현한 작가의 센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저귀만 찬 아이가 입술을 움직이고, 나중에는 다리까지 꼬는 모습으로 다급해진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한 장면에 한 아이의 연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양식은 아기들에게 혼동을 준다 하여 이전에는 피하기도 했지만 현대 그림책에서는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작가의 센스가 돋보이는 또 다른 펼친 면은 ① 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변기에 앉는다 ② 일어나 기저귀를 벗어 버린다 ③ 다시 변기에 앉는다 ④ 빈 변기 ⑤ 아기가 그림책(변기 그림이 그려진)을 보면서 변기에 앉아 있다. 전 장면의 빈 변기는 아기가 그림책을 가지러 다녀온 것을 암시한다 ⑥ 그림책을 던져 놓고 심각한 얼굴로 기다린다 ⑦ 일어나 변기 안을 들여다본다 ⑧ 다시 앉아 턱을 괴고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응가를 기다린다고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펼친 면을 8개로 분할하여 아기가 변기에 응가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 만화의 컷처럼 연속적으로 보여 준다. 이 보드북은 외형상으로는 영아용 그림책이면서 내용상으로는 스토리 전개상 아가들이 대소변을 가릴 때까지 즐겨 볼 수 있는 특별한 그림책이다. 아파나 엄마가 읽을거리로 신문이나 잡지를 활용하듯 때때로 아기가 변기에 앉아서 응가를 기다릴 때 이 그림책에서처럼 이 책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나기

글 김세희 그림책 연구가

『사자와 작은 새』

마리안느 뒤비크 글 · 그림 | 임나무 옮김

고래벳속 | 2015 | 72p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사는 우리는 잠깐 머물다 가 버리는 짧은 가을과 긴 겨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다가올 추운 겨울날을 어떻게 지내야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사자와 작은 새』의 겨울나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낙오된 자의 행운

어느 가을날 뜰에서 일을 하던 사자는 부상당한 작은 새를 만나 치료를 해 준다. 작은 새는 상처가 덜 아물어 무리와 함께 남쪽나라로 떠나지 못하고 낙오된다. 결국 작은 새는 사자의 집에서 겨울나기를 시작한다. 작은 새에게 행운 일 줄 알았던 두 동물의 만남은 오히려 홀로 살던 사자에게 행복을 안겨 준다. 외롭게 살던 사자는 작은 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에 활기를 얻는다. 사자와 달리 작은 새는 작고 연약하며 먹는 것도 다르고 잠자리도 달라서 사자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자는 작은 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잠이 든다. 사자는 작은 새를 돌보며 같은 일상이지만 전과는 다른 맛과 기쁨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사자는 눈을 본 적이 없는 새에게 눈 맛을 보여 주며, 자신의 따뜻한 털모자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작은 새와 함께 썰매도 타고 얼음낚시도 즐긴다.

행복한 겨울나기와 예상된 헤어짐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어요. 겨울은 정말 추워요. 하지만 둘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이것이 사자와 작은 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이 그림책의 주제이다. 하얀 눈밭 속에 외따로 서 있는 사자 집에서 피어오르던 두 개의 분리된 굴뚝 연기가 다음 장면에서 하나로 합쳐져 둘의 행복을 이미지로 상징하고 있다. 또한 펼친 면 하나를 글도 그림도 없는 하얀 공간으로 남김으로써 온 세상에 눈이 내린 장면을 형상화하는 작가의 아이디어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이 빈 펼친 면은 긴 겨울을 상징하고 새 봄을 맞는 다음 장면 간의 시간적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겨울을 함께 보낸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온다. 사자와 새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 따뜻한 봄을 즐길 때, 작은 새의 무리도 돌아온다. 이제 새도 사자도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을 안다. 새는 하늘로 날아오고, 점점 작아지는 땅 위에 남겨진 사자의 모습은 새의 눈에 비친 이미지임과 동시에 점점 멀어지는 서로의 거리감을 나타낸다.

떠나보내는 자와 떠나는 자

우리는 때로는 사자처럼 같은 자리를 지키며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새처럼 떠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방학을 맞아 고국에 온 유학생,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 명절에 고향의 부모를 찾아가는 자녀들, 연인을 두고 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들 모두 작은 새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을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돌아오면 품어 주는 사자와 같은 부모나 연인들의 마음이 가슴으로 전해 온다.

남겨진 자의 외로움

집으로 돌아온 사자는 쓸쓸히 혼자 밥을 먹고 책도 펴개치고는 침대에서 말뚱말뚱 오지 않는 잠을 청한다. 예상된 헤어짐이었지만 사자에게 그것은 이성적인 이별이었지, 마음으로 작은 새를 떠나보낸 것은 아니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작은 새가 떠난 빈자리는 컸던 것이다. 사자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는 사라졌지만, 사자는 외로움을 딛고 다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에 몰두한다. 식물을 기르고 여름을 즐기며 다시 가을을 맞이한다. 기쁨, 헤어짐, 슬픔과 관계없이 사계절의 순환을 반복하는 자연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진다. 문득 사자는 작은 새를 만났던 지난가을을 기억하고는 작은 새를 그리워한다. 사자의 ‘가을 앓이’가 시작된 것이다.

같은 장소 다른 분위기의 세 장면

이 그림책에는 벽난로 앞에서 사자가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장면이 세 번 나온다. 첫 장면은 사자와 작은 새가 함께 살기 시작할 즈음의 일상적 풍경이다. 사자가 새에게 책을 읽어 주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새는 보금자리에서 이불을 덮고 얼굴만 곧추세우고 사자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 둘째 장면은 추운 겨울에 사자와 작은 새가 눈밭에서 놀다 돌아와 젖은 장갑, 머플러와 부츠를 말리면서 책을 읽는 모습이다. 벽난로의 불빛은 그들의 따스함과 기쁨을 반영하듯 첫 장면보다 더 붉은빛을 띤다.

셋째 장면은 새가 떠난 뒤, 사자가 책도 펴개치고 벽난로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다. 사자의 곁에는 작은 새의 빈 둥지만 남아 있어 그의 슬픈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듯 세 장면은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분위기를 전해 준다.

이 그림책은 가을에서 시작하여 겨울, 봄, 여름, 또다시 가을이라는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사자와 작은 새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재회를 다룬 이야기답게 일반 그림책보다는 페이지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글이 적고 간결하며 그림으로 또는 여백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내용이 긴 그림책이란 느낌은 없다. 그림책 속 이미지의 역할을 극대화한 멋진 책이다.

작은 새와 사자의 해후

‘♪-’로 표현된 새소리와 함께 돌아온 작은 새를 사자는 환한 미소와 기쁨으로 맞이한다. 펼친 면의 오른쪽 중앙에 단 하나의 이미지 ‘♪-’는 그 어떤 그림과 어떤 의성어로 표현된 글보다 강력하고 신선하다. 이제 사자와 작은 새는 또 다른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대하며 행복에 잠긴다.

춥고 스산한 겨울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우리도 사자와 작은 새처럼 나누고 함께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자. 혹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다정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적극적으로 겨울을 함께 즐길 수 있다면, 겨울도 춥지만은 않은 계절이 될 것이다. 또한 봄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어둡고 외로운 밤, 주앙의 꿈나라를 함께 여행해요

글 이승원 그림책 작가

『실 끝에 매달린 주앙』

로저 멜로 글 · 그림 | 임소라 옮김
나미북스 | 2014 | 35p

로저 멜로는 “아이들은 생각 이상으로 더 심오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존재”라며 “어린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게 해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캄캄한 밤에 홀로 남겨진 주앙의 두려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세상이 잠들어 버린 캄캄하고 고요한 밤,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아 괴롭고 무서웠던 어린 날의 기억을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분명 부모님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실 텐데도, 푹푹푹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이에게 한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고요한 밤의 어린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며 잠이 들까.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방 안의 사물들이 갑자기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고, 덮고 있는 이불 속 토끼무늬가 짹짹 눈앞으로 튀어나와 어딘가로 데려가려 할지도 모른다. 어둠과 밤은 어린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작가 로저 멜로도 혼자 잠이 깬 캄캄한 밤이면 손가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놀았던 어린 시절의 상상을 떠올리며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브라질 출신의 동화 작가이자 그림책 작가인 로저 멜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화를 직접 쓰고 그리며, 어린이의 마음을 존중하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세계를 인정받아 2014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으며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가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로저 멜로 원화전에서 소개된 그의 다양한 그림은 남미 특유의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감이 인상적이면서, 거칠기보다는 굉장히 세밀하고 아기자기한 드로잉을 보여 주고 있어서 매우 놀라웠다. 그의 작품들에는 뜨거운 남미의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았다.

『실 끝에 매달린 주앙』은 작가 로저 멜로가 안데스 산맥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 아이들을 만난 느낌을 담은 그림책이다. 갈대를 엮어 만든 아름다운 섬과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 갈대밭을 걷는 가마우지와 물닭,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이름 모를 새들을 만나고서 로저 멜로는 이들이 나오는 아름다운 꿈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어부의 아들인 주인공 주앙은 밤에 일을 나가야 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혼자 잠이 들어야 하는 아이다. 엄마가 덮어 주고 간 손뜨개 이불 속에 혼자 남은 주앙은 당연히 포근하고 안락한 모습이 아니다. 화면 안에 불안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사람의 형상을 길고 거대한 손뜨개 이불이 덮고 있다. 까만 밤 속에 흰 실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이불은 화면 밖으로 뻗어나갈 정도로 길고 거대하다. 이 책은 알록달록 색감이 화려했던 로저 멜로의 다른 그림들과 달리 빨강, 흰색, 검정의 세 가지 색만으로 주인공의 꿈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제한된 색임에도 섬세한 드로잉과 리듬을 가진 화면 구성 덕분에 전체적인 그림은 오히려 화려하고 다채롭게만 느껴진다.

이마에 남아 있는 엄마의 입맞춤 온기를 되새기는 주앙은 캄캄한 밤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내고 어느새 환상과 모험의 꿈나라로 들어간다. 어둠의 두려움이 사라진 주앙의 꿈나라에는 열대 식물의 꽃도 있고 신기한 열매도 있다. 아주머니들이 노래를 부르며 또 다른 이야기를 짓기도 하고, 바람에 출렁이는 호수의 물결 따라 물고기들이 헤엄을 친다. 주앙은 이불 속에서 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아빠를 떠올려 보기도 한다. 엄마의 이불과 놀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잤다 하며 꿈나라를 오가는가 보다.

주앙의 꿈의 세계 역시 평온하지만은 않다. 커다란 호수에서 사람보다 더 큰 물고기와 싸우기도 하고, 호수의 물을 흘려보내다가 이불이 물에 잠겨 버리기도 한다. 아마도 파란만장한 꿈을 꾸다 그만 이불에 오줌을 싸나 보다. 꿈속의 커다란 물고기는 그물에 구멍을 내 버리고, 그물이었던 이불은 망가져 버린다. 주앙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고는, 다시 꿈속에서 만났던 물고기와 호수, 산등성이, 아빠의 갈대밭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만든다. 바닥에 흩어진 글자들은 꿰매고 이어 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자장가가 되고, 자장가는 다시 주앙의 이불이 되어 주앙은 잠이 든다.

이렇게 다채로운 주앙의 꿈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정해진 서사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글과 그림에 많은 여백을 두고 독자들이 이야기를 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 이 책의 큰 매력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스스로 주앙의 꿈을 상상해 가며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 것이다. 주앙의 길고 긴 모험의 세계를 따라다니다 보면 지루하고 외로운 밤도 금세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만 같다. 밤은 더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신나고 환상적인 모험의 나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모험의 맨 앞에는 주앙이, 내가 서 있으니까 말이다.

로저 멜로는 남미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작가이다. 『숲을 피우는 아이들』, 『맹그로브 소년』에서는 숲가마에서 일하는 아이들, 맹그로브 노예 소년의 이야기를 담아 아동 노동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에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다소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아름답고 환상적인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어 독자들이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세련된 이야기 방식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천진하고 신나는 주앙의 꿈나라 여행의 이면에도 역시, 밤새워 일해야 하는 부모의 현실 때문에 아직은 엄마 품에서 잠들어야 할 어린아이가 홀로 남아 긴 밤을 보내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주앙의 모험 세계가 마냥 즐겁고 신나기보다는 왠지 짝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엄마 품에서 포근히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 수 있는 아이도, 주앙처럼 혼자 씩씩하게 자장가를 지어 부르며 잠드는 아이도, 모두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두운 밤 홀로 누워 긴긴 상상여행을 떠나는 주앙의 마음이 너무 외롭지만은 않기를, 티티카카 호수의 아름다운 우로스 섬의 모습처럼 맑게 커 나갈 수 있기를,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여행에서 때로는 빛나는 바다도 만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엄마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법 없을까?

글 오주영 동화 작가

『엄마 사용 설명서』

이토 미쿠 글 | 조윤주 그림 | 고향옥 옮김
우리교육 | 2015 | 131p

〈엄마 설명서〉를 만들겠다고?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이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엄마가 아이를 보고 혀를 찹춹 차듯, 아이도 엄마를 보고 한숨을 푹 내실 수밖에. 둘 다 생각하는 바는 똑같다.

‘아, 미쳐. 왜 내 마음을 모르지?’

이 책의 주인공인 4학년 데쓰야도 엄마가 불만이다. 호탕하지만 잔소리꾼에 짚순이인 엄마. 친구인 가즈의 상냥한 엄마와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즈의 엄마는 친절하기 짝이 없는 데다 늘 가즈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는 분이다.

엄마에 대한 불만이 목구멍까지 찬 데쓰야에게 아빠는 자랑스레 “아빠 엄마를 다루는 데는 도통했으니까” 하며 ‘칭찬하기’ 비법을 알려 준다. 예를 들어 맥주를 한 캔 더 마시고 싶을 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엄마를 기분 좋게 해 준다는 거다.

“컴퓨터나 비디오도 다루는 법이 잘못되면 움직이지 않지? 잘못 다루면 고장 나잖아. 그거랑 같은 거야. 알겠니?” ‘다루다’는 동사는 컴퓨터나 비디오 뒤에 붙일 때나 적절하다. 한데 ‘엄마를 다루다’니. 엄마를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위계적 관계로 낮추어 볼 때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상대를 만만히 보고-컴퓨터나 비디오 같은 편리한 가전제품과 같은 위치에 놓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칭찬을 하면 다룰 수 있다는 말에 담긴 묘한 우월감에 거부감이 들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은 도리어 엄마를 다룬다느니, 존중한다느니, 사용법을 만든다느니 야단을 떨며 과장해 거북살스러운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한다. 이를테면 데쓰야가 아빠의 말에 솔깃해 〈엄마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발견한 아빠가 혼내기는커녕 훔칠 부채질을 하는 식이다.

“어차피 만들 거면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이걸 사용 설명서라고 만든 거냐? 사용 설명서란 건 말이다. 누구나 그걸 읽으면 조작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칭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이리 야살스레 구니 독자의 입에서 웃음이 뺨 터질 수밖에.

설명서를 잘 만드는 법

가전제품도 사용방법을 알아야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된 사용

설명서만 있다면 말이다. 데쓰야는 〈엄마 사용 설명서〉를 완벽하게 만들어 엄마를 제대로 존중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꾀다.

데쓰야는 커피 메이커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각 부분의 명칭, 기능, 손질방법, 사용방법 등이 들어간 제대로 된 〈엄마 사용 설명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품는다. 그리고 나니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다. 엄마를 제대로 아는 거다. 커피 메이커 설명서를 전문가가 썼을 테니, 〈엄마 사용 설명서〉를 쓰려면 엄마 전문가가 되어야 하니까. 데쓰야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걸 깨닫는다. 어디 그뿐인가. 엄마를 관찰하며 엄마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된다. 등줄기를 쭉 펴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멋진 엄마, 엄격할 땐 엄격하고 자상할 땐 자상한 엄마, 실수로 겁먹은 데쓰야를 다정히 안아 주는 엄마, 칭찬을 받으면 금세 신바람 나는 엄마……. 엄마의 성격을 생각하며 곤란한 상황에서 하면 좋은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적다 보니 〈엄마 사용 설명서〉는 절로 두툼해진다. 〈엄마 사용 설명서〉를 활용해 엄마가 화내지 않을 말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니 잔소리 들을 일도 확 줄어든다. 하지만 그럴수록 데쓰야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쌓여 간다. 〈엄마 사용 설명서〉를 이용해 엄마를 로봇처럼, 물건처럼 저 편리한 대로 존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다. 데쓰야는 과연 엄마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

누구나 쓰고 있는 사용 설명서

열 길 물속보다 한 길 사람 속을 아는 게 더 어렵다. 특히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전혀 짐작할 수 없으니 행동이며 말이며 한결 조심하게 된다. 같은 말, 같은 행동에도 내가 느끼는 게 다르고, 상대가 느끼는 게 다르단 걸 경험으로 배웠다. 칭찬으로 한 말에 상대가 기분 나빠해 곤란했던 적도 있고, 내가 듣기에 기분 나빴던 말이 사실 상대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적도 있다. 누구도 내 생각 같지 않다. 그럴 때 심리 활용서가 나름의 답이 되어 주기도 한다. 심리 활용서는 사람에 대해 설명한다.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 주고, 행동 패턴에 대해 설명한다. 말하자면 ‘사람 사용 설명서’인 셈이다. 사람들은 왜 이런 책을 읽을까? 누군가를 물건처럼 사용하고 싶어서나 존중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에 책을 빼어 들게 되는 거다. 나를 알고 주변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다. 나와 그 사람이 너무 다르기에. 그렇지만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싶기에.

이제 이 책 속 아빠의 뻔뻔함이 이해가 된다. ‘다루기’니 ‘사용 설명서’니 하던 아빠의 말은 소통이라는 의미 위에 덧입혀진 겉껍질일 뿐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까운 이들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산다. 데쓰야의 아빠가 엄마 다루기를 잘하는 것도 엄마가 아빠 다루기를 잘하는 것도 다 각자 갖고 있는 사용 설명서 덕이다. 데쓰야는 이번에 엄마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지만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데쓰야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었다. 데쓰야를 사랑하는 만큼 더 잘 지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만들어 낸 사용 설명서. 유쾌한 데쓰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명랑하게 쏟아 내는 소통의 메시지가 기쁘다.

내 마음에도 몇 권의 사용 설명서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더 잘 지내기 위한 사용 설명서다. 나를 좋아하는 이들도 ‘주영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네들에게 고맙다. 서로 배려하며 맞춰 가는 우리 사이에는 아름다운 자장이 생긴다. 그 자장으로 세상이 살만해진다.



숨과 숨이 만드는 오늘의 반짝임

글 오주영 동화 작가

『여름이 반짝』

김수빈 글 | 김정은 그림
문학동네 | 2015 | 196p

방울방울 비눗방울에 담긴 숨

숨을 불면 비눗방울이 둥그렇게 부풀다.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얇디얇은 비눗방울이 둥실 떠오르고, 불어 넣은 숨이 다하는 찰나 팻 터져 버린다. 비눗방울은 오로지 짧은 순간만 머무를 뿐이다. 우리의 삶도 비눗방울과 같다. 숨을 쉬고, 숨이 다하는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90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12년이 된다. 누군가에게 6개월은 엄마가 올 때까지 죽은 듯 보내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8마리 새끼의 어미가 될 만큼 성숙하는 긴 시간이다. 생명이 주어진 것들은 모두 저마다의 시간을 살아간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생을, 언제 멈추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린아는 반짝이는 여름 풍경 속 유하의 발자취를 되짚어 가며 그 답을 찾아 나간다.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린아는 이곳이 싫다. 논과 밭, 산이 전부인 이곳에서 한 학기 동안 있어야 한다. 엄마가 외국에서 반년간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쫓기듯 온 곳이니 정이 들 리 없다. 이미 5개월을 보낸 린아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남은 한 달이 훌쩍 지나 있기를 바란다. 린아는 이곳 아이들이 싫다. 친근하게 린아를 챙기려는 신유하도, 그 옆을 지키는 이지호도,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김사월도 다 싫다. 매일매일 시간을 죽이며 엄마가 돌아올 날만 그릴 뿐이다.

그런데 유하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5학년이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전날, 유하가 린아에게 전화를 걸어 줄 것이 있다고 했던 그날 밤, 죽은 아빠를 떠올리며 사람은 다 죽는다고 린아가 유하에게 외쳤던 바로 그날에. 린아는 유하의 죽음이 자신 탓인 것 같다. 것처럼 획 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생애 두 번째 장례식이 그렇게 지나간다.

며칠 뒤 린아는 유하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비눗방울 통을 발견한다. 유하가 종종 하늘에 날리곤 하던 비눗방울이다. 린아는 유하의 비눗방울을 불어 본다. 그때 비눗방울 안에서 유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린아야.”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

비눗방울을 불면 유하를 만날 수 있다. 혼이 떠나는 49일 동안 7일에 한 번 7시 7분에 유하의 집에서 일어나는

비밀의 마법이다. 린아는 유하의 친구 사월이, 지호와 이 비밀을 나눈다. 비눗방울 속의 유하와 만난 셋은 목걸이를 찾아 달라는 유하의 부탁을 이루어 주기 위해 한데 뭉친다. 누구와도 친해질 마음 없이 날을 세우고 있던 린아는 어쩔 수 없이 사월이, 지호와 함께 행동하게 된다. 셋은 유하가 올랐던 서낭당 나무 위를 살피고, 지호네 돼지 축사를 뒤지고, 학교 운동장을 살피고, 사월이네 과수원에 가고, 유하네 집 뒷산을 오르며 유하의 흔적을 더듬어 간다. 그 과정에서 유하의 반짝이던 하루하루가 선연히 드러난다. 유하가 살려 낸 작은 돼지 유리가 18마리 새끼의 어미가 되었듯, 유하의 목걸이를 찾는 일은 린아에게 삶의 반짝임을 찾아내는 과정이 된다. 유하의 자취를 쫓아가는 린아의 시간은 점차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간다. 새파란 수국만큼 푸른 하늘, 얼굴을 쓰다듬는 초저녁의 따뜻한 바람, 푸른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초록색 여름 사과, 분홍빛 살이 물랑한 새끼 돼지의 심장 박동, 갯벌처럼 질퍽이는 돼지 똥 무더기,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웅덩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무수한 햇살들, 햇살에 뜨끈뜨끈 데워진 바위……. 작지만 소중한 색색의 순간이 린아의 가슴에 하나둘 심어진다. 목걸이를 찾아다니며 까칠한 말로 툭툭 대거리하고, 해 보지도 못한 일에 오기 부리며 나서고, 혼자 못할 일을 툭툭대며 서로 돕던 아이들도 어느새 달라져 있다. 린아의 숨이 두 아이의 숨과 만나, 숨과 숨이 같은 시간 속에 뒤섞이며 생겨난 변화다.

유하의 선물

유하의 목걸이를 찾아다니는 린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박혀 있다.

“너 정말 바보니? 너도 죽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이렇게 유하에게 외쳤던 날, 그날에 유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의 끝 무렵 린아의 마음을 알게 된 사월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유하는, 그날 교통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고일 뿐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 본문 중에서

그 말은 린아의 어두운 가슴에 또 하나의 작은 별이 되어 박힌다.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아픔을 털어 낼 수 있을 만큼 여문다. 린아와 아이들은 49일 동안 일곱 번의 만남을 통해 유하와 진짜 이별할 준비를 해 나간다.

숨이 다하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 가지뿐일 터다. 언제가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유하처럼 웃으며 떠날 수 있도록, 짧은 생도 그것대로 좋았노라 말할 수 있도록 말이다.

유하가 린아에게 말했던 ‘줄 것’이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숨과 숨이 만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하루 말이다. 린아는 이제 살아감의 소중함을 안다. 순간순간이 모여 우리 삶이 한밤의 별무리처럼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안다.

여름 사과처럼 푸르고 단단한 이야기를 읽었다. 한입 베어 물면 따뜻한 햇살과 미지근한 바람이, 어둔 밤 빛나는 별들과 푸른 나뭇잎들의 노래가 들려올 듯한 이야기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하늘에 군청색 물이 들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시간은 무슨 빛으로 반짝이고 있을까.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산다

글 오주영 동화 작가

『열네 번째 금붕어』

제니퍼 홀름 글 | 최지현 옮김

다산기획 | 2015 | 199p

어려운 성장, 어려운 늙음

어릴 적에 나는 머리 위에서 달랑이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싶었다. 발끝을 세우고 있는 힘껏 손을 뻗어 손가락의 마디 끝으로 손잡이를 잡으려 했다. 어떻게 해도 닿을 것 같지 않던 버스 손잡이를 처음 잡았을 때의 뿌듯함. 손잡이를 잡는 일은 나만의 도전이었고, 그만큼이나 자랐음을 확인하는 벅찬 의식이었다. 그렇게 어른 성장하고 싶어 안달복달했던 나는, 이제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보니 노화는 성장하는 것 만큼이나 불안하고 어려운 변화다.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서툴고 힘겹게 인생의 시기를 지나왔다. 산다는 건 연습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삶이니, 저마다 평생토록 서툴게 헤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 생명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법칙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열두 살 엘리의 할아버지 멜빈 사카스키다.

어느 날 엘리의 엄마가 열세 살쯤 된 희한한 남자애를 집으로 데려온다. 고리타분해 보이는 옷을 입은 청소년기의 남자애가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와 엄마에게 잔소리를 쏟아 내고, 엘리는 그 모습을 보며 기시감에 사로잡힌다. 마침내 내뱉는 한마디.

할아버지?

그에 대한 답은 이렇다.

그럼 넌 누구라고 생각한 거니? 뭐 이빨 요정이라도?

— 본문 중에서

엘리의 할아버지는 인류가 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약을 수십 년 동안 개발해 온 과학자다. 결국 신약을 개발해 자신에게 실험하여 열세 살 소년이 되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문제가 생겼다. 연구소의 누구도 할아버지가 소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주지 않은 것. 할아버지는 신약의 원료인 해파리 티멜비너스를 채기지도 못한 채 연구소에서 쫓겨나 엘리의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노화를 되돌리는 연구에 빠진 할아버지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엘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노화란 할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며, 엘리의 표현에 의하면 ‘무슨 끔찍한 질병’ 같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선언하듯 말한다.

늙느니 죽는 게 나을 거야.

— 본문 중에서

노화란 과연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일일까. 소아마비처럼 극복해야 할 끔찍한 질병과 같은 것일까.

우리는 실패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

열두 살 엘리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절친이었던 브리애나와 멀어진 엘리는 저 혼자 뒤쳐진 느낌에 두렵다. 그런 엘리 앞에 나타난 할아버지 그리고 우연찮게 한 팀이 된 새 친구 라스. 세 사람은 할아버지의 연구 재료를 연구소에서 빼내 오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한다. 할아버지는 실패를 거듭해 의기소침한 엘리에게 말한다.

과학자들은 늘 실패하지. 넌 도전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대신 계속해야 해. 마리 퀴리처럼.

— 본문 중에서

엘리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관계를 짜 나가야 하는 어려움 앞에 서 있다. 익숙지 않은 새로운 시도나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실패할 확률은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다. 실패는 사실 잘못된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한다. 정말 잘못된 것은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엘리는 할아버지와 지내며 과학적 호기심에 눈을 뜨고,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여 나간다. 친구 브리애나와의 멀어짐도, 다른 반 모모와의 새로운 만남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라스에게 느끼는 두근거림도 쉽지 않은 엘리의 열두 살 인생의 한 부분이다. 엘리는 핼러윈 파티에서 그토록 두려워하던 춤추기를 자연스럽게 해내고, 할아버지의 해파리를 연구소에서 빼 오는 데 성공한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며 엘리는 실패의 가치 있음에 대해, 경험의 소중함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과학의 윤리에 대해 생각을 넓혀 나간다.

노화가 멈추는 것은 기적일까, 저주일까. 과학의 발전이 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든 핵폭탄이 세상을 더 무서운 전쟁의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았던가.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화를 막는 신약이 생긴다면 세상은 좋아질까. 어쩌면, 성숙의 기회를 그리고 경험의 기회를, 생명의 순환을 신약이 막아 버리는 건 아닐까. 엘리는 할아버지에게 신약의 위험성을 알리며 간절히 묻는다.

자란다는 게,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요?

— 본문 중에서

엘리의 성장도, 할아버지의 노화도 인생의 자연스런 한 과정이다. 그러나 더는 젊지 않음을 느끼는 것은 ‘유레카’ 같은 벅차고 근사한 깨달음이 아니다. 오히려 쓴 약을 먹은 듯한 씁쓸함이 마음속에서 맴돈다. 고맙게도 이 씁쓸함이야말로 나에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동력이 된다. 씁쓸한 까닭을 찾아내 선택을 돌아볼 수 있고, 후회할 수 있고, 하루를 더 소중히 살려고 노력할 수 있다. 노화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인생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당연한 진리가 새삼스레 다가온다.

열네 번째 금붕어

책의 첫머리에서 엘리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열두 살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키워 온 금붕어 골디가 죽어 있는 걸 목격했다. 친구들의 금붕어가 죽을 때에도 홀로 건강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했던 금붕어 골디는 사실 열세 번째 금붕어였다. 엄마가 엘리 몰래 죽은 금붕어를 새 금붕어로 바꿔 놓았던 거다. 열세 마리 금붕어의 죽음을 알게 된 엘리는 열세 살로 돌아온 할아버지를 만나며 서서히 생명의 한살이를, 그 끝의 슬픔을, 새로운 시작을 이해해 나간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명의 순환을 떠올리도록, 노화를 멈추는 것이 그 순환을 정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도록 돕는다. 엘리는 할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는 엘리를 통해 인생을 배운다. 단 한 번이기에, 유한하기에 소중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도록 이끄는 책이다.

엘리에게 할아버지가 인생을 가르쳐 준 열네 번째 금붕어였듯, 나에게 엄마는 삶의 순리를 가르쳐 주는 열네 번째 금붕어다.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 순환의 여정에 있는 오늘의 귀함을 『열네 번째 금붕어』를 통해 다시금 깨닫는다.



?로 시작해서 !로 끝나는 동화

글 류근원 동화 작가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

김병규 글 | 조신애 그림

좋은꿈 | 2015 | 155p

‘욱’하는 성질을 가라앉혀 주는 동화책

상상 밖의 흉포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원한 관계는커녕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데도 ‘묻지 마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냥용 엽총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까지 발생해 세상을 경악케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묻지 마 범죄’는 ‘충동조절장애’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욱’하는 성질을 가라앉혀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묘약이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사람답게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독서의 영향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욱’하는 성질을 가라앉혀 주는 책, 김병규 작가의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가 출간되었다.

재미있게 읽히고 다 읽은 다음엔 생각하는 여운으로 오랫동안 책을 덮질 못하게 만든다.

작가에 대한 단편적 이해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를 지은 김병규 동화작가는 군더더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유명 동화작가이다. 그에겐 남녀노소를 불문, 많은 고정 독자가 있을 정도이다. 그의 동화는 초·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명작동화로 방영된 적이 있을 정도이다. 현재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으로 있으며 동국대학교와 동화학교에서 동화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문학상, 소천아동문학상, 박홍근아동문학상, 이주홍문학상 등을 받았다.

읽고 난 뒤,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값진 철학 동화

철학을 떠올리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한마디로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홀대를 받아야 하는 학문일까? 절대 아니다. 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주춧돌이 되는 주요한 학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사람에게서 생각이 떠난다는 것, 그것은 동물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닐까?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 철학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른다. 어린 시절부터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학원으로 내몰리는 바쁜 아이들에게 철학을……?’ 시시콜콜

한 이야기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철학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 동화책을 읽으면 철학은 절대 어렵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작가는 동화를 통해 깨뜨리고 있다. 철학이야말로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효율적 도구로 생각하며 쉽게 접근하게 한다. 그래서 철학 동화 주제들도 매우 현실적이고 다양하다. 자아에 관한 문제, 가족 문제, 학교 문제, 친구 문제, 공부 문제, 다문화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쉽고 재미있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동화로 엮었다.

스펀지처럼 주면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철학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가르치면 된다. 그래야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를 이해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를 펼치면 요모조모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철학적 요소들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음을 느낀다. 재미있게 읽힌다. 그렇다고 재미만 있는 게 아니다. 읽고 난 뒤에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드는 묘한 마력을 발산한다.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다.

모두 4개 마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마당엔 4~5개 동화가 수록되어 있다. 각 동화에는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제가 붙어 있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제들이다. 표제 아래엔 부제가 달려 있다. 흔히 이런 동화는 많은 작가가 표제를 부제보다 더 우위에 두고 짓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표제 느낌이 딱딱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표제와 부제가 반대로 바뀌었다. 작가의 고도로 계산된 방법이란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첫째 마당은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 가족과 선악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둘째 마당은 일과 공부, 습관과 생각·행동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셋째 마당은 자유와 전쟁, 남녀평등과 다문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넷째 마당은 꿈과 이해·배려·관용, 아름다움, 짝꿍과 환경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동화가 끝날 때마다 '생각의 문'과 '생각의 날개' 코너가 있어 동화의 여운을 더 강조하고 철학의 날개를 훨훨 펼치게 한다. 학교에서 혹은 도서관에서 토론용 도서로도 유용하게 쓰일 철학 동화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다. 물음표를 달고 다닌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작은 풀꽃들에게도 무릎을 구부리고 눈을 맞추고 물음표를 쏟아 내는 것이 아이들이다. 그런 다양한 물음표를 작가는 느낌표로 마무리하게 만든다. 재미있게 읽힌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 바로 책을 덮을 수 없게 만드는 묘한 마력이 있다. 그런 여운을 주는 글이 좋은 글이다. 이 작가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그의 동화 대부분이 그런 여운을 준다.

철학은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고급 영양제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동조절이 안 되는 정신질환자가 무려 8만 4,400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이런 정신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동조절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철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회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철학은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최고급 영양제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무슨 철학이야?"라는 어른이 있다면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요!"라고 똑똑히 대답해 주면 좋겠다. 작가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함축적 메시지이다.

?로 시작해서 !로 끝나는 동화, 김병규의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이다.



몇 해 전 주말농장에서 작은 텃밭을 가꿔 본 적이 있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탓에 흙을 다루는 일은 낯설고 서툴기만 했지만, 직접 뿌린 씨앗에서 떡잎이 나와 조금씩 이파리가 자라나 열매까지 맺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고 기특하기만 했다. 작은 땅에 욕심을 내어 무, 배추, 상추부터 감자, 고구마, 가지 등 온갖 채소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슬픈 농부의 보살핌 아래 죽지 않고 커 가는 채소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아마도 서투른 손길보다는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빛 덕분에 스스로 자라난 것 같기는 하다. 그때 나는 투박한 감자에 소박하고 하얗게 꽃이 피는 것을, 탐스런 가지에 예쁜 보랏빛 꽃이 피어나는 것을 처음 보았다. 맛있게 먹을 열매에만 집중하느라 채소에도 이렇게 곱고 예쁜 꽃이 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치고 있었던 것일까.

언덕 위 오도카니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는 흙에서 솟아나는 연둣빛 떡잎만 봐도 무슨 채소인지 척척 알아낼 정도로 모르는 게 없다. 짙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감나무 아래 지푸라기 머리머를 한 채 홀로 당당히 서 있는 작은 배추 한 포기. 표지에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다. 작은 배추 한 포기가 어떻게 자라나는 이야기일까. 캔버스에 투박하게 칠해진 유채 물감의 깊은 색감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감나무 옆으로 밭이랑을 따라 수많은 배추 떡잎이 나란히 돋아나 있다. 줄지어 자라는 떡잎들을 조금 비껴난 감나무 바로 밑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떡잎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배추밭에서 떨어져 나온 씨앗이 감나무 바로 아래에서 싹을 틔운 것이다. 감나무는 꼬마 배추 위에서 든든하게 가지를 뻗으며 지켜 봐 주었고, 꼬마 배추는 감나무에게 이것저것 배우면서 조금씩 자라난다. 투박하고 단순한 붓질로 표현한 든든한 어른 감나무와, 이제 막 이파리가 커 나가는 작은 초록빛 꼬마 배추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감나무는 하늘빛 아래 자유로이 가지를 뻗어 나가는 어른의 모습이고, 꼬마 배추는 이제 막 피어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다.

혼자 떨어져 나와 외로운 꼬마 배추도 속잎이 점점 자라나며 어느덧 동그랗게 알이 찬다. 물론 밭에서 자란 배추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작고 작기만 하다. 화면 가득 초록의 배추들이 엉글어 가는 모습이 참으로 싱그럽다. 작고 어린 떡잎들이 어느새 씩씩하게 자라나 텃밭이 초록으로 가득할 때의 즐거움이 떠올랐다. 찬 바람이 불어올 무렵, 배추밭의 튼실한 배추들은 채소 가게로 실려 간다. 꼬마 배추도 꼬마에서 '작은 배추'로 부지런히 자라났다. 그러나 채소 가게 트럭 아저씨는 작은 배추는 데려가 주지 않는다. '작은 배추'는 여전히 작기 때문이다. 좀 더 좋

은 땅에서 농부의 보살핌을 받는 배추들을 따라가기는 여간해서 힘들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어서어서 크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채소 가게 가자!

— 본문 중에서

작은 배추는 얼른 크고 싶어서 체조를 시작한다. 그림은 초록의 배추가 더 무럭무럭 자라 활짝 피는 장면을 보여 준다. 크고 싶어 체조하는 배추라니, 글과 함께 어우러진 그림은 신기하게도 배추가 한껏 손을 뻗치고 힘차게 체조하는 것과 같은 생동감이 느껴진다.

땅이 단단해질 만큼 추워지니, 밭에 남은 배추들은 추위에 얼지 않도록 지푸라기 머리띠를 묶는다. 작은 배추도 작은 머리띠를 얻었다. 파사로운 가을 햇볕을 비추던 하늘은 점점 차갑게 얼어붙는다. 추위에도 곳곳이 지푸라기 머리띠를 하고 견디는 작은 배추가 대견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작은 배추를 든든하게 지켜 주는 친구 같은 어른 ‘감나무 아저씨’가 있다. 날이 더 추워지자 채소 가게 아저씨가 다시 와 밭에 남아 있는 배추들을 모두 거두어 간다. 채소 가게 아저씨는 아직도 작은 ‘작은 배추’를 끝내 데려가지 않고 떠나 버린다. 떠나가는 트럭 뒤로 넓은 언덕 밭에 홀로 남은 배추가 안쓰럽다. 작은 몸으로 열심히 추위와 싸우며 견뎌 왔는데도 채소 가게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다.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다시 깨달았을까. 다행인 것은 작은 배추는 혼자가 아니다. 초겨울이지만 아직 빨간 감을 듬성듬성 달고 있는 감나무 아저씨가 곁에 있다. 채소 가게로 가는 트럭을 타지 못해 시무룩한 작은 배추에게 감나무는 봄을 이야기해 준다. 작은 배추가 아직 한 번도 맛지 못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채소 가게에 가는 일도 좋겠지만 겨울을 견디어 내고 봄이 되어 노란 꽃을 피우며 나비를 모으는 일 또한 신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고 각자가 삶의 주인이 되어 즐겁게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감나무 아저씨는 긴 겨울잠을 자는 배추 곁을 말없이 지켜 준다. 까치밥만 몇 개 남긴 감나무 한 그루와 겨울잠을 자는 작은 배추 한 포기가 나란히 흰 눈을 펄펄 맞는 그림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무언가에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말없이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 주는 어른이 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아이가 스스로 세상의 시련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 과정이 몸과 마음을 커 나가게 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 봐 주는 역할이 어른에게는 꼭 필요하다. 감나무에 달린 몇 개 안 되는 감들도 작은 배추와 함께 겨울을 나는 친구이다. 추운 겨울 먹이가 부족한 새들이 찾아와 달게 먹을 수 있는 감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삶인가.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드디어 봄날을 맞은 작은 배추는 감나무의 말처럼 노랑고 예쁜 꽃으로 피어났다. 봄 햇살이 묻어나는 밝은 하늘 색감에 어우러진 노란 배추꽃잎과 팔랑거리는 흰나비를 물감으로 툭툭 찍어 그린 그림을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어느새 감나무는 배경에 묻혀 희미해지고, 활짝 핀 배추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된다. “안녕, 안녕하세요?” 하고 배추가 인사한다. 배추의 인사말에서 웬지 성숙함이 느껴진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 내고 눈부시게 노란 꽃을 피워 낸 배추에 게 수고했다고, 너는 정말 아름다운 배추라고 말해 주고 싶다.



소년과 함께 책의 바다를 헤엄치다

글 이승원 그림책 작가

『작은 파도』

이자벨 미노스 마르틴스 글 | 아라 쿠노 그림 | 최혜기 옮김
산하 | 2014 | 33p

조용한 바닷가에서 작은 아이 혼자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난을 치고 있다. 작디작은 파도가 모래밭으로 굴러 왔다 거품이 되어 부서진다. 아이는 넓은 바닷물에 작은 몸을 맡긴 채 헤엄을 치기도 하고, 파닥파닥 물장구를 치며 작은 파도를 일으켜 보기도 하고, 숨을 참고 깊디깊은 물속까지 내려가 보기도 한다. 넓고 깊은 바다에는 은빛 물고기도 있고 별처럼 생긴 불가사리도 있다. 아이가 만나는 바다는 혼자라도 신나고 재미난 것이 가득하다. 물론 갑자기 무시무시한 상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캄캄하고 깊은 물속으로 혼자 내려가는 일이 가끔은 두렵기도 할 것이다. 작은 소년이 홀로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는 이야기를 보여 주고 있지만, 소년이 헤엄치는 바다는 조금 특별하다. 바로 ‘책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작은 소년이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이게 바다야.’

소년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작은 소년은 이 책이 바다라고 믿고 있어요.

—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소년이 노는 바다가 ‘책’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 준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여 주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이 공간은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책’이라는 것을 텍스트에서 미리 보여 주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책을 읽는 우리는 작은 소년을 따라서 이 책이 바다라고 믿으며, 함께 물장구도 치고 바다를 헤엄친다. 소년이 일으키는 물장구에 바닷물이 책 밖으로 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텍스트는 우리에게 종종 이 ‘바다’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며 두 세계를 동시에 읽어 나가도록 만들어 준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난다.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읽어 내려가며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곤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세계는 즐겁고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고 두렵기도 하며 독자의 마음에

다양한 울림을 만든다. 책 속의 세계에 현실의 나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과거나 미래의 모습을 찾기도 한다.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현실의 세계에서 좀 더 곳곳이 걸어갈 방법을 찾기도 한다. 우리가 책을 읽으며 만나는 ‘작은 파도’는 살아가면서 만날 더 큰 파도를 조금은 더 잘 넘길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준다.

글을 쓴 이자벨 미노스 마르틴스가 문장으로 바다가 ‘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그림을 그린 야라 코누는 줄 쳐진 노트 같은 배경으로 바다를 표현하고 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푸른 바탕에 가는 줄이 쳐진 노트는 바다가 되기도 하고 책이 되기도 한다. 반듯하고 촘촘히 쳐진 노트의 줄을 따라 헤엄치는 작은 소년은 우리의 눈이 종이 위의 활자를 따라 책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과감한 구도와 절제된 경쾌함이 묻어나는 작가의 그림체는 조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준다.

사실 그림만으로도 눈을 사로잡는 예쁜 책이다. 작가는 마치 책의 제본이 잘못된 것처럼 화면에서 개체들이 아슬아슬하게 잘려 나가거나 화면 모서리의 끝부분에 작게 넣는 구도를 보여 주며 바다와 책이라는 공간을 확장해 나간다. 소년이 치는 물장구는 수많은 물방울을 일으켜 작은 파도를 만든다. 작은 물방울들은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책 속의 글자이기도 하다. 소년은 하늘거리는 바다풀과 반짝이는 물고기를 보려고 물속 깊이 내려가 보지만 그저 물밖에 안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차 물 위로 올라와 뚱뚱 떠 있기도 한다. 넓은 바다에서 즐겁게 헤엄치던 작은 소년이 갑자기 무언지 모를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이상한 책은,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손을 뻗친다. 주인공인 작은 소년과 독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년이 치는 물장구에서 짜디짠 바다 내음을 맡던 우리에게 주인공 소년이 직접 다가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 오라고 한다. 어느새 우리는 소년과 함께 바닷물 속으로 풍덩 들어간다. 이제는 책 속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든 독자가 된 것이다. 독자와 직접 만난 작은 소년 역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롭게 신이 난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이다. 화면 가득 깊고 넓어 보이기만 했던 바다가 더는 무섭지 않다. 물 위에는 평온한 공기와 맑은 하늘이 있으니 숨이 차오르면 언제라도 물 위로 떠올라 쉬어 가면 된다. 잔잔한 바다는 다시 빼곡하게 가는 줄이 쳐진 책의 마지막 장이 된다. 즐겁게 바다를 여행하던 작은 소년 둘이 조용히 마지막 책장을 넘긴다.

면지까지 이어지는 이 책의 진짜 마지막 장은 ‘끝’이라는 글자를 만들며 유유히 책 속의 세상을 헤엄쳐 빠져나가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며 끝난다. 그림책의 표지와 본문을 이어 주는 ‘면지’가 이 책에서는 서사를 확장해 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책이라는 바다에서 소년은 두려움을 떨쳐 내고 다시 즐겁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방법을 깨달았나 보다. 책을 덮은 소년은 이제 책 밖 세상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나갈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거대한 쓰레기

글 이승원 그림책 작가

『플라스틱 섬』

이명애 글

상출판사 | 2014 | 33p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다 어디로 갈까? 북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거대한 섬이 하나 있다. 바다로 흘러든 세계 각국의 쓰레기들이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이곳에 모여, 가라앉지도 못한 채 엄청난 크기의 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플라스틱 섬’이라고 부른다.

1997년 태평양을 횡단하던 찰스 무어라는 요트 선수는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다 멀리서 보이는 흐릿한 섬 하나를 발견한다. 지도를 펼쳐 보아도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태평양의 가장 외딴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섬은 뚱뚱 떠 있는 플라스틱 더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는 일주일 동안 아열대의 바다를 건너며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들, 포장재들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조각 세상을 헤쳐 나가야만 했다. 이 플라스틱 섬의 크기는 대한민국 영토의 14배에 이를 만큼 거대하다고 한다. 또한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수거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플라스틱 섬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애 작가가 쓰고 그린 『플라스틱 섬』은 바로 이 거대한 바다의 쓰레기 섬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지내는 주인공 새의 관점으로 풀어낸 그림책이다. 한지의 질감을 살려 코팅하지 않고 마감한 종이의 표지가 먹빛 그림과 잘 어우러져 책을 손에 잡는 첫 느낌이 좋았다. 그것이 바위인지 플라스틱 쓰레기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새 한 마리가 부리에 무언가를 뒤집어쓴 채로 고즈넉이 앉아 있는 그림이 이 책의 표지다. 별다른 설명 없이 ‘플라스틱 섬’이라는 제목만 무뚝뚝하게 박혀 있는 이 책은 이 쓰레기 더미 섬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알 수 없을 듯하다. 이어 나오는 면지에는 연한 쪽빛의 바다 위로 펼쳐진 진한 먹 향이 느껴지는 섬의 풍경이 보인다. 단순하고 명료한 색의 대비가 아름답다.

글은 담담한 어조로 주인공 새가 자신이 사는 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며 시작하는데, 그림은 주인공 새의 모습과 새가 있는 플라스틱 섬의 모습을 바로 보여 주지 않는다. 첫 장면은 빼곡하게 들어찬 건물과 집들이 있는 여느 도시의 모습을 먹 드로잉으로 담아 놓았다. 아직 화자가 보이지 않은 채, 첫 장면에 보이는 우리가 사는 도시 모습은 마치 또 하나의 거대한 섬의 형상으로 보인다. 그렇게 작가는 빌딩과 자동차들, 도시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이 지나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보여 주며 그곳에서 나오는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천천히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 섬에 몰려와 쓰레기를 치워 보려고도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다시 채워지는 플라스틱 섬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계절 따라 바다를 지나가는 새들, 물고기, 거북이 등 바다 동물들은 알록달록하고 기괴한 섬의 모습에 놀라지만, 곧 이 이상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 버리고 만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물고기들이 먹고, 새들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바다 생물들은 먹이를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섬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고기들은 점점 죽어 가고 그에 따라 새들도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죽은 새들의 배를 갈라 보면 온갖 플라스틱 조각과 깡통, 페트병이 가득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 가는 새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생태계는 점점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쓰레기를 줄이지 못한 채 치워 보려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노력들을 보여 준 다음 장면에는 주인공 새가 커다랗게 등장한다.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는 천진한 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온다. 마지막 장면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플라스틱 섬의 전경에 새들이 모여드는 그림이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림과 그저 담담한 어조로 플라스틱 섬을 감정 없이 설명한 글이 어우러진 이 책은, 애써 방법을 제시하거나 교훈을 강요하는 방식의 글보다 오히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야기가 끝난 후 나오는 면지는 앞 면지와 대비를 이루는 방식으로, 앞에서 보여 줬던 먹빛의 섬들이 모두 플라스틱 섬으로 변해 있다.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모두 쓰레기 더미로 뒤덮일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일까.

아이러니한 것은 이 끔찍한 대재앙의 플라스틱 섬을 보여 주는 그림의 결이 참으로 섬세하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작가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플라스틱 섬의 이야기를 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쓰고 있는 플라스틱 덕분에 이런 쓰레기 섬이 오대양 곳곳에 산재해 있다니 참 무서운 현실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상에서 재활용을 철저히 실천하고 낭비를 줄이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나아가 플라스틱 생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가 더는 회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썩지 않고 작은 조각이 되어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물고기들, 새들, 각종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온갖 유기 오염물질을 흡수해 버린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 생물들은 결국은 우리가 잡아서 식탁에 올리는 양식들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과연 자연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망가뜨려도 되는 것일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읽으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이다. 하지만 다음 세상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과도 꼭 함께 보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 책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플라스틱 섬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과 어우러진 담담한 말투로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는 듯한 인상적인 책이다.





소통보다 재밌는 불통

글 이현승 시인

『글자 동물원』

이안 글 | 최미란 그림

문학동네 | 2015 | 108p

아이들과 함께 지내노라면 얻게 되는 ‘개안’의 순간이 있다. 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전북 전주쯤을 지나면서 터널 구간을 지나는데, 둘째 딸이 “콧구멍이다”라고 외쳤다. 과연 터널 입구를 향해 내달리면서 보니 산의 모양이 세모꼴로 코의 모양 같고, 좌우 대칭으로 잘 뚫린 두 개의 굴이 콧구멍 같았다. 브루노 무나리는 아이들의 이런 표현이 사실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아이들 나름의 유치한 정보의 조합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한다(『판타지아』). 그러나, 나는 브루노 무나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른들과는 반대로 경험의 직접성 위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보고, 냄새 맡고, 만져 본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세계야말로 유기적인 연관을 잃지 않은 세계이다. 동시가 꼭 아이들이 읽는 것은 아닐지라도, 거기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이들의 경험적 직접성이 잘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얼마 전에 이안 시인이 펴낸 동시집 『글자 동물원』을 살펴본다.

절대 이 책릉 거꾸로 꽃지 마시오

문이 곰릉 열고 탈출할 수 있음

— 「른자 동물원」

프로이트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인간 정신의 기원을 엿보았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부수입 중 하나는 인간의 학습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7~8세 정도 자란 아이들과 달리 3~4세 아이들은 글자를 단지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글자는 제 이름자였는데, 아이는 배운 글자를 아주 자주 좌우, 위아래가 뒤집힌 모양으로 ‘그리곤 했다’. 이 작품은 이 시집의 표제작이 된 작품이기도 한데, 좀 더 넓게 읽히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시집의 제목은 ‘글자 동물원’으로 하고, 시의 제목은 ‘른자 동물원’으로 삼았다. 글자를 뒤집어서 보면 ‘곰’은 ‘문’이 되고 ‘얼’이나 ‘옴’은 ‘뽕’이나 ‘뽕’이 된다. 문이 곰이 되는 것도 재밌지만, 곰릉, 옴뽕, 하고 생소한 음성으로 변모하는 조사나 접사도 재미있다. 갑자기 글자가 활력을 얻게 된 것 같다. 동물들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일종의 에스페란토어 같다. 만국공용의 숫자 같달까. 글자나 기호체계에 대한 관찰은 다음의 시에도 엿보인다.

뭐라고?

?

귀가 잘 안 들릴 때 사람들은

귀 가까이 손을 갖다 대고

귀 하나를 더 만들지

이렇게

??

— 「귀」

실제로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손으로 갈때기를 만들어 귀에 붙여 주면 소리가 더 잘 들리는데, 그걸 물음표 두 개를 이어 붙인 “??”로 써 놓으니 이렇게 요긴할 수가 없다. 물음표 두 개가 맞붙어 있는 형상은 심하게 답답해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양 같고, 어서 말하라고 채근하는 표정 같고, 저편에서 말하는 소리와 포개질까 봐 한사코 말을 하지 않고 듣는 일에만 집중하는 이편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듯도 하다. 터널을 콧구멍으로 보는 우리 집 작은 아이처럼 「귀」도 아이들의 직접성에 호소할 수 있는 친근함을 지녔다. 아이들이란 매사 이렇게 골똘하게 물상에 집중하는 관찰자인 법이다.

간지럼나무라고 들어봤어?

배롱나무라거나 목백일홍

나무백일홍이라고도 하는 나문데,

자세히 보면

나무줄기며 가지가 이렇게 배배 돌아가 있어.

간지러, 간지러, 간지러, 몸을 꼬며

킁킁킁 웃다가 그렇게 된 거지.

여기 내 뒤통수

톡 부어오른 것 만져지지?

간지럼을 태우다

나무한테 꿀밤 맞아 그래.

— 「간지럼나무」 중에서

배롱나무의 몸피가 비틀려 있는 모양을 보고 붙인 이름이 ‘간지럼나무’인가 보다. 그 참 시원스럽다.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목백일홍보다 배롱나무보다, 아니 이보다 더 정확한 작명이 있을까 싶다. 시인은 그러한 이름에 간지

럼과 웃음의 상상력을 더하고는, 꼭 그 웃음의 끝에서 만들어지곤 하는 저 '꿀밤'의 기억을 잘 포개어 놓았다. “간 지러, 간지러, 간지러”와 같은 리드미컬한 반복어들은 배배 틀린 배롱나무가 살아서 내뿜은 말처럼 친근하기만 하다. 시인은 이 시집의 다른 작품인 「펑」에서도 “푸두두두두두둑”이나 “뀌뀌뀌뀌뀌뀌거경” 하는 소리를 아주 잘 잡아내었는데, 이는 소리에 대한 이안 시인의 발달된 감식안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날아오르기 전에 재바르게 내달리는 펑의 모습을 저 의성어 안에 가둔 것처럼 느껴진다. 시골에서 보면 펑은 정말이지 달리기를 잘한다. 그것도 참 감질나게, 쫓아가는 사람 약 오르라고, 펑은 잘 날아오르지도 않고 신나게 달리다가 쫓는 사람에게 딱 붙들릴 만하면 푸드덕 날아오른다. 닭 쫓던 개가 아니라 펑 쫓던 사람이다.

아빠, 뽀꾸기가 울어요.

—뽀꾸기 시계 소리일 거야.

뽀꾸기가 운다니까요.

—아냐, 뽀꾸기 시계 소리래두.

그럼, 뽀꾸기 시계가 뽀꼭뽀꼭 날아다니며 운다고 해 들게요.

—거봐, 뽀꾸기 시계 소리지.

—「유월」

「유월」에는 어른들과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의 답답한 느낌이 재치 있게 그려져 있다. 아이들의 놀랄 만한 ‘지리상의 발견’과 지치지 않는 ‘박물학’에 물린 어른들은 대략 성의도 없는 대답으로 “응”, “정말 그러네”를 연발한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이게 고착되면 인용한 시와 같은 딱한 처지가 된다. 그런데, 아이에게 내내 심드렁한 말만 반복하는 아빠의 말도 어딘지 모르게 ‘철 안 난’ 아이 같다. “그럼, 뽀꾸기 시계가 뽀꼭뽀꼭 날아다니며 운다고 해 들게요”와 “거봐, 뽀꾸기 시계 소리지”라니. 이 고집쟁이들의 대화는 소통보다 재밌는 불통이다.



시 맛있게 읽는 법

글 이현승 시인

『라면 맛있게 먹는 법』

권오삼 글 | 윤지희 그림

문학동네 | 2015 | 107p

술을 읽히고 입에 감기는 즐거움이 시의 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의미에 매이지 않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미끄러져 갈 수 있는 ‘흥미본위’는 시의 음악성을 통해서 잘 추구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나 아이와 함께 엄마가 읽는 시라면 이러한 음악성이나 즉흥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말 자체의 즐거움을 통해서 사물 자체의 고유성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단연 최고의 동시(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읽은 권오삼의 동시집은 그러한 즉흥성과 자연스러움을 두루 갖추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동시집을 “언젠가는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이젠 어른이 된 예전의 아이들에게” 바쳤다. 누구나 한번은 아이였고,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건 우리 안에는 영원히 아이가 있다. 그리고 아이는 사물과 세계를 어른들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삶에서 놀이 비중이 노동 비중보다 높은 존재이다.

사물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편견 없이 바라본다는 것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편견을 지우는 것과 같다. 또한 편견을 지우는 것은 다르게 보는 것을 말한다. 선불리 맞기보다는 틀리지 않는 방식으로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작은 특징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작은 특징 하나를 보는 것으로부터 사물의 전모를 보는 일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훈련의 결과이다. 이걸 근육운동으로 말하면 지구력에 소용되는 큰 근육이 아니라, 순발력에 소용되는 잔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작은 운동의 효과를 맛보도록 하자.

오늘은

머리 위에

해가

두 개나

떴다

—「엄청 더운 날」

바로 이런 식. 머리 위에는 해가 하나뿐이다. 그러나 해가 두 개라고 말함으로써 평소보다 두 배는 덥다는 느낌

을 전달할 수 있다. ‘엄청 더운 날’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나, 진실과 거리가 먼 상상이 아니라 단지 느낌에 충실할 수 있는 표현의 힘이다. 이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작품을 보면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만으로 흥겨워지는 법을 이 시인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란 양은 냄비에다가
파르르 라면 끓인 뒤
냄비 뚜껑 안쪽에다
건더기를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집어
후후 입김 불며
후루룩후루룩
먹으면 된다.
소리 내어
먹을수록
더 맛있
다.

—「라면 맛있게 먹는 법」

우선 이 작품은 왜 배열이 저렇게 되었는가 하면, 저 모양이 딱 라면 한 젓가락을 들고 입으로 후후 하고 불고 있을 때 젓가락에 매달린 면발의 모양과 닮았다. 우리는 마음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1행과 2행의 오른쪽으로 두 개의 젓가락을 그려 붙이면 완성된다. 면발처럼 늘어선 시행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특유의 수프 냄새가 나고, 입에 침이 고일 것만 같다. 이 시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맛있게 먹는 법’에 충실하다. 먹는 일은 만들고 끓이는 데 드는 공과 노력이 필요 없다. 먹는 데는 어느 사람의 방법과 별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조언하고 싶어질 지경이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음식의 세계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불량성과 중독성을 생각한다면 라면을 먹는 것 외에 달리 뭔가 중요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하다. 게다가 “소리 내어/ 먹을수록/ 더 맛있/다”라니, 소리 내지 말고 먹으라는 일반적인 식사 예절을 깨뜨리는 부분에서 불량성은 최고조에 달한다. 하지만 그만큼 요망하고 분방하고 즐겁다. 라면이 어떻게 안 맛있을 수가 있어?

사물과 세계에 대한 즉물적인 시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는 그다지 어려워야 할 필요가 없다. 분방함과 자유로움이 밀천이 되고, 깊이와 의미는 부산물처럼 따라붙는다.

낮에 자면 낮잠
밤에 자면 밤잠
늦도록 자면 늦잠
깊이 자면 단잠

꿀처럼 달게 자면 꿀잠
몰래 자면 도둑잠...(중략)...

이 가운데서
제일 맛 좋은 잠은
공부시간에 선생님 몰래
깜빡깜빡 조는 도둑잠

—「잠·잠·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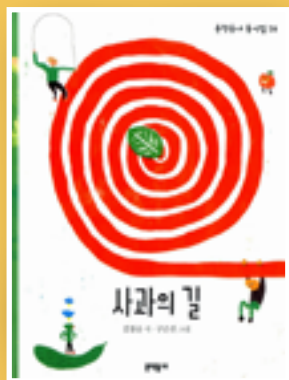
잠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잠이 올 듯하다. 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감기는 듯하다. 단순히 나열했다고 생각하면 열거지만, 열거된 저 잠들에는 알토란처럼 붙어서 착실하게 자기 세계를 만드는 우리말의 기찬 함성법이 자유자재하다. 저 잠 앞에 어떤 맛을 붙이지 못할 것이며, 그 맛 앞에 어떤 이름의 잠이 탄생하지 못할 것인가. 그야말로 언어능력이 저절로 극대화한다. 또 이진 어떤가?

감기약, 위장약, 두통약은
먹고
나으라는 약
취약, 바퀴벌레약, 쯔약은
취, 바퀴벌레, 쯔벌레가
먹고
죽으라는 약
(취, 바퀴벌레, 쯔벌레 되게 약오르겠다)

신발통의 구두약은
구두 광 널 때
바르라는 약

—「약」

사물의 본질은 저렇게 스스로 명증하다. 스스로 분명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고, 복잡한 논리의 사다리 없이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즉물적이라고 하자. 이런 흥미본위는 말에서도 그렇다. 서로 다른 약에 붙은 ‘약’이라는 말의 결을 어루만지면서 느끼는 재미도 재미지만, 그 의미의 모순도 깊이 있게 느껴진다. 낮는 약, 죽는 약, 광나는 약, 사랑하는 약, 미워하는 약, 무관심한 약, 시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약, 어떤 약이라도 있을 것 같다. 역시 시를 재미있게 읽는 약은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눈을 감고 따라 해 보는 것이 최고다.



아이들에게 봄을!

글 이현승 시인

『사과의 길』

김철순 글 | 구은선 그림

문학동네 | 2014 | 123p

봄이다. 봄이다 싶으면 늘 곧바로 추위가 온다. 꽃샘추위다. 맞다. 감정도 그렇다. 반대와 저항이 있을 때 감정도 더욱 거세지고 분명해진다. ‘멋지다’보다 ‘부럽다’는 말이 더 진솔한 찬사의 말이다. 어딘지 손끝이 아릿아릿한 시샘이 있어야 봄인 거다. 시새우는 추위가 있어야 꽃이 피는 거다. 꽃이 피어야 봄인 거다.

시인과 아이를 동일시하는 사고는 낭만주의 시대의 유산이지만, 시인과 아이의 상상력은 눈앞의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그런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어패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의 ‘있는 그대로’란 사실 ‘자기 느낌(값)’에 충실해서’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천진난만하며 그래서 판에 박힌 어른들과 달리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브루노 무나리의 말처럼 사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과 사고의 방식에 지극히 충실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다. 아이들은 유별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요긴한 생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뿐인 것이다(브루노 무나리, 『판타지아』).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는 정보의 불충분이 참신한 사고로 귀결되는 역설이 담겨 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볼 만큼 현실과의 연관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대부분 동시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프레임을 얻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복잡성들을 내버리지만, 또한 ‘자기 느낌에 충실’한다는 것이 단순화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령, 모든 어른은 다 어린 시절을 지나왔지만,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조차 요령부득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눈앞에 보고 있지만,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언제나 ‘시’가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동시적 상상력이란 단순화가 아니다. 단순한 세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도달한 세계이다. 다음의 작품을 보자.

봄별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나비 날아간다

나비 겨드랑이에 들어갔던

봄별이

납작 접혀서 나온다

나비는 재미있어서 자꾸만

봄별 접기 놀이를 한다

나비가 접었던 봄별이

팔랑팔랑

땅에 떨어진다

- 「나비」

김철순의 시집 『사과의 길』에 실린 첫 시이다. 아마도 그래서 이 시를 시집의 대문 시로 삼았을 테고 이 작품에는 김철순의 놀이적 상상력이 잘 드러나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라면 누구나 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비의 날개가 접혔다가 펴질 때마다 마치 와플 기계가 찍어 내듯이 햇별이 접혀 나오는 광경을 본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접기 놀이’에서 시작된 저 상상력은 그러니까 나비의 날갯짓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사고 과정이다. 나비가 날지 않을 때에도 계속 저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기에 저 상상력은 놀이와 흥미 본위로부터 나비의 날갯짓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관찰이고 상상력이다. 그런데 상상력의 가장 놀라운 것은 눈앞의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까지도 보이게 해 준다는 데 있다. 김철순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착착 접혀서 떨어지는 햇별 조각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감쪽같은 저 나비의 날갯짓.

아이들의 마음에 가닿기 위한 놀이의 상상력이 아이들을 타자화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어른들의 안심을 위해서 아이들이 마냥 행복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위선이기도 하다. 다만 놀이의 상상력이 있는 것을 더 잘 보게 해 주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와 사물을 더 잘 보도록 해 주기도 한다.

꼬옥,

입을 다물고 있는

꽃의 입에서

말을 꺼내려고

별은,

나비는,

하루 종일

꽃밭을

들락거렸어요

- 「꽃밭」

꽃들이 피어 있는 한때의 별판을 벌과 나비가 부지런히 들락거린다. 꽃과 나비에게는 또한 한철의 농사요, 이 숭고한 노동의 대가로 달콤한 꿀을 얻는다. 그런데 시인은 이 풍경을 벌과 나비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꽃을 중심으로 보았다. 꽃의 말없음에서 오히려 벌과 나비의 드나듦을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역시 꽃봉오리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벌과 나비의 비행이 전혀 다른 의미 하나를 얻는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상상력이란 이렇게 아는 것을 더 잘 알게 해 주는 돋보기이다.

아이들은
학원 가고
숙제하고
텔레비전 보느라
무궁화꽃이 핀 줄도 모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심심해서
무궁화 혼자 꽃을 피웠습니다
다가오는 아이들
아무도 없는데
무궁화 혼자 술래가 되었습니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다. 이 사실을 문장으로 발음하면 곧장 술래가 되는 놀이를 기억할 것이다. 재밌는 것은 텅 빈 놀이터의 모습을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은 “학원 가고 / 숙제하고 / 텔레비전 보느라” 무궁화꽃이 핀 줄도 모르며, 아무도 몰래 혼자 피어 있는 이 무궁화꽃을 시인은 숨바꼭질의 술래로 만들어 놓았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심심할 권리’, ‘술래잡기 놀이’를 할 권리, 그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놀이이며, 그러한 놀이를 마땅한 자기 권한으로 이해하고 누리는 자기결정권이다.



아이들의 말로 본 안녕

글 이현승 시인

『숙제 다 했니?』

이지호 엮음 | 이단디 그림

상상의힘 | 2015 | 187p

‘재현’은 어린이들이 쓴 동시를 볼 때도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쓴 시들을 일독하고 나면 확실히 아이들의 세계엔 부모, 선생님, 친구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 시대 대부분이 이 세 사람을 향한 1인칭 발화가 주종을 이룬다. 당연해 보인다. 집과 학교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거기에서 인생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순경험과 역경험이 거기에 있다. 공부, 숙제, 형제간의 우애처럼 있어야 할 경험부터 가족의 빈자리나 학업을 방해하는 게임-놀이, 왕따나 형제간의 다툼과 같은 경험까지 다 포함된다. 그러나 한결같이 아이들의 시선에는 당연할 것 같은 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배반으로서의 ‘낯섦’들이 시적인 얼굴 표정을 하고 서 있다. 아이들에게는 뭔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이렇게 음악적이다.

사과는 우리 가족 모두 좋아하는 과일이다. 난 사과가 달콤해서 좋고, 오빠는 아삭해서 좋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새콤하다고 좋아한다. 아버지계선 새콤달콤 맛있다고 말씀하신다. 동생은 아무 맛도 없이 좋다고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계선 아삭아삭 새콤달콤 맛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가족은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가족이다.

- 박진아(산청 단성초 1), 「사과」

사과의 여러 맛과 질감이 사과라는 가족의 면면을 보여 준다. 아삭아삭과 새콤달콤은, 심지어 ‘아무 맛도 없음’과 같이 조화로운 향연을 연출한다. 각각의 질감은 각각의 구성원과 어울리면서 충실한 음악성을 연출한다. 흥겹다.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가족이 되어 버린다. 이 집단적인 흥겨움은, 마치 코미디를 볼 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듣지 못했으나 옆 사람이 웃자 따라 웃듯이, 동생으로 하여금 ‘아무 맛도’ 모르고 사과를 좋아하게 만든다.

학교생활은 단연 아이들 시의 중심 소재처이다. 학급에서 아이들과의 친교, 선생님과 의사소통은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이다.

애들은 매일 / 나- 보- 고 / 울보라고 한다. / 철민이 별명은 슈퍼돼지감자 / 윤기 별명은 송아지

/ 현희 별명은 남생이 / 선희 별명은 백두산 / 보은이 별명은 보은이통닭구이집 / 오은미 별명은 오징어구이 / 지은이 별명은 김치 / 김소정 별명은 김밥 / 안소현 별명은 안성탕면 / 연정이 별명은 김치찌개 / 모두 별명이 있으면서 / 나만 놀린다.

— 조민우(사천 완사초 2), 「우리 반 애들의 별명」

우리가 선생님 회의할 때 /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 저두요. / 애들 자리에 가기 싫은데 / 저절로 엉덩이가 떴어서 / 어쩔 수가 없어요. // 선생님 회의 끝나고 유리창에 모습이 비치면 애들이 / 얼른 자리에 앉잖아요. / 저는 그게 제일 웃겨요.

— 백정민(고성 회화초 2), 「선생님」

별명은 아이들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 같은 것이다. 모두가 별명이 있다. 별명이 없다는 것은 이미 존 재감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재밌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재밌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유독 어떤 아이의 별 명이 아이들의 입에 더 자주 오르내린다. 더러는 인기에 비례하고, 더러는 따돌림의 한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조 민우 어린이의 동시는 제목이 ‘우리 반 애들의 별명’인 것으로 보아, 반드시 왕따나 괴롭힘과 같은 정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인기 때문이 아닐까. 백정민 어린이의 동시에는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아수라장이 되는 학급의 풍경을 재밌게 잘 담아냈다. “저절로 엉덩이가 떴어서 /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구절을 읽으면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웃음을 주체할 수 없는 짓궂은 어린이의 모습이 얼비친다.

공부해라. / 밥 먹어라. / 일기 써라. / 학교 빨리 가라. / 일기장 가져와라. / TV 떨어져서 보라. / 할머니 도와 드려라. / 옷 입고 교회 빨리 가라. / 자전거 똑바로 받쳐 놔라. /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 이상! 아빠의 잔소리

— 장영민(부산 주산초 5), 「날 위한 소리」

공부하려고 문제집을 펴는데 / “공부 좀 해!” / 공부할 마음이 / 밤고구마를 먹고 방귀 뀌듯 / 싹- 사라진다.

— 김소윤(거창 창남초 5),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체감하는 세계에서 잔소리가 빠질 수는 없을 거다. 이 동시집의 제목이 ‘숙제 다 했니?’인 것을 보면 어른들의 배려와 아이들의 진도 사이에는 숙제라는 만리장성이 버티고 있음이 틀림없다. 숙제는 어른들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수많은 수행과제이다. 장영민 어린이의 동시에 나오는 저 어마어마한 명령문 들은 아마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든 집에 빈도와 강도를 달리할 뿐 존재하는 말일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자 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저렇게 제목을 ‘날 위한 소리’라고 달 줄 안다. 김소윤 어린이 의 동시는 더욱 재기발랄하다. 모처럼 어렵게 만들어진 향학열이 “싹-” 사라지는 풍경을 “밤고구마를 먹고 방귀 뀌듯”이라고 묘사할 줄 알다니!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제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짧은 것보다 더 나올 수는

없듯이, 사건화되지 않는 잔소리도 좀 줄여야겠다. 어른들도 반성. 이 어린이 시집에는 심각하고 우울한 이야기도 더러 담겨 있다. 어머니의 폭력 성향,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아버지, 돌아가신 엄마, 부모의 이혼도 아이들의 마 음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어쨌거나, 아이들이 무슨 잘못인가.

리뷰하고 싶은 시가 너무 많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시들이 우리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시라고 생각한다. 시를 쓰는 능력이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고 미미한 것을 만질 줄 아는 능력과 같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참 좋다. / 가만히 앉아서 햇살을 느끼다 보면 / 바람이 불어도 햇살 때문에 따스해진다. / 어느새 내 바지가 햇살에 물들어 따끈해진다.

— 배현준(창원 가포초 5), 「아침 햇살」

개들이 멍멍 멍 멍 짖는다고? / 아니다. 절대 아니다. // 우리 집 진돗개 진주는 ‘컹컹’ / 우리 집 강아 지 돌이는 ‘뽀뽀뽀’ / 산책 갈 때 만나는 옆 동네 꼬마 개는 ‘왹왹’ / 그 건너편에 사는 치와와는 ‘워워워’ / 치와와 앞집의 커다란 개는 ‘월월월’ / 커다란 개 옆집의 누린 개는 ‘뽏뽏’// 비슷한 소 리는 있어도 / 똑같은 소리는 절대 없다.

— 이단디(진주 배영초 5), 「개 짖는 소리」



감각과 깊이의 조화

클 이안 시인

『아, 너였구나!』

권영상 글 | 정가애 그림

국민서관 | 2015 | 117p

권영상의 열여섯 번째 동시집 『아, 너였구나!』는 시력 36년이 되는 시인의 동시집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나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젊은 감각이 발휘된 작품을 적잖이 만날 수 있다. 이번 동시집에서는 시인 특유의 날렵한 감각에 오랜 연륜에서 말미암았을 깊이까지 담아낸 작품이 여럿 발견된다. 「수세미꽃 핀 집」, 「창문」, 「나비」, 「물총새」, 「폴짝, 폴짝, 폴짝」, 「작은 의자」, 「고불고불」, 「여름밤 하늘」, 「달력을 넘기며」 등은 권영상 동시가 도달한 높이와 깊이를 맛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을 만하다.

지나간 달을 넘기고
새 달을 받는다.
이 아침
나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서른 개의
깨끗한 날을 받는다.
달걀 한 바구니처럼
굵고 소중한 선물.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
서른 개의 날들이
서른 개의 꿈으로 깨어나게 될 일을
곰곰 생각한다.
- 「달력을 넘기며」

시인은 한 달 서른 날이 담긴 달력을, 한 판 서른 알이 담긴 달걀 한 바구니로 등치시킨다. 달력이 달걀 바구니가 되는 순간, 달력에 담긴 하루하루는 달걀 바구니에 담긴 한 알 한 알의 달걀처럼 굵고 소중하며,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깨끗한 날로 바뀐다. 그러니 이 소중한 서른 개의 아침을 받아 든 시인으로서의 어미 닭이 달걀을

품듯 온 정성을 다해 이 하루하루를 서른 개의 꿈으로, 서른 개의 생명으로 품고, 깨우고, 길러 낼 일을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하루가 아닌 것이고, 그냥 한 달이 아닌 것이다. 하루하루는 저마다 고유한 개별성을 간직한 생명의 알이어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없다. 사랑으로 품고 정성으로 돌보아 하나하나 생명의 날로 깨어나게 해야 한다. 무겁되 무겁지만은 않고, 숙연하되 숙연하지만은 않은, 두근두근 설레는 놀이 같은 책임이 이 마음에는 담겨 있다. 지나간 달은 그렇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허투루 보람 없이 보냈을 수도 있다. 좋은 시 하나, 좋은 일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후회와 무기력 속에 보냈을지도 모른다.

새 달을 받는 마음이 이처럼 각별한 것은 지난달의 뼈아픈 실패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지난달은 넘기는 것이고, 새 달은 받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을 것이다. 맞는다고 하지 않고 받는다고 한 바탕에는, 새 달이 불가능한 기적처럼 주어진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다. 살다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도모하기조차 불가능한, 그냥 넘겨 버리는 것만 해도 대견한 날들이 있게 마련이다. 지난달이 바로 그랬다. 어쩌면 지난 1년이 바로 그랬는지도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 그저 지나가 주기만을 묵묵히 견뎌 내야 했던 시간. 이것마저도 지나가리라, 스스로를 달래며 쓴 약을 마른 목구멍 속으로 꼭꼭 떠넘겨야 했던 시간. “지나간 달을 넘기고”라는 말을 긴긴 고통을 감내한 자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새로운 시간의 출발로 읽을 때, ‘새 달을 받는’ ‘이 아침’의 ‘나’에게 시간이 비물질적 추상성을 벗고 ‘달걀 한 바구니’라는 물질적 구체성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 준 연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나비들이

소 발자국에 고인

빗물에 모인다.

나비 날아간 뒤에

가 보니

거기 하늘이 있다,

파란.

그쪽 나라로 가는

창문인 줄 알았나 보다.

- 「창문」

개미 한 마리가

달달달

빈 방바닥을 헤맨다.

서툴기는 해도

이 아침,

홀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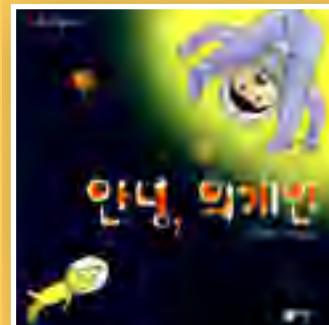
- 「개미」

개울물 따라나섰다가
물총새는
강물을 봤지.
푸르고 깊은
강물.
강물을 따라나섰다가
물총새는
그 끝에서 바다를 봤지.
파아란.
- 「물총새」

세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의 캐릭터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탐색하는 존재들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소 발자국에 고인/ 빗물’, ‘빈 방바닥’, ‘개울물’이 ‘지나간 달’의 자아의 모습이었다면, ‘소 발자국에 고인/ 빗물’에서 ‘하늘’과 ‘창문’을 발견하고, ‘서툴기는 해도’ ‘홀로 길을 만들어 가고’, ‘강물을 따라나섰다가’ ‘그 끝에서 바다를’ 보는 것은 ‘서른 개의 날들이/ 서른 개의 꿈으로 깨어나게 될 일을/ 곰곰 생각’할 줄 알게 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이다.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에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과 도전을 담아 어린이 독자의 성장을 티 나지 않게 응원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권영상 동시의 시적 주체는 이 세계가 어린 생명들을 그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적 협력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따뜻한 품 안에 보호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보여 준다.

숲 속 참나무 동치에
딱따구리가
호주머니를 만들었다.
다 자란 봄이
참나무 호주머니에서
폴짝!
폴짝!
폴짝!
새끼 딱따구리를 꺼낸다.
- 「폴짝, 폴짝, 폴짝」

새끼 딱따구리가 다 자라 참나무 동치에서 나오는 것을, ‘다 자란 봄이/ 참나무 호주머니에서’ ‘새끼 딱따구리를 꺼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 너였구나!』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고 즐길 수 있는 좋은 동시 집이다. 권영상 시인 특유의 시적 감수성이 동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현된 수작을 다수 만날 수 있다. 감각과 깊이가 여러 작품에 조화롭게 담긴 동시집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아이의 자리, 동심의 자리

글 이현승 시인

『안녕, 외계인』

이근화 글 | 이경석 그림

비룡소 | 2008 | 97p

아이들은 언제나 부수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완벽하게 자기 결정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사실은 결정과 실행의 능력이 있어도 아이들의 감정은 쉽게 무시된다. 아이들이 늘 양육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마도 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가장 일반적인 인식틀일 것이다. 이것은 의욕적일 때는 보살핌의 덕목으로 피어나지만, 반대로 힘에 겨울 때에는 짐스러움으로 돌변한다. 이런 사정은 ‘아이의 마음’이라는 동심이라는 말 속에 더 잘 녹아 있다. 돌아가거나 회복해야 할 어떤 마음의 경지인 양 이상화하면서도 근원적으로는 어리숙하고 사차원적인 심성으로 치부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이 말에는 포함된다.

나는 종종 어린 시절을 그림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어린 시절에 너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밤낮없이 빌었을 거다”라고 비꼬곤 한다. 사실 아이냐 어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 그의 생각과 느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시야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아이들이 자기 정보와 경험에 충실하게 사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른들이 ‘천진하다’거나 ‘동심 운운’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왜냐고? 아이는 당신이 기분 좋으면 칭찬하고, 기분 나쁘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타인의 보살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이들만은 아니다. 인간이란 넓은 의미에서 누구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 때문에 ‘아이 취급’을 받는다면 기분 나쁠 것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보살핌의 언저리, 구석진 곳에 있다. 그리고 동심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심은 정확하게는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다. 동심이 정확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심이라는 왜곡’은 ‘걸리버가 소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려야 하는 일종의 입사식’ 같은 것이다. 시인들이 너무 시적인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을 못 느끼는 것처럼, 너무 동시 같은 것이 사실은 함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시에서도 사실성은 미덕이지만, 동시의 세계에서도 사실성은 미덕이라고 나는 여긴다.

내가 이근화의 동시집 『안녕, 외계인』을 먼저 다루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청탁의 기한이 너무 짧았고(그래서 가장 잘 읽어 둔 시집부터), 다음은 이 시집이 내가 말하고 싶은 아이의 자리와 동심의 자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대상이라고 여겨서이다.

발이 없어
 줄넘기도 못하고
 손이 없어
 옆구리도 못 굽고
 화가 나서 씹씹
 붉은 열매만 매달고

— 『사과나무』

붉은 사과를 보면서 화난 얼굴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못된 아이’들이야말로 언제나 참다운 아이일 수밖에 없다. 못된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의 지당한 가르침 앞에서 못난 자기 결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이미 못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더러는 알아도 생각 따로 감정 따로인 게 또 문제겠지만, 어쨌거나, 저 시 속의 화(火)는 사과나무라는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 보고 있는 사람(화자)의 것이다. 앞의 두 연은 화가 난 소이연을 설명해 주는데, 사과나무가 발이 없어서 줄넘기를 할 수도 없고, 손이 없어서(뭘 들고 있느냐고) 옆구리도 못 굽으니 화가 난다는 거다. 그러나 나는 이 시를 풀면서 “워즈워드가 그랬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아버지(스승)라고, 어른들도 화가 나면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거나 우기고 떼를 쓰지 않는가”로 이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세심한 눈으로 보면, 아주 많은 순간에 아이들은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결정권이 없다는 것, 자신의 감정이 무시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은 누구에게든 언제나 화를 부른다. 세상에서 제일 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보라고 놀림 받는 바보다.

줄을 딱딱 맞추어
 척척 발을 맞추어
 어깨를 꼳꼳하게
 허리를 쭉쭉 펴고
 앞으로 앞으로
 코가 가려워도
 귀가 간지러워도
 재채기가 나도
 방귀가 나도
 꺾꺾 참고
 행진을 행진을

— 『국군의 날』

아이들의 두 번째 불편함은(첫 번째 불편함은 결정권이 없다는 것)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는 행진하는 군인 아저씨들도 가려움과 간지러움과 재채기와 방귀를 참으면서 행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재미있는 상상을 보여

주지만, 이 재미를 살짝 가리고 보면 아이들이란 늘 저렇게 어떤 규율 속에서 자기를 참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룰은 당연히 어른들이 만든 거다. 어른들이 틀렸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어른들과 아이들을 이어 주고 싶다면 무엇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주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언제나 저렇게 규율 안의 군인처럼 제법 잘 참고 씹씹하게 행진도 한다. 그리고 그 수용력은 언제나 어른들을 능가하는 것이다. 정작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조금도 양보하지 못한다.

대체로 유쾌하고 즐거운 시편들이지만, 이 시집에는 펍 슬픈 시도 한 편이 있다.

우리 강아지
 땅속에서 춤지 않을까?
 함박눈아
 다독다독 덮어 줄래?
 뽀뽀 바람 부는데
 우리 강아지 외롭지 않을까?
 겨울나무야
 네가 친구해 줄래?

— 『우리 강아지』

아이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기 위해선 아이들이야말로 모든 사실의 겸허한 수용자라는 예찬이 필요하다.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 나무 밑에 매장을 해 주었는데, 마음은 언제라도 땅속의 강아지에게로 향한다. 이 죽음은 강아지의 숨을 멈춰 세웠는데, 아직 아이의 마음에서는 지우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뭔가 애를 쓰고 있다. 눈이 내리는 것을 덮는 것으로, 겨울 나뭇가지에서 이는 바람 소리를 외로움을 달래는 이야기로, 부단히 마음을 쓴다. 아이가 쓰건 어른이 쓰건, 어른이 읽든 아이가 읽든, 시란 본디 이렇게 마음을 쓰는 일이 아닌가.



선물 같은 오월을 위하여

글 이현승 시인

『엄마의 토끼』

성미정 글 | 배재경 그림

난다 | 2015 | 121p

오월에는 어린이날이 있다. 물론 어버이날도 있다. 오월에는 아이와 부모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혹자들은 그래 봤자 한주머니라고 툭툭덜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교육이요, 성장이다.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지금의 삶이 이미 어떤 소여(줍을 받음)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무얼 선물할까’라는 생각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생각과 같고,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유사하다. 선물을 할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피하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묻지만, 대체로 생필품이 아닌 사치품을 선물로 준다. 어른들이 주고받는 귀걸이나 반지, 화장품, 넥타이와 같은 액세서리류는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는 인형, 로봇, 플라스틱 칼이나 총 등과 다를 바 없이 소모품이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이나 칼을 선물로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이 아니라 ‘놀이’임에 틀림없다. ‘생존’이 아니라 ‘꾸밈’이 틀림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놀이와 꾸밈은 사실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우리 집 아이가요……” 하고 누군가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아이를 떠올릴 것이다. 그만큼 연이 늙은 말이 ‘아이’이기도 한 것 같다.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제일 큰 아이가 일곱 살이라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만 일곱 살 정도의 연령을 생각하게 된다. 내 아이가 일곱 살이 되는 동안에도 여러 번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다. 젓먹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섭생에 대부분 관심을 집중하고, 아이가 서너 살 무렵이 되면 벌써 기저귀를 떼는 일이나, 올바른 식습관, 한글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진다. 자라면서, 어떤 능력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바뀐다. 그때마다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아이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다가 종내 우리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어쨌면 매년 우리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가를 골몰하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독하게 아이를 잡아 대는 ‘학부모’가 되어 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해 이토록 골몰해 가며 생각해 보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인 거 같기도 하다. 결국 받아서 좋은 것은 마음이니까.

문제지 풀 때마다
곁에 앉아 있는
엄마 얼굴 살피는
내게
엄마는
이 녀석아
답이 네 머릿속에 있지
엄마 얼굴에 써 있냐
핀잔을 주지만
엄마 표정만 보면
대변에 나는 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답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 「문제지 풀 때마다」

앞에서 ‘아이’라는 말의 외연을 이야기했지만, 이 아이는 문제지씩이나 풀고 있는 아이이고, 벌써부터 엄마의 표정으로 정답과 오답을 분별하는 엄마 독심술을 티득하고 있는 아이이다. 흔히 아이가 거짓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정신 발달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한다. 그것은 아이가 이미 자기가 바라본 세계나, 들은 이야기 등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시작했다는 증거니까. 있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걸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의심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나아간 거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이른바 창조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고, 미숙하지만 개척자로서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아무튼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양육자에게 무엇보다 그만큼의 성장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쉽지는 않다. 40점을 맞은 아이에게 40점이나 맞았다고 할 수 있는 부모는 아마도 이전에 40점 이하의 점수를 맞았던 아이의 부모뿐일 것이다. 대부분 부모는 여전히 이 아이가 놓친 점수가 60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조급해질 것이다. 인용한 동시 「문제지를 풀 때마다」에서 아이가 엄마의 표정만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엄마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이다. (이) 아이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사실 엄마와의 소통 능력이다. 엄마의 핀잔조차 다정하게 느껴진다.

준이와 장난치다가
선생님께 들켜서 벌을 받았어
...(중략)...
준이랑 같이하니 재미있어서
얼굴 마주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
...(중략)...

친구랑 함께라면
별서기도 재미있구나
별을 서 보고 알았어
친구가 있어서 알았어

- 「친구」 중에서

사람들이 착한 일보다 나쁜 일을 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보면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약점을 나눠 갖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인가 보다. 아빠들은 함께 피우던 담배를 누가 먼저 끊으면 왠지 마음이 서먹해 지고, 엄마들은 아빠들 험담을 밀친 삼아서 사교술을 늘리기도 한다. 수학여행을 가서 낯선 곳에서 자면서 친구랑 나누는 비밀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기꺼이 내보임으로써 타인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시도한다. 예전에 아메리카 수우족의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 거다. 사람살이는 누구랄 것 없이 이렇게 하나둘 친구와 어울리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처음 받는 별도 친구랑 받으면 재밌어서 킥덕거리 본 경험이 이 시 속의 아이만은 아닐 거다. 이 내밀한 느낌. 뭔가 서로 기분 좋게 조여지는 느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친구가 필요하기에 속내도 더러 털어놓고, 가장 좋아하는 것도 선뜻 주기도 하고 하는 거다.

성미정 시인이 키우는 아이는 내가 키우는 아이보다 한 예닐곱 살은 더 나이가 많은가 보다. 투사된 아이의 시선이 펼쳐 놓은 세계가 그렇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되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이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것 말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세상살이를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바로 자신의 삶을 본다. 사람은 이렇게 타인의 표정을 통해서만 바로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별치하면서 꼴뚜기까지 맛보고는, 그걸 사면서 값을 깎아 달라고 흥정하는 엄마가 부끄럽지만(「시장에 가면」), 아이는 엄마가 꼭 돈이 없어서 흥정하는 게 아니었음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자꾸 맛본다고 버럭 화를 내는 장사꾼에게 더러 맛보고 그러는 거지 뭘 그러느냐고 능청을 떠는 어른이 될지도 모른다. 성미정의 『엄마의 토끼』는 동시집의 그림을 시인의 아이가 그려서 더욱 특별하다. 이런 책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다. 인간에게는 죽을 때까지 다른 성장의 시간이 남겨져 있지만, 엄마와 아이의 이 우정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길 바란다. 겹쳐서 우리 모두가 남도 잘 보고, 그 덕에 자신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



청소년시, 따로 있어야 할까

글 이안 시인

『의자를 신고 달리는』

강성은 외 글 | 김이구 외 엮음 | 창비교육 | 2015 | 119p

『처음엔 삐딱하게』

김남국 외 글 | 김이구 외 엮음 | 창비교육 | 2015 | 126p

박성우의 『난 빨강』(창비 2010)은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시집이다. 나는 이 책에 대해, “이오덕이 엮은 『일하는 아이들』의 청소년 판이라고 할 만”하며, “청소년의 삶에 대한 시적 보고서이자 시 입문서이면서 청소년 독자를 성숙의 지평으로 이끌어 가는 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나는 연두, 아직 많은 게 남은 연두, 『다 같이 돌아』 동시 한 바퀴」 문학동네 2014). 청소년들이 이 책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풀어낼 수 있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성우가 「시인의 말」에서 “시 앞에서 찢절매던 지난날에게 한 방 먹여 주시길” 하고 바란 것은 시 감상의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 창작의 측면에도 해당되는 말로, 『일하는 아이들』이 어린이 시 쓰기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난 빨강』이 청소년시 쓰기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리란 기대와 전망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난 빨강』을 활용한, 청소년이 쓴 청소년시집이 나왔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반면 시인들이 쓴 청소년시집은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몇몇 시인과 출판사에 의해 시도되어 묶여 나오곤 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창비교육이 20인의 시인이 참여하는 ‘창비청소년시선’ 1, 2권을 한꺼번에 출간하면서 청소년시는 바야흐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권 『의자를 신고 달리는』에는 강성은, 김규중, 나희덕, 박일환, 박준, 복효근, 손택수, 오은, 이웅인, 최은숙 시인이, 2권 『처음엔 삐딱하게』에는 김남국, 김성장, 남호섭, 박성우, 배수연, 이삼남, 이정록, 이해미, 조향미, 하재일 시인이 참여하여 각 5편씩 모두 100편의 청소년시를 선보였다. 그중 박성우와 박일환은 일찌감치 동시집과 청소년시집을 낸 바 있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김남국, 복효근, 손택수, 오은, 이웅인, 이정록 등은 이번 시선집을 시작으로 시와 함께 동시, 청소년시 등 세 종류의 시를 쓰는 시인이 되었다. 동시와 시의 경계를 가르기도 쉽지 않은데, 그 사이에 다시 청소년시가 놓일 필요, 또는 청소년시가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리,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수록 작품을 읽기에 앞서 엮은이의 말 「『창비청소년시선』을 시작하며」를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엮은이는 청소년시가 필요한 이유를 교과서에 실리는 시와 청소년 사이의 괴리에서 찾는 듯하다.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시를 읽을까? 대부분 청소년이 교과서와 참고서에 나오는 시를 읽을 것이다. 교과서와 참고서에는 물론 엄선된 좋은 시가 실리지만, 과연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가슴에 다가오는 감동과 재미를 얻을 것인가

가?” 이로부터 청소년시의 목표 지점이 발생한다. “청소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가슴에 다가오는 감동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시를 새롭게 제시하겠다는 것. 그런데 의문이 든다. “청소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가슴에 다가오는 감동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왕에 나와 있는 시에서 찾지 않고 시와의 경계가 동시보다 더 모호한 청소년시 장르를 새롭게 여는 것에서 찾는 까닭이 무엇일까. 엮은이는 이렇게 답변한다. “물론 나이에 관계없이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가 많지만, 청소년의 자아에 더 스며들어 폭발하는 시가 있고 그런 시가 쓰일 수 있다.” 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아주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없는 얘기다.

엮은이들이 두 번째로 든 필요는 이렇다. “지금도 ‘청소년문학’ 하면 『완득이』 같은 소설이 먼저 떠오를 뿐 청소년시의 자리는 행하기만 하다.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접이지대에서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내는 청소년기에 걸맞은 문학으로 청소년소설이 있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청소년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성우의 『난 빨강』을 비롯해 서 청소년의 일상 경험과 정서를 다루며 청소년의 감수성에 호소하는 몇몇 시집이 청소년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아직 청소년시의 자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청소년시의 필요성을 청소년소설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기대어 찾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글 치고는 궁색해 보인다. 반면 의지는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온다. 박성우가 열어 놓은 청소년시의 가능성을 이 시리즈를 통해 제대로, 본격적으로 구현해 보겠다는 것.

이어 청소년시를 구성할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청소년이 공감하며 다가갈 수 있는 시, 청소년에게 마음을 열어 다가가는 시,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껴안고 뒹굴며 함께 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시”, “청소년기에 읽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정신이 고양될 수 있는 시, 청소년에게 말을 걸며 대화하는 시, 청소년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 “교실에서 만난 학생들의 소소한 소란 같은 청소년의 일상에서부터 시인 자신이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청소년기의 경험, 청소년과 나누고 싶은 예리한 생의 감각” 등으로 두루 열거했음에도 그저 두루뭉술하기만 하다. 내용이야 각 시인들이 자유롭게 채워 갈 것이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쳐도 이 같은 말의 성찬이 5년 전 제출된 『난 빨강』의 문제의식에서 그리 진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렇듯 ‘창비청소년시선’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내적 근거는 무엇일까. 동시를 쓰는 시인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늘었음에도 동시집은 1년에 고작 두 권 정도밖에 내지 않으면서 청소년시집은 분기마다 1권씩 내겠다고 나선 출판사 창비(교육)의 의도는 무엇일까. 동시에 더 넓은 자리,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나저나 청소년시를 쓰는 시인들에게 이 작업이 자기 시의 진전을 위해 도움이 될까. 그 자신 청소년시집에 앞서 동시집을 냈으면서 박성우는 어째서 “초등학교 5·6학년만 돼도 동시는 시시하다고 안 읽게 되면서 시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5월 26일 기자 간담회)고 말했을까. 초등학교 5·6학년, 더 높게는 청소년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시를 쓰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아서였을까. 이런저런 상념에 휩싸이면서도 강성은의 『십대 시절』, 나희덕의 『청력 검사』, 박준과 손택수의 작품들(1권), 김남극의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남호섭의 작품들, 박성우의 『교복과 나』, 배수연의 『나의 프랑스식 엄마』, 이정록의 『뼈딱함에 대하여』(2권)를 만난 것은 청소년시의 가능성과 그 자리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든 독서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그대로 시집(청소년시집이 아니라)에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또한 이 두 권에 실린 적잖은 시편들은 청소년들에게 『난 빨강』을 맛보기 시로 읽힌 다음 자기들 이야기를 시로 쓰게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도 한다.



재치와 유머, 깊이의 상상력

클 이안 시인

『지령이 일기 예보』

유강희 글 | 이고은 그림

비룡소 | 2013 | 84p

기상청 슈퍼컴퓨터 가격은 얼마나 될까? 우리 정부가 보유한 물품 가운데 가장 비싼 게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슈퍼컴퓨터 3호가 가격이 172억 원이고, 도입 예정인 4, 5호가 가격이 550억 원이란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의 컴퓨터를 들여놓고도 날씨 예측은 빗나가는 일이 잦다. 어째서 그럴까.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일기 예보는 여전히 예측의 영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보통 다음 날의 온도 예보 값 하나를 구하는 데 드는 계산 횟수만도 약 100억 회에 이른다고 하니 일기 예보가 들어맞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일기 예보가 맞거나 틀릴 때 할머니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머니는 일기 예보가 맞으면

아이고, 용하다 용해

참 도성이도* 잘 맞히네!

하지만 일기 예보가 빗나가면

그럼, 하느님이 하시는 일

지들이 어떡코롬 다 맞혀!

—『일기 예보』

‘도성’이는 ‘영락없이’와 같은 뜻을 지닌 전주 지역 방언이다. 할머니는 일기 예보가 맞으면 “아이고, 용하다 용해/ 참 도성이도 잘 맞히네!”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지만, 일기 예보가 빗나가도 “그럼, 하느님이 하시는 일/ 지들이 어떡코롬 다 맞혀!” 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1연에서는 과학기술의 정확성에 대한 놀라움이, 2연에서는 인간 또는 과학기술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정과 수긍의 태도가 드러난다. 날씨의 변화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속한 것이고, 그렇기에 언제나 인간과 과학기술의 영역 너머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맞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같은 예측 불가능성이 예로부터 날씨와 관련한 흥미로운 말들을 많이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과학적 뒷받침을 받기에 이르렀다. 가령, 다음 작품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아침 무지개 뜨면 비 오고
저녁 무지개 뜨면 맑다는
옛말은 왜 생겼나

처서 지나면
모기 입 비뚤어진다는
옛말은 왜 생겼나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는
옛말은 왜 생겼나

쌍인 눈 뵈아 뽀드득 소리가
크면 날씨가 추워진다는
옛말은 또 왜 생겼나

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아침 무지개’인지 ‘저녁 무지개’인지, ‘거미가 줄을 치’는지 개미가 줄을 지었는지, 제비가 낮게 나는지 높이 나는지와 같은 자연 현상을 예민하게 관찰함으로써 날씨의 변화를 경험적으로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예측해 내는 능력은,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어떻게든 대비하며 살아야 했던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자 삶의 지혜이기도 했다. 과학적으로 완전한 분석이 불가능하며, 혹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날씨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탐구욕, 차이를 지칭하는 여러 말들[‘쌔바람’, ‘하늬바람’, ‘마파람’, ‘된바람’(‘무슨 바람’)], ‘자국눈’, ‘살눈’, ‘길눈’, ‘도둑눈’(‘무슨 눈’)], 이야기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날씨를 소재로 한 동시는 세상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신비롭게 바라보는 어린이의 특성에도 잘 부합한다.

비룡소의 ‘동시야 놀자’ 시리즈 열두 번째 책인 유강희의 『지렁이 일기 예보』는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한 날씨, 자연현상에 관계된 소재를 재미나게 노래한 동시 마흔 편을 실었다. 앞에 든 두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강희 시인의 손을 거치면 그것이 아무리 기획 동시적 소재라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 그만의 시선과 깊이, 유머와 상상력을 지닌 시로서의 품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눈싸움」도 그중 하나이다.

눈을 뭉쳐 주먹밥을 만들자
자, 지금부터 누가 누가 주먹밥
많이 먹나 내기 하자
이쪽에서 머리가 펴, 주먹밥 먹고
저쪽에서 엉덩이로 펴, 주먹밥 먹고
여기 펴,
저기 펴,
그 많던 주먹밥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주먹밥이 녹아 벌써 봄이 왔네
-「눈싸움」

눈싸움을 하려고 뭉친 눈덩이에 주먹밥이라는 이름을 붙여 준 순간, 눈싸움의 마당은 갑자기 눈 주먹밥을 먹는 커다란 식당이 된다. 물론 눈 주먹밥 식당의 손님들은 대부분 어린이일 테고, 무료 급식일 터여서, 손님들은 주먹밥을 먹이는 내기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먹나 내기를 한다. 머리로도 먹고, 엉덩이로도 먹는다는 표현을 통해 눈싸움의 현장이 펴, 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또한 마지막 연, “주먹밥이 녹아 벌써 봄이 왔네”라는 표현에서 유강희 동시 특유의 깊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렇기는 열대야 속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를 방 안의 더운 공기를 한 대야, 두 대야, 세 대야……덜덜덜 퍼내는 것으로 익살스레 표현한 「열대야」나, “꽃이 피는 게/ 샘나서 추위가/ 닥친 게” 아니라 “꽃들이 너희들도 한번/ 꽃향기에 취해 보라고/ 추위를 초대한 거”라고 말하는 「꽃샘추위」, “만일 태풍의 눈을/ 하나 더 그리 고/ 눈동자도 그려 주면// 태풍은 기분 좋아/ 우리 마을도 그냥/ 가뿐 지나갈지 몰라” 하고 바라보는 「태풍의 눈」도 유강희가 아니라면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운 이 세계의 틈이다.

길가에 버려진 우산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 이전에 시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산은 길가에 버려진 우산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파서 우산의 우산이
되어 주고 싶다
-「우산」



시인 자신을 갈아치우는 시

글 이안 시인

『큰 바위 아버지』

김금래 글 | 표주란 그림

섬아이 | 2011 | 90p

한 편의 시는 사물에 대한 이전까지의 인식을 새롭게 갈아치운다. 이러한 ‘갱신적 속성’이야말로 시의 조건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시는, 쓰는 사람 자신을 새롭게 갈아치운다. 한 편의 시를 쓰기 전의 시인과 쓴 다음의 시인은 분명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시인은 한 편의 시를 빚는 과정을 통해—사물과 언어에 앞서—그 자신을 새롭게 갈아치운다. 이것이 아니라면, 시가 대체 이 세상의 무엇을 갈아치울 수 있단 말인가. 시는 시를 쓰는 시인 자신을 갈아치우고, 사물과 언어를 갈아치우고, 최종적으로 독자를, 이 세계를 갈아치운다. 그러니 시인은 다른 무엇이 아니다. 시인은 사물과 언어에 앞서, 독자에 앞서, 이 세계에 앞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갈아치우고자 한다. 독자가 시인을 발견하는 순간은 오직 새롭게 갈아치워진 시를 만날 때다. 이전의 그와 다른 새로운 그를 만날 때, 독자는 이전의 시마저 잘못 읽었나 싶어 다시 찾아 읽게 된다. 김금래 시인은 다음 두 편의 시로 나에게 왔다.

시골 마을 텃밭 옆에 페타이어가 있지. 바퀴 닳도록 아스팔트를 달리다 할머니를 만난 페타이어. “비 맞아도 젖지 않는당께. 앉아보소! 엉덩이가 파습구만이라.” 밭이랑에 참외처럼 달달한 할머니 칭찬에 타이어는 시골 의자가 되었어. 허리 두드리며 텃밭을 나온 할머니가 수건으로 옷을 탈탈 털고 의자에 앉으면 이웃 사람들이 흘러와 맑은 물소리를 내지. 넌 운동회고 글피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 생일이고 시냇물에 나무다리 떠내려간 것도 사투리로 아는 의자. 나비, 방아깨비, 별도 달도 앉았다 가는 의자. 아이들 달려와 둥글게 앉으면 해바라기가 되는 의자. 동그라미 속에 토끼풀도 키우는, 이제는 시골 사람 다 된 의자.

—「시골 의자」《어린이책 이야기》2015년 여름호)

바다가 되기 싫은/ 물이 있지// 가던 발길 멈추고/ 고요히// 생각에 잠기는/ 물이 있지// 세상 물들이 모두/ 바다로 갈 때// 나무속으로 들어가/ 팔 벌리고 서 있는 물이 있지// 앞으로 꽃으로 피는/ 물이 있지

—「서 있는 물」(위와 같은 책)

페타이어가 시골 의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참외처럼 달달한 할머니 칭찬에” 시골 의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 운동회와 할아버지 생일과 시냇물에 나무다리 떠내려간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사투리로 아는” 것은 다르다. 사람만 앉는 의자와 “나비, 방아깨비, 별도 달도 앉았다 가는 의자”는 다르다. 심지어 이 의자는 아이들을 둥글게 앉혀 스스로 해바라기가 될 줄도 알고, 동그라미 속에 토끼풀을 키울 줄도 안다. 그래서 시골 마을 텃밭 옆에 버려져 있던 페타이어는 “이제는 시골 사람 다 된 의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페타이어가 갖는 해석의 확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타이어는 ‘귀농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외래종(이종)의 토착화(동화) 과정의 알레고리로 읽어도 무방하다. 이 작품은 대상을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그것을 새롭게 갈아치웠을 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새롭게 갈아치웠다. 동시라고 해서 시보다 덜 가는 것이 아니며, 시와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갈 때, 동시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 있다.

수평—하향적 속성을 지닌 물을 수직—상향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변환해 “앞으로 꽃으로” 피어나게 한 「서 있는 물」 역시 대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인식을 보여 주면서 쓰는 사람 자신과 독자를 새롭게 갈아치운다. 물 얘기를 하면서 나무 얘기고 궁극으로는 사람 얘기여서, “앞으로 꽃으로 피는/ 물”은 어떤 고매한 인격을 연상하게 한다.

김금래 시인은 2004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첫 동시집 『큰 바위 아버지』(섬아이, 2011)를 다시 꺼내 앞에서부터도 읽어 보고 뒤에서부터도 읽어 본다. 「울고 웃는 사이」, 「콩꼬투리 속」, 「큰 바위 아버지」, 「벌레 먹은 나뭇잎」, 「 짹짹」, 「단비」, 「네 앞 클로버」, 「고추잠자리」, 「낙엽 밟으면」, 「얼음기사 펄트병」, 「진달래」, 「강이 얼었다」 등이 눈에 띄지만, 위의 두 작품처럼 끝까지 밀고 가 쓰는 시인 자신을 갈아치웠다고 보기엔 조금씩 미흡해 보인다. 왜 그럴까. 자기가 쓰는 동시의 그릇을 작게 만들어 놓고, 동시에 대한 기존관념 안에서만 대상을 찾고 그것을 한정적으로 바라보려 했던 탓인 듯하다. 또한 2011년이라는, 우리 동시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한 시인의 바탕이 이 동시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모 발전해 가지를 살필 수 있는 1차 텍스트라는 점에서 일독을 권한다. 「시골 의자」와 「서 있는 물」은 시인이 어떤 계기를 맞아 그 한계를 푼 터놓았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시는 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시에서 탈주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갈아치우고 시의 범주를 조금이라도 넓혀 놓는다. 최근 작 「기다리는 발자국」(《동시마중》 2015년 9·10월호) 역시 『큰 바위 아버지』의 세계를 새롭게 갈아치운 작품이다.

겨우내 얼어붙어/ 담장 밑에/ 서 있던 발자국/ 어디로 갔나/ 보이지 않네// 발자국 하나 응달에 두고/
혼자 떠난 발자국// 외밭로 강충강충/ 뛰어가다가/ 강둑에 앉아/ 보리피리 불며/ 기다리고 있겠지

—「기다리는 발자국」

“나를 버리고 가시는 남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를 새롭게 갈아치운 버전이라고 해도 될까. 있던 발자국과 “서 있던 발자국”은 다르다. 다른 명명(바라봄)이 누운 발자국을 일으켜 세워 “외밭로 강충강충” 뛰어가게 한다. “발자국 하나 응달에 두고/ 혼자 떠난 발자국”은 멀리도 못 가고 “강둑에 앉아/ 보리피리 불며” “응달에 두고” 온 발자국을 기다린다. 이 작품으로부터 우리는 응달의 발자국이 양달로 걸어가 양달에서 기다리는 발자국을 만날 때 비로소 버들잎 돌아나는 봄이 왔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큰 바위 아버지』를 새롭게 갈아치울 김금래 시인의 두 번째 동시집이 기다려진다.



노장 멘토의 나침반을 발견하다

글 오선화 작가 · 아동청소년문학가

『답 없는 너에게』

손봉호 · 옥명호 글

홍성사 | 2015 | 207p

10대에게 답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20대도, 30대도 10대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가장 답답한 것은 10대 본인이다. 어른들의 말을 따라가면 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의 끝에 나침반을 들고 나타난 책, 『답 없는 너에게』를 소개한다.

노장 멘토의 '경험'과 '지혜'라는 나침반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등산을 했다. 그들은 점점 '함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자 산을 올랐다. 빨리 가고 싶은 아들이 앞장서 가고, 아버지는 뒤따라 천천히 갔다. 점점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아들은 산을 오르며 계속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무엇을 보며 느리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마냥 답답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아버지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없는 거라고.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내를 눈치챘고 점점 속도를 늦춰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다. 정상에 다다를 때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도대체 아버지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뭐냐고. 아버지가 말했다. 이것의 이름은 나침반이라고. 방향을 알려 주는 좋은 도구라고.

이 책을 읽고, 오래전에 들은 이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이 책이 그 아버지가 들고 있던 나침반 같았다. 그런데 달랐다. 이 책에서 나침반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니까. 이름하여 노장 멘토. 그는 경험보다 경험을, 지식보다 지혜를 나침반 삼아 아이들을 인도한다.

10대들의 물음표는 느낌표가 되어

10대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물음표가 들어 있다. 인간관계, 공부, 진로, 이성…….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다. 답을 찾고 싶지만 답을 알려 줄 이가 없다. 사실 정답이 있을 수도 없다. 그저 10대들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덧붙여 주는 어른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어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 노장 멘토(손봉호 교수)가 나섰다. 그는 10대들에게 균형 있고 올곧은 나침반이라 할 수 있을 만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문학, 신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을 공부하며 한국사회 격변기의 중심에 서 있었다. 또한 윤리 실

천에 관해 활발히 강연 활동을 하며 이 세대의 굳은 의식과 통념을 깨뜨리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다양한 사회 운동을 해 왔다.

그가 이 책을 통해 10대들 앞에 서서 방향을 제시한다. 아이들의 물음표를 열다섯 개로 분류하고,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노장의 지혜라는 게 이런 걸까? 이것저것을 다 고려하고, 만약의 경우를 포함하고, 혹시나 생길 우려들을 염려하며 이야기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진다. 그저 가르치기만 하는 어른들의 충고에 지친 아이들이 고민의 자리에 앉아 노장 멘토의 인생 편지 한 장씩을 들고 읽는다. 정답은 아니지만, 힘이 생긴다. 답은 여전히 없지만, 웃음이 떠오른다. 어느새 아이들의 머릿속을 점령하던 물음표가 하나둘 느낌표로 바뀐다. 물음표의 개수보다 열 배 더 많은 느낌표가 생겼다.

‘답 없는 너’에서 ‘괜찮은 너’로 만들어 준 나침반

책을 덮은 아이들이 일어나 다시 걸어간다. 그 걸음의 행진에도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또 예상할 수 없는 물음표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그저 답이 없어 풀 죽어 앉아 있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세상에 정답이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틀릴까 봐 불안했는데, 달라도 괜찮다는 걸 알았다.

노장 멘토가 건네 준 나침반이 참 고마워진다. 답이 없지만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 다시 하면 된다. 그래, 그거면 되는 거다.



꿈어, 꿈안, 꿈땀!

글 김윤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모두 잠언』

김중미 글

창비 | 2015 | 330p

『모두 잠언』은 김중미 작가의 강화도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다. 10여 년의 강화도 생활은 글의 리얼리티를 높이며 믿을 만한 작가라는 그의 이름에 무게를 더한다. ‘꿈어, 꿈안, 꿈땀’은 베트남 말로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한다’는 뜻이다.

김중미라는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의심 없이 작품을 선택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힘은 그가 글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많은 이의 사랑을 받은 『팽이부리말 아이들』은 자그마치 13년 동안의 만석동 생활 이후에야 탄생한 글이다. 13년 동안의 삶이 묻어나는 그의 작품이 밀도 높은 리얼리티를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모두 잠언』은 『팽이부리말 아이들』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는 작품이다. 작가는 강화도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뒤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곳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작가의 말’에서 말한다. 작가에게는 왜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아마도 작가는 그들의 삶이 한낱 이야기의 소재로 소비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가장 진실한 언어로 그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렸으리라. 그의 작품이 짧은 인상이나 스케치에 머물지 않은 이유이다.

강화도는 관광명소로 우리에게 친숙한 지역이다. 대개 강화도 방문은 체험학습이나 역사탐방 또는 엠티라는 형식을 띤 채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펜션 너머 사람의 이야기는 본의 아니게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모두 잠언』은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던 우리를, 그들 앞에 바짝 끌어다 앉혀 놓는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은 당혹스럽다. 타자로만 여겼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내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모두 잠언』은 꽤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FTA로 인한 농업의 쇠락, 구제역과 조류 독감으로 자행되는 가축 살처분과 그로 인한 축산농가의 몰락,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갈등, 가족의 결핍과 장애 등. 그것이 주는 상처와 아픔의 깊이를 독자가 눈치 채기도 전에 이야기는 이것에서 저것으로 흘러갔다 흘러온다. 그래서 자칫 중심이야기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의 흐름은 오히려 작가의 의도를 더욱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작품의 의도는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촌 청소년의 비전 없는 삶을 얘기하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 3인 유정은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할머니와 작은아버지 손에서 자란다. 게다가 언청이다. 작은아버지가 수술

을 해 주었지만 입술 위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 있다. 작은아버지는 친환경농업으로 농촌을 살리려는 젊은 농부이다. 하지만 거둬되는 외국과의 FTA로 상황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작은엄마는 베트남에서 시집온 어린 신부이다. 사촌동생인 용민은 종종 학교 친구들에게 다문화라고 놀림을 받는다. 그나마 작은아버지네는 안정적으로 부부생활을 해 나가는 편이지만 주변의 다문화 가정은 이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동네 친구인 광수네는 구제역으로 소를 두 번이나 살처분하면서 도산 위기에 빠져 있고, 소꿉친구인 지희네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등록금을 대느라고 엄마 아빠의 등골이 휘어진다. 농촌지역의 청소년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그들은 농어촌특례입학으로 그나마 대학이라는 간판을 얻지만 대부분 중도 포기하거나 졸업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농촌에 패배주의가 너무 깊어요. 마을 어른들이나 형님들이나 배운 거 없고, 기술 없어서 농사짓는다는 생각이 커요. 농사지어서 먹고살기가 힘드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 애들도 자부심이나 자신감 같은 것도 없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요.

— 본문 중에서

작품에서 그려지는 농촌의 현실은 르포만큼이나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매우 암울하다. 작가는 농촌이 처한 상황을 패배주의라고 진단하고 작은아버지의 말을 빌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지점에 이르면 현실과 문학의 경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작품의 의도는 현실을 고발하고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유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유정이 가진 결핍은 그동안 청소년소설의 주된 소재이자 주제로 작가들은 상투적으로 그것을 극대화하고 특화해 왔다. 하지만 『모두 잠언』에 나오는 유정은 누구보다도 씩씩하다. 유정이에겐 가족과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와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사촌동생들로 구성되는 유정네 가족은 공동체의 모습에 가깝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 삼각형에서의 가족은 각자의 욕망을 서로에게 투사하며 상처를 준다. 반면 유정네 가족은 상처 가득한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에 더 가깝다.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은 친구와 이웃에게로 확장되며 유정네는 살문리 마을의 아이로 존재한다. 유정이뿐만 아니라 살문리 마을에서 외파로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간다.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들이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는 이유이다. 공동체 속에서 유정네는 엄마 아빠 없이도, 언청이라는 장애를 안고도 밝고 씩씩하게 잘 자랐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생이 되어 첫 등교하는 날 유정네가 친구들에게 보낸 ‘모두 잠언!’(모두 고마워!)이라는 메시지는 자신을 길러 준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이기도 하다.

작품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유정네와 지희는 읍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광수는 농고에 진학했다. 광수 아버지는 밭을 내 다시 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FTA에 맞설 것이고, 작은엄마와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며 그렇게 살면 된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웃자란 가지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글 남지현 아동문학평론가

『변두리』

유은실 글

문학동네 | 2014 | 227p

너무 빨리 커 버린 아이

지난해 가을 개봉한 영화 ‘거인’의 주인공 영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을 나와 그룹홈에서 살아간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양부모와 어른들에게 인정받으려 인간힘을 쓰는 한편 용돈을 벌기 위해 줌도독질을 하고 친구를 배신한다. 그래도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영재를 미워할 수는 없었다. “사는 게 숨이 막혀요”라는 영화 포스터의 글귀처럼 영재는 절박했으니까. 그리고 절박한 현실에 처한 영재는 일찌감치 아이다운 모습을 잊어버렸다. 영화의 제목처럼 너무 빨리 자라서 ‘거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자란 ‘거인’은 수분이 많거나 햇빛이 부족해 웃자란 식물처럼 어느 순간 잎이 말라 버리거나 줄기가 힘없이 꺾일지도 모른다.

유은실의 장편소설 『변두리』에도 영재처럼 웃자라 버린 여자아이 ‘수원’이 나온다. 도살장을 끼고 있는 가난한 변두리 마을에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남루한 셋방살이에, 번듯하게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오히려 창피하기만 한 엄마 아빠를 둔 탓에 수원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잘 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부끄럽다. 그래서 남들 앞에선 말을 더듬는다.

하지만 수원은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살아간다. 아이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무거운 들통을 들고 선지를 사러 다니고 선지 가게 아줌마가 풀빵 사 먹으라고 깎아 준 100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차곡차곡 모아 둔다. 86 아시안게임 성화가 이 동네를 지나가서 도살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면 선지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다른 아이들처럼 마냥 들뜨지 않는다. 수원은 현실작동의 원리를 어른처럼, 아니 어른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아빠의 거짓 말에 속아서 도살장엔 초원이 있고 거기에서 송아지와 새끼 돼지가 뛰놀며 선지는 우유처럼 짜내는 것이라고 믿는 동생 수길이가 진실을 모르는 세계에 속해 있다면 수원은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세계로 이미 건너와 있다.

환상 속에서 행복한 아이

수원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들은 대개 남루하다. 가령 아버지가 철없고 무능하다는 것, 어머니의 고함소리가 크다는 것, 족발집 딸이 선생님에게 소고기 등심을 선물하면 백정 딸이라는 놀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진실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된 듯한 씁쓸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씁쓸한 진실을 알고 나서도 허무와 좌절에 빠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자라려면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원의 삶에서 아직 그 ‘또 다른 어떤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원은 스스로 환상 속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정구 오빠가 수원을 부르는 별명 ‘과수원’과 ‘수원’에 담긴 의미를 통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는 환상이다.

나는 오빠가 지어 준 별명이 마음에 들었다.

정구 오빠가 ‘수’를 살짝 올려서 ‘과아수위인’ 하고 길게 빼 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

정구 오빠는 내가 수원에 살아야 한다고 했다.

수원에는 멋진 성이 있고, 과수원도 엄청 많다고 그랬다. (……)

수원은 우리 동네 같은 변두리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이었다.

나는 수원성을 지나 동구 밖 과수원 길을 걷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되었다.

— 본문 중에서

또 하나는 이산가족 놀이를 통해 부끄러운 현재의 가족을 지우고 중산층의 이상적인 가족을 상상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환상 속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연기하는 수원의 행동을 통해 독자들은 수원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현실의 어머니와 정반대인 상상 속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며 ‘매기의 추억’을 부르는 장면을 수원이 연기할 때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는 장면(89쪽)은 아이가 얼마나 자기 자신과 현재의 가족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현실과 환상의 통합

퇴행적인 상상놀이를 통해서라도 현실의 결핍을 보충하려는 아이의 무의식적 행동만으로 웃자란 가지가 단단해질 수 있을까? 수원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 이야기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 다음의 장면에서 이야기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설핏 잠이 들었다가 노랫소리에 잠이 깼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나는 살그머니 실눈을 떴다. 엄마였다.

창으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우람한 엄마 실루엣을 보여 주었다. (……)

엄마가 갑자기 노래를 똑 그쳤다. 그러고는 내 뺨에 손을 댔다.

— 본문 중에서

이 장면에서 수원은 환상 속의 어머니와 현실의 어머니 사이의 접점을 찾고 그 상반된 이미지를 조금씩 통합해 간다. 이 장면 이후 어머니는 때로 수원에게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겨 주고 개운하고 따뜻한 미소도 지어 보인다(100쪽). 그 파스함으로 수원의 웃자란 내면이 뒤늦게라도 단단해질 것 같다. 이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

한 이러한 기대감은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커진다. 진실을 모르는 세계에 속해 있던 인물들—수원의 동생 수길, 상희 언니와 정호네 식구들이 삶의 씩씩한 진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서사 후반부에 이어지는데 수원은 그 순간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게 된다. 자신은 이미 알고 있지만 차마 먼저 말해 줄 수 없는 그 진실을 그들이 직시하도록 돕기 위해 수원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가는 엄마라면 확실히 든든하기 때문이다.



불상에 깃든 아름다움을 찾아서

글 백수린 소설가

『(야단법석) 부처님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글 | 이창섭 그림

나는책 | 2015 | 80p

서구 문화와 역사를 논하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어렵듯 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 1,600년 동안 이어진 불교문화를 떼어놓고 말할 수는 없다. 『야단법석 부처님 박물관』은 불교문화 속에서 탄생한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좋은 길잡이다.

오래전 학창시절에 배웠듯이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산의 곳곳에 수없이 많은 절과 탑, 불상이 숨어 있다. 미술책에서, 역사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 봤던 이름의 탑과 불상들, 혹은 누구나 한 번쯤 수학여행을 빙자해 우르르 몰려가 구경했던 불국사 같은 명소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절에 한 번 이상은 가 보았을 테지만 불행하게도, 산의 능선과 어우러져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태를 지니는 불교 건축물을 제대로 감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불교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써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일찍부터 앞장서 온 유홍준 교수의 말마따나 우리는 그저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절에 들어가 탑을 보거나, 박물관 전시실에 진열되어 있는 불상을 볼 때 우리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먹는 방법을 몰라 눈앞에 산해진미를 두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문화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 매력을 맛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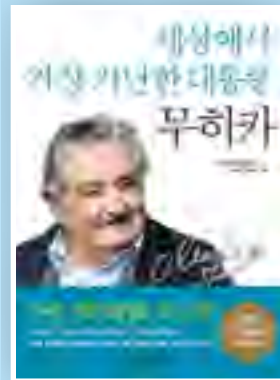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야단법석 부처님 박물관』의 출간은 뜻깊다. 본격적으로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린이 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미리 말해 둔다면 이 책은 종교 서적이 아니다.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책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진 독자라도 이 책을 읽어 나가는 데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성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와 중세의 훌륭한 명화들 앞에서 성서에 대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10주년 기념 전시,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불교 조각 대전에 맞춰 이 책을 펴낸 목적은 우리의 문화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여러 문화재와 미술품 중에서도 불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이 책은 총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파트인 <이렇게 불교는 시작되었어요>에서는 불교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배경지식을 설명하고, 두 번째 파트 <부처와 보살을 소개합니다>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석가모니 부처 외에 미륵불이나 아미타불 같은 부처들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여러 보살을 살펴본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부처님을 따릅니다>는 그 밖에 불교에 흡수된 우리나라 토착 신들을 다룬다.

부처와 보살, 그 외의 여러 신을 슈퍼히어로에 비유해 가며 어린 독자들이 낯선 불교문화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책은 사실 어른들이 읽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 책의 페이지마다 팔상도 같은 회화 작품이나, 시대별로, 나라별로 다른 불상의 모습들, 탑에 새겨진 조각들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실려 있다. 이토록 많고 다양한 불교 미술품을 한자리에서 상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들이 직접 글과 감수를 담당한 이 책의 내용은 8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글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풍성하고 꼼꼼하다.

예를 들어 이 책에는 부처가 깨달은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불상의 여러 가지 손 모양의 의미나 불상을 구성하는 광배, 화불, 육계, 나발, 백호, 삼도, 법의, 대좌, 수인 같은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다. 또 약사불과 석가모니불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부처와 보살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세조와 문수보살이 만났다는 설화들도 소개하며 흥미를 더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는 다 근엄하고 똑같아 보이기만 했던 불상들이지만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알고 바라보면 불상은 저마다 개성을 지닌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다. 그렇다고 이 책이 너무 딱딱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진과 글로만 채워졌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창섭 작가의 만화 같은 그림이 책을 한결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주니까 말이다.

책을 다 읽은 후, 반짝거리는 분홍색 배경 한쪽에 돌을 새겨 만든 불상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하드커버 표지를 다시 덮으면서 지금껏 불교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다.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래 문화와 역사의 토대를 이루었던 불교에 대해 이렇게까지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나 전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에는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함부로 훼손될 수 없는 역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만 참 다행이다. 이제라도 어린 독자들에게는 『야단법석 부처님 박물관』이 있으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 근교의 사찰이나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도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슈퍼히어로’들이 틀림없이 어린 독자들을 반겨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린이들에게 ‘호세 무히카’를 이야기하다

글 오선화 작가 · 아동청소년문학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미겔 앙헬 캄포도니코 원작 | 전지은 글 | 안지혜 그림
을파소 | 2015 | 157p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호세 무히카’. 스스로 검소한 삶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다. 그는 2015년 3월 1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여, 자신의 고향인 몬테비데오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우루과이 국민은 그의 삶을 존경하고 따른다. 여기까지가 호세 무히카에 대해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어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과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 책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는 어린이들에게 호세무히카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던 옛날이야기처럼

위인의 이야기는 유익하다. 그러나 지루하기 쉽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교훈을 심어 주고 싶어서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지루해진다. 이야기가 교훈의 전달로 전해지는 순간, 지루함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위인의 이야기다. 호세 무히카는 현존하는 인물이지만, 이미 어떤 위인보다 훨씬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싶은 어른들의 욕심이 반영됐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지루한가?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다. 위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재미있고 맛깔스럽게 버무려진 호세 무히카의 일화들을 듣고 있으면 할머니의 무릎에서 듣는 옛날이야기처럼 달콤하다. 위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멋지게 삶을 꾸려 나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들린다.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미안할 때가 많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자칫 어린이들이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을 만나 보면 그것이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참 고맙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서히 깨진다.

호세 무히카는 정치인이다. 억울한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와, 사람들을 모아 연설하고, 설득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후의 모습이 같았다.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강대국의 대표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언제나 당당했다.

이런 내용을 잘 담은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진다. 그리고 정치인이 원래 소박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감동이 가득하다

밤새 강풍이 휘몰아쳤던 어느 날 밤, 무히카는 얼른 이웃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웃집 지붕이 강풍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지붕 고치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다. 집주인은 혼자 고치겠다고 했지만, 무히카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며 일손을 거들었다. 그러던 중, 슬레이트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아와 무히카의 얼굴을 쳤다.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칼로 그은 듯한 상처가 생겼다. 이웃집 주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무히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괜찮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느낄 수 있듯이, 호세 무히카의 삶은 감동적이다. 이 책은 그런 감동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잘 담아 놓았다. 특별한 지도자의 특별한 리더십, 베풀고 나누는 성품, 먼저 손을 내미는 겸손함 등……. 감동이 가득한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진다.



우리의 보물, 습지

글 백수린 소설가

『(연우와 함께하는) 습지 이야기』

박선미 외 글 | 임종길 그림

리젼 | 2015 | 75p

‘자연의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습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존재다. 습지라고 하면 물이 고여 있어 습하고 축축한 땅을 떠올리기 쉽지만 습지는 단지 그런 공간이 아니다.

『습지 이야기』는 주인공 연우의 눈높이에 맞춰 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생태계에 꼭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책이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아주 컸다. 마른하늘을 보며 괴로워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연일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대강 사업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녹조 현상도 올해는 더욱 악화되었다. 올여름, 한강 일부 구간에 조류경보까지 발령되기에 이르렀다는 소식과 함께 짙은 초록빛으로 변한 물을 투명한 컵에 가득 담은 사진이 인터넷상에 떠돌았다. 가뭄이 녹조를 부추긴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점점 악화되는 녹조 현상이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 심각한 가뭄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상기후의 한 현상으로 본다면, 결국 이 모든 불행을 초래한 원인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물 자체를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가에서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물이 없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물에 대해서 유난히 많은 생각이 든 한 해여서 그럴까, ‘습지’라는 특수한 장소에 초점을 맞춰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나갈 것 같은 『습지 이야기』를 보았을 때, 나는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궁금증이 일었다.

‘연우와 함께하는’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습지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 정보를 나열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연우’라는 주인공 어린이가 가족과 주말농장에 갔다가 작은 물웅덩이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 있다. “연녹색 이끼가 주변을 감싸고 있”고 “바닥이 흰회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고여 있”는 이 웅덩이를 발견한 연우는 그곳을 자신의 비밀 공간으로 삼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 비밀 공간인 물웅덩이가 연우가 처음으로 만난 ‘습지’인 셈이다. 연우는 그곳에서 도롱뇽의 알을 발견하고 작은 새가 웅

덩이에서 목욕을 하거나 나비가 물을 먹고 가는 모습 등 신기한 것들을 관찰하며 습지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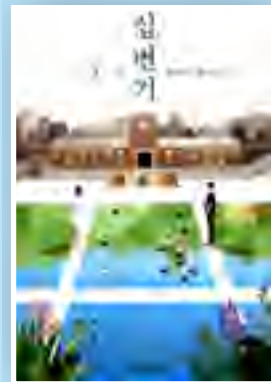
결국 물웅덩이를 관찰하며 느낀 즐거움을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워진 연우는 자신의 비밀 공간에 대해 부모님에게 털어놓는다. 이후의 이야기는 연우가 차차 아빠를 통해서 ‘습지’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 깨우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를테면 연우는 가족과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습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습지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명한 습지들은 어떤 곳인지 등에 대해서 배운다. 하천 습지, 갯벌, 늪, 논 같은 우리나라의 습지부터 지형과 기후가 달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습지인 오아시스나 맹그로브 숲 습지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는 아빠와 아들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는 술술 읽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알지 않다. 다양한 정보를 알차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습지 중 하나인 갯벌을 놓고 보면, 세계 각지의 갯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갯벌에 사는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썰 갯벌이나 혼합 갯벌, 모래 갯벌 같은 분류법을 알아본다. 또 나아가 염습지와 염생식물은 그냥 습지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가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간중간에 따로 설명되어 있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습지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다.

또 이 책의 저자는 6,200억 원이나 들인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였으나 끔찍한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말았던 시화호 문제나 국제 습지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환경을 어떻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 준다.

내용도 알차지만 사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내 눈길을 끈 것은 아름다운 그림들이었다.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 있어 다소 딱딱해질 수 있는 책이지만 자연과 사람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온 화가 겸 미술교사가 그린 그림들이 있어 연우와 함께 떠나는 습지 여행길이 더욱 즐거워진다. 이 책에는 아름다운 색감과 선의 삽화들과 도감처럼 사실적인 다양한 습지 생물들의 그림, 우포늪이나 멸종 위기에 놓인 삶의 사진 등 다양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있다. 이 같은 다채로운 볼거리 덕택에 어린 독자들이 지루할 틈 없이 연우와 아빠의 여행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연우와 아빠가 도심에 작은 연못을 만드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모기와 개구리, 연꽃과 새가 모두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연못을 꿈꾸며 신나 하는 연우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 독자들도 그런 연우의 모습을 보면서 습지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습지를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발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아 무리하게 개발하면 결국 손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는 습지를 중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 중에 일부니까 말이다.



사랑하며 돕는 것

글 남지현 아동문학평론가

『심반기』

해이수 글

문학과지성사 | 2015 | 184p

인생 서사의 조력자 모티프

러시아의 민속학자이자 예술 이론가인 블라디미르 프로프(1985~1970)는 민담의 구조를 분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민담의 등장인물을 그 기능에 따라 주인공, 가짜 주인공, 적, 증여자, 조력자, 공주와 왕, 파견자, 추적자로 나누었다. 그의 작업은 이후 서사의 구조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민담이 오늘날의 수많은 이야기에 영감을 줌으로써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듯 프로프의 이론 역시 이야기의 개별성을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데 유용한 관점이 된다. 가령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는 영웅신화적 모티프는 오늘날의 서사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문학의 서사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서사에서도 이러한 조력자 모티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해이수의 장편소설 『심반기』에서는 이러한 조력자가 서사의 주인공만큼이나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설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사랑은 다행히 짝사랑이 아니어서 앞표지의 그림처럼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어디까지나 서술자 ‘정훈’의 관점에서 투시된 원근법처럼, 정훈에게 ‘연희’라는 대상이 갖는 의미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그녀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조력자이다. 1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시간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정훈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긴 연희는 어떤 조력자였을까?

사랑하며 돕는 사람을 만나는 일

사춘기의 왕성한 에너지를 바둑에 대한 열정으로 전환해 온 중 3 소년 정훈은 매일 수업이 끝나면 기원으로 달려가 기보를 읽고 포석과 정석을 외우는 학구파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구적인 소양이 실전에서 승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기력은 정체되어 있다. 정훈의 반대편에는 그의 바둑을 ‘화초 바둑’이라 놀리며 신경을 자극하는 라이벌 ‘장사장’이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다. 닿을 듯 말 듯 애를 태우면서도 아무리 손을 뻗어도 만질 수 없는 물건을 꺼내듯 답답한 상태에 놓인 정훈에게는 한 칸 딛고 올라설 작은 사다리가 필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뛰어넘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해 주는 인생의 사다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시골에서 전학 온 ‘연희’이다.

연희의 어머니는 어릴 때 연희를 두고 멀리 떠났고 바둑 사범이던 아버지마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연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을 지녔다. 처음 기원에 온 날부터 상대의 숨통을 끊는 대국을 펼치고 이후 정훈과의 '십번기'에서도 내리 5연승을 기록할 정도의 실력자이지만 정훈과 달리 정석과 격언을 신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그것을 위배하면서 자신만의 바둑을 둔다. 그런 연희는 정훈에게 장 사장처럼 이기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자신을 주눅 들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다. 적어도 정훈이 연희를 이겨야 하는 상대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말이다.

그러나 연희와 정훈은 바둑에 대한 필답을 나누면서 단순히 이겨야 할 적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답'을 나누며 소통하는 상대가 된다. 그렇긴 해도 연희는 정훈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언제나 몇 걸음 앞서 이미 깨닫고 실천하는 존재이다. 바둑을 오래 두려면 끝까지 즐겨야 한다는 것도, 진정한 상수(上手)가 되기 위해서는 정석을 잊어야 한다는 것도, 바둑이 검은 돌과 흰 돌을 주고받듯 인생도 어둠과 밝음, 기쁨과 슬픔으로 짜여 있으며, 그래서 늘 휘방꾼과 싸우며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 연희가 먼저 깨닫고 알려 준 것들이다. 그리고 그녀는 정훈에게 '어떤 첫 순간들을 함께해 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라는 사실도 알려 준다.

“훈아, 사실 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건 처음이야. 그리고 그런 경양식 집에서 돈가스를 먹어 본 것도 처음이야. 정말 촌년이지?”

“아니, 괜찮아. 재밌었다면 다행이지.”

“훈아, 그 처음들을 함께해 줘서 고마워.”

고맙다는 말을 들었지만 쓸쓸했다.

우리가 더 많은 처음을 함께할 수는 없을까. (……)

나는 그 처음을 연희와 함께하고 싶었다.

— 본문 중에서

그러나 연희는 정훈과 더 많은 처음을 함께하지 못한 채 엄마가 계신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들은 십번기의 제10국을 남겨 둔 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적어도 정훈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연희와의 제10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 우선 그는 이전의 망설임과 주저함을 버리고 장 사장에게 도전한다. 어떤 비아냥거림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국을 청하고 이김으로써 장 사장이라는 장애물 하나를 넘어선다. 연희가 남긴 말들은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에서 인생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게 해 준다. 이러한 긴 여운은 정훈과 연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연희는 정훈을 사랑하면서 그를 도왔다. 그래서 정훈은 아프지 않게 바둑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진실들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다. 무수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력자 모티프들 가운데에서도 이 작품이 애뜻한 것은 그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돕는 만남을 보여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한 조력자의 그림자

사랑만큼 강렬한 것이 어디 흔할까. 그래서 연희의 사랑과 연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정훈의 깨달음과 발돋움

은 그만큼 절실하고 역동적으로 다가온다. 그에 비하면 연희의 존재는 첫 등장부터 이미 성숙한 상태로 시종여일 완성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서술자인 정훈의 시점에서 그려진 연희는 그래서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절대화된 느낌이다. 정훈의 사춘기를 담아내는 서사에서는 아마도 연희처럼 절대적인 인물의 지지와 사랑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일까? 하지만 이 소설의 독서를 방해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수많은 바둑 용어의 뜻을 찾기 위해 멈춰 선 순간들보다 소년의 시점에서 다소 이상화된 듯 보이는 단조로운 여성 캐릭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고개를 갇겨버린 순간들이었다. 아무리 강한 사랑의 발로라 하더라도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지나치게 절대시되는 것은 서사의 무게중심을 옮겨 놓는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대칭성 때문일까? 두 사람이 15년 만에 만나는 마지막 장을 나는 이 소설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읽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연희를 조금 더 복잡하게 이해하고 싶다.



‘싸우다’와 ‘강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

글 김윤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싸우는 소년』

오문세 글
문학동네 | 2015 | 255p

‘싸우다’는 말은 보통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싸우는 대상에 따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친구와 싸우다’, ‘고난과 싸우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말이다.

오문세의 첫 청소년소설은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그치지 않는 비』였다. 젊은 작가의 첫 소설은 잘 다듬어진 문장과 안정적인 플롯을 따라 전개되는 무난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독자에게 그다지 깊은 인상을 남기는 못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나온 작품이 『싸우는 소년』이다. 굳이 공을 들였다고 표현한 것은 이번 작품에서 작가로서의 독심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싸우는 소년』의 초반부를 읽을 때만 해도 작품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동안 청소년소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주된 왕따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처럼 읽혔기 때문이다. 왕따 현상은 번번이 청소년소설로 소환되어 나오지만 정작 청소년에게 공감도 얻지 못하고, 위로도 주지 못한 채 작가의 빈곤한 철학만 드러내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싸우는 소년』은 그런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 버린다. 작가는 청소년을 왕따의 피해자 자리에 세워 놓고 어설픈 동정을 베풀거나 가해자로 지목하여 단죄하지 않는다. 또 방관자로서의 죄책감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질문한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싸우다’와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작가는 이 질문을 끝까지 독심 있게 밀고 나간다.

『싸우는 소년』의 화자는 ‘나’다.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는다. 그동안 ‘나’는 오로지 왕따를 당하다가 죽음으로 내몰린 서찬희를 대신해 복수할 것을 결심한다. 마침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권투 선수인 산이 누나와 주 코치를 알게 되면서 ‘나’는 권투를 배우기 시작한다. ‘나’가 꽤 주고 싶은 아이는 서찬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던 안승범과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던 강준혁이다. ‘나’는 태권도 선수라는 힘의 우위를 내세워 약한 서찬희를 괴롭힌 안승범에게는 똑같이 힘으로 대적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런 결심에 대해 반장인 양아영은 싸우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옳으면서도 틀리다고 생각한다. “싸움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른의 논리”(213쪽)이며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서찬희와 자신 같은 아이들은 “스스로 주먹을 쥐고 일어서지 않으면 말도 안되는 것들을 향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서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213쪽)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싸우는 것’

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나’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청소년의 학교 폭력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자리에 서 있는,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세상을 향한다. 이즈음에서 ‘나’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에서 벗어나 불공평하게 차별받는 이들의 싸움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작품에서 말하는 싸움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해석될 뿐이기에 그 정당성을 승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작가가 진짜 말하고 싶은 ‘싸움’은 무엇인가?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나’는 서찬희에 대한 안승범의 폭력 앞에 침묵한 방관자들, 특히 강준혁을 매우 증오한다. 서찬희와 가장 친하게 지낸 강준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안승범의 폭력을 승인한다. ‘나’는 강준혁을 안승범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안승범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자신이 강준혁임을 기억한다. 강준혁은 힘 앞에서 비굴했던 자신도, 서찬희의 죽음도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은 생각에 트럭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다. ‘나’가 강준혁이라는 사실은 이야기 초반에 깔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중요한 거야”(28쪽)라는 복선을 회수하는 동시에 ‘싸움’의 의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이러한 사실은 주변인물의 서사와 맞물려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한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잘 보살펴 주던 수간호사다. 그녀는 당시만 해도 막내라서 선배들이 가하는 온갖 모멸을 참아 내야 했다. 그런데 퇴원한 뒤 ‘나’가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자신 밑으로 들어온 간호사에게 자신이 당한 폭력 이상을 행사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은 양아영이다. ‘나’는 양아영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재수 없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정작 양아영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양아영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스스로를 강한 쪽, 가해자의 입장에 대입시켜 놓고 상황을 그려 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건지도 모른다”(104쪽)는 말과 겹치며, 우리가 벌여야 하는 싸움의 실체에 접근하게 된다.

『싸우는 소년』에서의 ‘싸우다’는 행위는 ‘나’와 안승범의 대결로 형상화되는 물리적 싸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가 강준혁이라는 사실과 주변인물의 서사가 촘촘히 얹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은 ‘폭력에 익숙해지는 나’,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침묵하는 나’임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품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강해지라고 말한다. ‘강하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다. 이제 ‘싸움’은 때로는 수간호사이기도 하고 강준혁이기도 한 우리의 싸움으로 환원된다.

『싸우는 소년』에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의 자리에 놓인다. 작가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의 풍경을, 조금 더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 줄 것”(255쪽)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역사 또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왔음을 안다. 하지만 아이들을 싸우는 사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어른으로서 염치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자꾸만 든다.



무역으로 가까워지는 세계

글 백수린 소설가

『어린이를 위한 무역의 모든 것』

서지원 글 | 끌레몽 그림

풀과바람 | 2015 | 142p

언젠가부터 하루라도 경제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거나 ‘경제가 어렵다’는 식의 문장들을 연일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소 위협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렇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있나’ 싶어지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우리 삶에서 경제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게까지 한다. 경제가 뭐기에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일까. 『어린이를 위한 무역의 모든 것』은 알기 어려운 경제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갖기 위해서는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만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 같은 행위를 경제활동이라 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경제라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 만에 날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중국이나 태국에서 만들었고,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은 아프리카의 농민들이 재배한 카카오로 만들었다. 한국 사람이 생산한 휴대전화를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경제활동이 이제 더는 한 사회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사고파는 경제적 행위를 무역이라고 정의한다면 무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셈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껏 쓴 경제 책이 출간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분홍색 표지 속 둥그런 지구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반기는 『어린이를 위한 무역의 모든 것』을 집어 들면서 경제라는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어린이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자는 어떻게 접근했을까 궁금한 마음이 일었다. 정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썼을까,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은 책을 읽는 동안 말끔하게 사라졌다.

단순히 말하면 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는 것처럼 ‘무역’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경제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곳곳에는 무역에 관해 아이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이 책은 많은 경제 관련 입문서가 그렇듯 무역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

면 저자는 바나나를 즐겨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동남아와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든지, K-Pop 스타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같이 문화를 수출하는 것 역시 무역의 한 가지 사례라는 식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수출과 수입, 가격 경쟁력, 환율 등 무역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책의 서두가 무역 전반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는 우리나라 상황에 좀 더 집중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할애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오늘날 우리 무역의 지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자는 우리 무역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해 주어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만약 이 책이 그저 무역의 기본 개념과 우리나라 무역의 실태와 역사만 다루는 데 그쳤다고 하더라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아이들의 수준을 배려하여 꽤 잘 쓴 경제 입문서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저자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나라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겨나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자는 FTA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말해 주면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 분야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또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 나라 간의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과 어린이들이 즐겨 가지고 노는 축구공 등을 생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공정한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 준다.

흥미롭게도, 한국인 저자 서지원의 글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는 밝고 명랑한 그림을 그린 이는 프랑스인인 끌레몽이다. 이 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원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도록 준비’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경쟁과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뻗어 나갈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다 보면 종종 두려워진다. 경제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이 책을 읽은 어린 독자들이 경제에 대해 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커 가기를 희망해 본다.



멈출 수 없는 역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글 오선화 작가 · 아동청소년문학가

『역사 아는 침대가 세상을 바꾼다』

김상훈 글

카시오페아 | 2015 | 327p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알아야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말이다. 굳이 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역사는 중요하다. 우리 민족의 지나온 일들을 알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세대들은 역사보다 학원이, 민족의 과거보다 대학입시가 중요하다. 우리 세대들은 6.25 한국전쟁이 무엇인지, 언제 일어났는지도 잘 모른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책이 여기에 있다.

할머니 무릎에서 옛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오, 놀라운 변화야. 정말로 일본이 개과천선해서 문화적으로 한국을 통치하려는 것일까? 천만에!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모두 거짓이란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 말로만 문화통치야! 그저 입에 발린 미사여구지. 실제로는 ‘회유통치’였어. 본질을 볼까? 첫째,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된 것은 맞아. 그 대신 경찰 수는 두 배로 늘었고, 더 악독한 고등경찰제도가 새로 시행됐어.

—(임시정부와 청산리 전투) 중에서

이 책은 분명히 딱딱한 역사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할머니 무릎에서 옛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다. 그 느낌은 어디서 올까? 위에 인용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느낌은 이 책이 말하는 방식에서 온다.

나는 아버지의 할머니를 ‘왕할머니’라고 불렀다. 나는 왕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했다. 왕할머니는 내게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재미있었다. 할머니는 무릎에 나를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건넸다. 내가 물으면 다시 쉽게 풀어 설명했고, 내가 궁금해할 만한 단어가 나오면 내가 묻기도 전에 “그게 궁금하지?”라고 묻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눈높이 교육’이었다.

이 책은 딱딱한 문어체에서 벗어나 구어체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것도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 점이 왕할머니의 ‘눈높이 교육’과 닮았다. 그리고 또 하나, 닮은 점이 있다. 지루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드는 재미가 있고, 더불어 따스한 감동과 교훈이 있다. 왕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도, 이 책이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도 그렇다.

사건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흥미롭다

역사는 인물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시도도 하지 않고 역사를 공부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물과 사건, 배경을 골고루 다뤄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흥미롭지 않다. 이 책은 고조선의 탄생부터 IMF 외환위기까지 한국사를 뒤흔든 35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었다. 인물과 배경을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건에 녹여서 서술했다. 사건은 ‘이야기’다. 이야기는 쉽게 잊히지 않으며, 흥미를 더해 준다. 이 책 속 사건은 이야기로 다가와 흥미로우며, 하나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흥미를 잇는다.

무엇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드라마나 영화, 혹은 교과서에서 보았던, 그래서 익숙한 사건들이다. 그런 사건들이 등장인물과 배경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어느새 독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역사 아는 침대가 세상을 바꾼다’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되고, 책이 들려주었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영화의 장면으로 펼쳐진다.

재미와 지식을 한 번에

할머니 무릎에서 옛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다. 사건 중심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도 책의 재미에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책의 중간중간에 웹툰 형식의 그림이 등장해 재미를 더한다. 재미뿐만 아니다. 역사를 공부하며 축적해야 할 지식도 놓치지 않는다. 중요한 사건들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과 의의를 정리해 주고, 초중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시대별 역사 비중과 구성을 맞추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다양한 견해를 덧붙여서 스스로 역사관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재미와 지식을 한 번에 전해 주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세대들이 역사를 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란다.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눈’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과거를 알아야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통찰력의 기초는 과거를 앞에서 시작된다.



SF, 장르문학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글 김윤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옆집의 영희 씨』

정소연 글

창비 | 2015 | 248p

SF는 ‘Science Fiction’의 약자로 ‘과학소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지만 SF를 ‘공상과학소설’로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공상’이라는 말이 가진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는 곧 SF라는 장르문학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추리, 무협, 판타지, 공포, SF와 같은 장르문학은 장르 고유의 코드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르적 관습은 대중의 흥미와 기호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장르문학은 본격문학과 구분되어 왔다. 장르문학이 가진 대중성은 그 특유의 오락성과 결부되어 현실도피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실정은 아동청소년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동과 청소년을 독자로 하는 아동청소년문학은 필연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성장의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장르문학에 대한 도전은 유난히 더디게 진척되어 왔으며, 문학적 수준 역시 늘 도마 위에 오르기 마련이었다.

『옆집의 영희 씨』는 ‘당신의 지성과 감성 모두를 자극할 매력적인 SF’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간된 SF다. SF를 대하는 대중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유치하거나 어렵거나. 그동안 아동청소년문학의 SF 작품은 SF의 장르 문법을 따르기보다는 알레고리로 작용하며 현실 비판적인 내용에 더욱 충실했었다. 그러다 보니 SF의 외피만 입었을 뿐 서사는 여전히 도식적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창작자들은 이제 작품 속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서사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장황하게 늘어놓다 보면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는 그만 떨어지고 만다. SF에 대한 담론이 미미하게나 일어나고 일군의 작가들도 형성되었으나 정작 SF 수작을 만나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문단 상황에서 만난 『옆집의 영희 씨』는 SF 장르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이 세계의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문학적 성취를 일궈 내고 있다.

『옆집의 영희 씨』는 모두 15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종횡무진하며 펼쳐지는 기묘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단편이라는 형식적 완성도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우주개발과 우주여행, 평행우주, 외계인, 사이보그, 장기 복제 등 너무나도 익숙한 SF적 요소들은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낯설게 변주되고 있다. 작가는 첫 번째로 실린 단편 「디저트」에서 앞으로 자신이 펼쳐 낼 이야기가 매우 낯선 이야기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신이 만나는 남자친구들을 디저트로 표현하는 독특한 감성은 기묘한 SF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두 번째 단편인 「우주류」에서는 “세상을 버티는 줄은 하나가 아니다”(24쪽)라는 말로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결국 ‘이 세계’의 이야기임을 드러낸다. 정확히 말하면 『옆집의 영희 씨』는 ‘이 세계’에서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그’들, 어디에선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들의 이야기이다.

각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자료 수집을 위하여 평행우주를 방문하는 직업을 가진 리즈(『앨리스와의 티타임』), 자신과 어긋난 우주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홍지영(『버거스튜디오』), 지구인과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지구인 사이에 몰래 숨어 살아가는 페이아인 지윤(『입적』), 원인 모를 대폭발이 일어난 지구를 탈출해 화성인에게 입양되어 화성인으로 살아가는 나(『귀가』), 지구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외계인인 영희 씨(『옆집의 영희 씨』),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우주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SF에서 이러한 인물들은 사실 매우 익숙하다. 그런데도 각각의 이야기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이방인인 그들을 1인칭 화자로 내세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독자는 대상화되었던 ‘그’가 ‘나’와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는 미래의 시공간으로 시야를 한껏 확장한 뒤, 그 확장된 시야로 삶의 다양한 결을 들여다보도록 섬세한 문체로 안내한다.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시야를 바탕으로 이 세계의 문제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SF의 본령이다. 이 때문에 『옆집의 영희 씨』에 수록된 수많은 SF 작품 속에 동성애자가 등장하는 「마산 앞바다」와 「처음이 아니기를」이 놓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와 ‘그’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옆집의 영희 씨』에서 관찰자와 대상으로 설정된 지구인 수정과 외계인 영희 씨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수정은 끝내 영희 씨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헤어진다. 그러면 ‘나’와 ‘그’라는 존재론적 차이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입적』에서 페이아인 지윤은 삼백 년 동안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는 질문에 “배웠어요”(62쪽)라고 대답한다. 매우 명쾌한 대답이다. 우주에서,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버티는 줄이 하나가 아님을 아는 것, 즉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옆집의 영희 씨』는 SF의 문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해명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끊임없이 욕망한다. 다른 세계를 통해 이 세계를 통찰하는 SF가 매력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SF는 과학기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와 탐색, 즉 철학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또 이것은 SF가 대중성에 기댄 장르문학이라는 편견을 넘어서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스스로 또 다 함께 지키는 안전

글 백수린 소설가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

이미현 글 | 이민선, 이효실 그림

주니어골든벨 | 2015 | 200p

언젠가부터 신문과 뉴스에서 연일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교통사고나 식중독 같은 사건들은 물론 건물의 벽이 붕괴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 역시, 슬픈 일이지만 더는 낯선 일이 아니다.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은 이렇듯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로부터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가끔 거리를 걷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얼마 전까지는 틀림없이 별 게 없어 보였던 공사장이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텅 빈 땅 위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필요한 적정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원래 있던 건물을 부수고, 기반을 다지고, 철근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시간 말이다. 건물 하나를 짓는 데 소요되어야만 할 것 같은 시간을 헤아려 보면 아찔해질 때가 많다. 터무니없이 빨리 지은 건물이 어처구니없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야외공연장의 환풍구 탑이나 아파트의 옹벽이 붕괴하는 것 같은 인재부터 시작해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는 다양하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늘 다채로운 위험에 직면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은 어린이라고 피해 갈 수 없는 여러 안전사고를 아이들 스스로 예방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추천 및 감수 마크가 우측 상단에 찍혀 있고 전체적으로 노란색이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표지를 열어 보면 이 책에 실려 있는 25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책은 동화를 읽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25개의 안전 규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식품안전 같은 일상 속의 안전은 물론 유괴와 실종, 성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범죄,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까지도 다루고 있다. 요컨대 이 책은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사고를 총망라해, 다채로운 영역의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집 안에서 발생하는 손가락 끼임 사고나, 책장에 매달려 올라가다 켜는 사고, 물놀이하다 당하는 사고 등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재미있게 재구성한 동화를 직접 읽으면서 아이들은 일상에서 실제로 자주 겪는 사고들이 왜 위험한지 공감하고, 각 동화의 끝에 나와 있는 안전 퀴즈를 풀면

서 스스로 배운 규칙을 점검할 수 있다. 안전 규칙과 예방 및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책을 곁에 두고 참조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은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힘없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당하게 되는 범죄들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언뜻 생각하면 안전사고가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이 책은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나의 몸과 다른 이의 몸이 모두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

이 책에서 교통안전을 다루는 항목 아래에는 ‘기차, 배, 비행기를 탈 때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기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배가 침몰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에 나와야 한다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읽으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난봄 우리 모두가 실시간으로 침몰하는 광경을 무기력하게 목격해야만 했던 세월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그 꽃다운 아이들이 이런 안전 수칙을 알았다면 좀 더 많이 구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아쉬움. 그러나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던 그 배에서 끝내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를 부족했던 안전교육 탓으로만 단순히 돌릴 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안다. 단 한 명도 구조할 수 없었던 데는 너무 많은 원인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수학여행을 가는 어린 고등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을 태운 그 선박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에 수입할 수 있었던, 이미 일본에서 18년이나 운행된 낡은 배였다는 점이다. 배가 침몰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로 뛰어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몰할 배를 애초에 수입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더 빨리, 더 많이’라는 저주에 걸린 채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을 짓고, 다 낡아 빠진 배를 모르는 척 바다에 띄우는 한 안전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월호는 그저 우리 대신 침몰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획된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을 읽으며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 밑에 가라앉은 아이들과, 살아남은 것이 고통스러운 생존 학생들, 그리고 그들만큼 고통스러운 부모와 형제들을 떠올린다. 배가 가라앉은 지는 아직 채 일 년도 되지 않았고,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험이 보인다! 부릅뜨고 안전』은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 몫의 숙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할 수 있게 해 준다.



모두 다 우리 이웃

글 백수린 소설가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채인선 글 | 김우선 그림

미세기 | 2015 | 43p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충간소음 갈등’이 최근 들어 방화나 살인 같은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충간소음’에서 촉발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우리가 이웃끼리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웃’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해 주는 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여러 채의 알록달록한 집이 그려져 있다. 각각의 집에는, 집의 모양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고 있다. 표지의 한가운데는 노란 리본을 매단 단발머리의 아이와 두더지가 반갑게 독자를 맞이한다. 『반갑다, 논리아, 『기운 센 발, 『뜨고 지고! : 자연』 등을 통해 우리에게 친근한 김우선의 그림은 무엇인가 아기가 기하고 귀여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는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이웃’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5년 57.5%였던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인구 비율은 2013년 62.6%까지 증가했고 앞으로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을 일컫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과거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았던 시기보다 이웃과 이웃 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이웃 간의 물리적 거리가 줄어든 반면 심리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대사회에서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윗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상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보면 이웃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간소음 갈등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웃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웃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열쇠는 바로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일 게다. 오늘날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과 달리 매우 다양해졌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웃을 보여 줌으로써 편견을 없애고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알려 준다.

이렇게든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에서는 식구가 많은 가족도 식구가 적은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

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단순히 핵가족과 대가족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조손가정, 국제결혼가정 나아가 대안가정에 이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보편적 형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가족의 형태들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제시하여 아이들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저자의 세심함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또 부모님들의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자는 어떤 부모님은 낮에 회사에 다니고 어떤 부모님은 밤에 일하고, 어떤 부모님은 새벽에 일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든 모든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는 이런 식으로 이웃들의 다양한 차이점을 다루고 있다. 어떤 가족은 교회에 다니지만 절에 가는 가족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종교생활을 하지 않기도 한다. 또 어떤 가족은 채식주의자이고, 어떤 가족은 반려동물을 키운다. 각각의 집에서 지키는 규칙 같은 것도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는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아이들에게 일찍 사 주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사 주지 않기도 한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정도도 다르다. 이처럼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에는 책을 보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어린 독자들이 어째서 이웃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이웃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다른 점들이 불편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점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이웃은 갖고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역시 다른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아는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이웃의 소중한 이웃 역시 우리의 이웃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는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부제는 ‘더 큰 가족, 이웃을 만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웃,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사실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저자의 시선인 것 같다. 현재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부족이 막대한 악재가 되고 있다. 이 책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독자들에게 그들 곁의 사람들을 무관심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퍼즐 맞추기로서의 추리소설 읽기

글 남지현 아동문학평론가

『정글북 사건의 재구성』

정은숙 글

사계절 | 2014 | 270p

2015년 새해맞이 대청소를 하던 중 창고에 묵혀 두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사 두었던 500피스짜리 명화 지그소 퍼즐(jigsaw puzzle)을 발견했다. 며칠간의 대청소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자 뚜껑에 흐릿하게 인쇄된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면서 모양을 짐작할 만한 퍼즐판도 없이 거실 바닥에 4절 도화지를 깔고 500개의 퍼즐을 맞추는 것이었다. 얼마나 걸렸을까? 세 식구가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사나흘을 매달린 후에야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500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미묘하게 다른 각각의 노란색을 구별해야 했고 비록 원작의 노란색과는 다를 것이지만 이토록 다양한 노랑을 만들어 해바라기를 그렸을 고흐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마침내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고 완성된 그림을 보자 절로 탄성이 나왔고 박수를 쳤다. 그 순간의 기쁨은 새해를 맞을 때마다 떠오를 것이다.

30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추리소설을 읽는 재미도 이런 퍼즐 맞추기 작업과 비슷하지 않을까? 범인의 실체 혹은 사건의 발단을 모른 채 주어지는 정보에 의존하여 이야기의 전체상을 짐작해 가는 과정은 주어진 퍼즐 조각들이 전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연결 고리를 찾아 나가는 작업과 닮아 있다. 한국의 현대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이러한 추리 장르를 꾸준히 시도해 온 정은숙 작가의 최근 작 『정글북 사건의 재구성』은 모두 30개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소설이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고 각 장의 제목은 모두 아이들의 이름이다. 1부는 연수, 소정, 기준, 도엽의 이야기로 2부는 율미, 지유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물마다 5개 장이 제시되어 총 30개 장을 이룬다. 소설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P읍에 있는 작은 중학교에서 주말에 발생한 화재이다. 정글북(정의로운 글쟁이들의 북소리) 동아리실에 폭죽이 날아들어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큰 불로 이어졌으며 얼마 전 다리를 다쳐 이동이 어려웠던 경하가 사망했다. 1부에서는 사건 당시 동아리실 밖으로 나갔던 율미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연수, 소정, 기준, 도엽)이 사건 담당 형사인 엄 형사를 만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과 아이들의 회상을 담은 각각의 장이 교차하면서 사건의 전체 상이 조금씩 드러난다.

엄 형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폭죽을 동아리실로 던져 한 친구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범인을 찾고자 하는데

그는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던 율미에게 가장 큰 의문을 품는다. 마침 율미와 소정은 동아리 축제 때 전시할 시를 두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소정의 시가 최종 선정되어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점도 율미의 혐의를 그럴듯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이들은 엄 형사처럼 율미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갈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거나 동아리 아이들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율미와 갈등을 빚었던 소정도 “감정이 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율미가 나간 거예요”라고 답한다.

이처럼 엄 형사의 의혹과 아이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범인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긴장이 유지된다. 긴장을 유지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아이들이 받은 편지이다.

우리 어른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 만나야 하지 않을까
수능이 끝난 토요일 오후 3시, 기림중학교 은행나무 앞.

— 본문 중에서

편지의 발신자는 누군지 알 수 없고 단지 ‘나’라고만 쓰여 있다. ‘나’가 궁금해 정글북 동아리 카페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경하의 아이디로 이러한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나’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참고인 조사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간파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엄 형사의 캐릭터 또한 이 소설이 1부 내내 추리물로서의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로 쓰인다.

이제 2부에서는 그동안 매설해 놓은 이러한 장치들의 뇌관을 조심스레 해체하면서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유력한 용의자였던 율미의 이야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2부에서 율미뿐 아니라 지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범인은 율미가 아니라 지유인가? 2부의 퍼즐 조각을 확인하다 보면 금세 범인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2부가 별다른 긴장감 없이 그동안 끝내 보여 주지 않았던 이 두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2부에서는 그동안 좀처럼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던 율미의 속내를 확인할 뿐 아니라 율미가 사건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긴장도 형성된다. 이처럼 이 소설은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를 각각 5개 퍼즐 조각에 나눈 뒤 그것을 1부에서는 어떠한 일관성 없이 불규칙적으로 나열하고 2부에서는 가장 큰 의문을 형성했던 두 인물(유력한 용의자와 진짜 범인)의 이야기를 교차하는 정교한 방식으로 짜여 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를 ‘나’에게서 날아온 편지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을 것 같은 엄 형사라는 인물을 일종의 맥거핀처럼 활용함으로써 긴장감을 유지한다.

완성된 퍼즐의 그림

새해맞이 대청소의 우연한 결과로 고흐의 해바라기를 액자에 넣어 걸어 두었다. 그러나 퍼즐을 완성하던 순간의 감격은 여전하지만 그 감격을 원작의 아름다움과 나란히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이 소설이 지닌 형식의 새로움과 작가의 섬세하고 탄탄한 문장만으로는 완성된 전체 이야기가 지닌 상투성—그간의 엇비슷한 청소년 소설에서 해 온 이야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비슷해 보인다. 별것 아닌 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 의도하지 않은 비극과 그로 인한 죄의식을 면밀히 다루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 작품은 작가의 전작들이 지닌 형식과 내용의 균형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형식만큼 새로운 이야기가 빛나는 작가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겠다.

1) 속임수, 미끼라는 뜻. 영화에서는 서스펜스 장르의 대가 앨프리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이 고안한 극적 장치를 말한다. 극의 초반부에 중요한 것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일종의 ‘헛다리 짚기’ 장치를 말한다. 관객들의 기대 심리를 배반함으로써 노리는 효과는 동일화와 긴장감 유지이다.



용서와 화해로 폭력을 이겨 낸 대통령

글 백수린 소설가

『차별 없는 세상을 연 넬슨 만델라』

권태선 글 | 흘날린 그림

창비 | 2015 | 173p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널리 알려진 넬슨 만델라. 인종차별이 여
전히 만연한 오늘날 이 책은 넬슨 만델라의 삶을 통해서 인권과 용서의 가치를 이야기해 준다.

몇 달 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 있는 한 흑인교회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성경 공부 중 한 백인 남자가 교회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총 아홉 명이 사망한 것이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도 한 오바마는 사망한 목사의 추도식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무반주로 불러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한때 영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팔아 넘기던 존 뉴턴이 성공회 사제가 된 이후 노예무역업에 종사했던 자신의 삶을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작곡한 찬송가다. 오바마의 인상적인 연설은 청중과 함께 찬송가를 부른 뒤 인종갈등에서 비롯된 중오범죄로 사망한 아홉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빌어 주며 끝을 맺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은 증오가 빛은 이 비극적 사건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복수나 처벌 같은 폭력에 대해 말하는 대신 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현실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인종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동시에 화합의 메시지를 남긴 셈이다. 찰스턴 교회에서의 이 연설은 오바마가 임기 중 남긴 명연설 중 하나로 회자될 것이다.

오바마처럼 한 나라에서 선출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면서 인종차별과 그로 인한 부당한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화와 화합을 추구했던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다. 바로 넬슨 만델라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연 넬슨 만델라』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넬슨 만델라의 일생을 그린 책이다. 이 책은 남아프리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흑인 아이가 성장하고 대통령이 되었다가 죽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위인전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주인공의 위대한 점을 부각시켜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많은 위인전과 달리 이 책에 그려진 만델라는 흑인운동을 해 나가
는 동안 내적으로 갈등하고 변민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랜 수감생활 끝에 꿈에 그리던 석방을 한 만델라가 그의 딸 마카지웨와 재회한 에피소드는 만델라가 추구했던 투쟁의 삶이 지닌 명암을 잘 보여 준다. 만델라가 끌어안으려 하자 만델라의 포옹을 거부한 마카지웨는 “제게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이 나라 흑인들의 아버지였지, 제 아버지였던 적은 없어요!”^(107쪽) 하고 울부짖는다. 또 그는 감옥에 있느라 하나뿐인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또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만델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인간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이 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델라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주기도 한다. 처음에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치던 만델라가 무장 투쟁을 택하게 되고, 훗날 화합의 정치를 추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만델라의 고뇌와, 그의 사고가 성장해 가는 여정을 엿볼 수 있다. 처음에는 오로지 아프리카 흑인만의 힘으로 흑인 해방을 이루려 했던 만델라는 흑인 해방을 위해 그보다 더 열심히 투쟁하는 백인이나 인도계 친구들을 만나며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서 인류애에 눈뜨다. 결국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이후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파르트헤이트하에 벌어진 폭력을 밝혀내기 위해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결실을 맺는다. 희생자들의 분노를 헤아려 검찰과 동등한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 화해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처벌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을 전제로 많은 이의 자백을 받아 내고 이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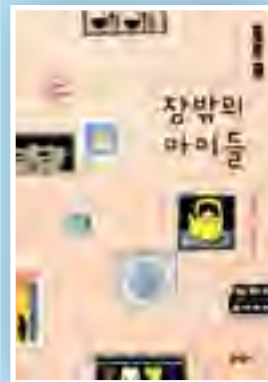
위인전, 그것도 먼 나라 정치인의 위인전이라 조금 딱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이 책의 곳곳에 배치된 가슴 뭉클한 에피소드들을 읽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기우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된 이후 아파르트헤이트를 강력히 추진하다 암살당한 전 총리의 부인을 위해 돈보기가 되어 준 만델라의 모습을 그린 에피소드는 감동적이다. 돈보기 없이는 글을 읽을 수 없지만 껌박하고 가져오지 않은 아흔네 살의 노부인을 위해 만델라는 노부인이 듣고 따라 연설할 수 있도록 직접 성명문을 낮은 목소리로 읽어 준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아프리카너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백인들로 가득한 럭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백인과 화해하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런 그에게 화답하는 백인 관중과 선수를 그린 에피소드는 잔잔한 감동을 자아낸다.

이런 일화들에 공감하며 책을 읽다 보면 만델라가 일생에 걸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지구 건너편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인종뿐만 아니라 성별, 계층, 지역 간의 차별과 갈등, 증오가 만연한 오늘 같은 시대에 더욱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관심과 냉소, 이기심 탓에 인도주의라는 이상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말을 다음 세대로부터 듣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본문 중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만델라가 남긴 연설문의 이 구절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닐까.



‘창밖의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

글 김윤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창밖의 아이들』

이선주 글

문학동네 | 2015 | 194p

인간은 태어난 순간 이미 다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의 생애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와 관계 맺기로 구성된다. 청소년의 성장 역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를 정립하라는 요구다. 청소년은 나를 둘러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알아 간다.

인간(人間)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된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일 게다. 원래 인간(人間)이라는 말은 인생세간(人生世間)의 준말이라고 한다. 인생세간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뜻한다. 즉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를 통해 형성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는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꾸리게 된다. 인간은 공동체와 상호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공동의 의식과 가치들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식과 가치를 받아들이며 성장한다. 이 점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청소년의 성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선주의 『창밖의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의 눈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읽어 내고 있다. 『창밖의 아이들』에는 계층을 대표하는 세 아이가 등장한다. 클레어는 상류층 아이다. 예술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어로 불리는 이유는 유명한 브랜드의 최고가 패딩을 입고 다녀서다. 클레어는 마치 놀이공원처럼 장식된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는 그 아파트는 그곳으로의 입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란이는 임대아파트에 산다. 낡고 오래돼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임대아파트는 베란다에 무질서하게 쌓인 물건들을 통해 추레한 삶을 드러낸다. 란이의 패딩은 할머니가 좌판에서 산 ‘사우스페이스’다. 란이는 학교에 갈 때는 절대 그 옷을 입지 않는다. 가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인물 민성은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이다. 함께 입국했던 엄마는 강제 추방당하고 민성은 불법체류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 꾀질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품 속에서 클레어와 란이, 민성의 계층은 그들이 누리는 의식주의 차이를 통해 뚜렷하게 나뉜다.

빈곤아동을 후원하는 단체의 광고는 우리의 후원이 빈곤아동들의 밥 한 끼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절대빈곤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요즘, 가난한 삶이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밖의 아이들』에서 상류층인 클레어와 빈곤층인 란이, 민성의 의식주를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작품은, 가난함은 먹고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임을 재차 환기해 주며, 먹고사는 문제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란이는 자신이 절대로 클레어처럼 부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머니, 아버지 세대의 빈곤이 자신에게 대물림되었듯 자신의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될 것도 알고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듯 부모 대물림된다. 클레어네는 더욱 부유해지고 그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거북이 등딱지처럼 매우 견고하게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화폐는 우리 삶에서 초월적 지위를 차지하며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공동체가 화폐를 중심으로 여러 계층으로 분화되면서 공동체의 유대감은 희박해지고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경쟁자가 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현재 공동체의 운명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조, 즉 시스템을 정비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어떤 정교한 시스템도 현재 우리가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구축한다고 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화폐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세월호 사건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시스템의 중심엔 인간이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문제는 마땅히 사람에게서 답을 강구해야 한다.

작품 속에서 란이와 민성을 향해 손길을 내미는 것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란이 할머니는 찜질방을 전전하는 민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빠와 갈등을 겪는 클레어마저 품는다. 청주댁은 란이에게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 희망슈퍼 할아버지는 말없이 란이를 돕는다. “가난한 사람은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살기 위해 식탁 의자를 내어 주고, 숟가락을 쥐여 준다. 란이는 그게 참 슬펐고,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159쪽) 사람을 살리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내미는 손이다. 그 손은 인간이 관계 맺기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실존적 믿음이며, 화폐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작품은 계층 간의 연대를 희망하거나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창밖의 아이들’을 통해 관계가 단절된 공동체의 엄혹한 현실을 보여 줄 뿐이다. 『창밖의 아이들』은 안데르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와 오버랩된다. 동화에서 성냥팔이 소녀는 결국 창밖에서 추위에 떨다 죽음을 맞이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창밖의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함께 모여서 온기를 나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아라고 말하여 어른의 존재를 부정한다. 아이들과 공동체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창밖의 아이들은 함께 모여 있기에 성냥팔이 소녀처럼 얼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아이들은 자신들을 창밖으로 내몬 건 누구인지, 공동체는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눈높이를 맞춘 인문학, 청소년의 마음에 닿다

글 오선화 작가 · 아동청소년문학가

『청소년을 위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글

더좋은책 | 2014 | 384p

성인 베스트셀러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다시 쓰이는 경우는 많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 성인 버전을 그대로 청소년이 읽어도 무방한 책이 있었고, 오직 판매를 위해 둔갑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정말 필요성이 여실히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읽으면 정말 좋겠는데, 성인 책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였다. 몇 권의 책을 보며 꼭 청소년 버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중에 한 권이 정말 출간되었다. 그 책의 제목은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청소년 버전은 『청소년을 위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다. 이 책은 ‘가로 읽기’와 ‘세로 읽기’라는 부제를 달고 두 권으로 나뉘는데, 내가 선택한 책은 ‘가로 읽기’ 편이다.

꼭 필요한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출판사나 도서관 등이 인문학 강좌를 주최하기도 했고, 서점에도 인문학 분야의 책이 급증했다. 나도 인문학 책 몇 권을 읽어 보았는데, 그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문학’이란 단어 뒤에는 어렵고 무거운 양장본이 숨겨져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책 덕분에 그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어렵고 무거운 양장본’은 ‘재미있고 쉬운 학습만화’ 정도로 여겨졌다. 꼭 필요한 ‘인문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인문학 책을 읽고 싶으나 어렵게 느껴져 기피하고 있다는 지인들에게 추천했다. 인문학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분야를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설명했고, 지인들은 내 설명에 동의하며 책을 잘 읽었다고 했다. 나는 지인들의 반응에 뿌듯해하며 청소년 버전이 나오기를 바랐다.

청소년들도 궁금하다, 인문학!

나는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거나, ‘작가와의 만남’ 등 행사를 의뢰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나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청소년들도 ‘인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다. 책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많았다.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을 공부하면 뭐가 좋아요?’, ‘인문학을 처음 접할 때 어떤 책을 읽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기도 했다. 나는 그런 질문들에 답하며 청소년들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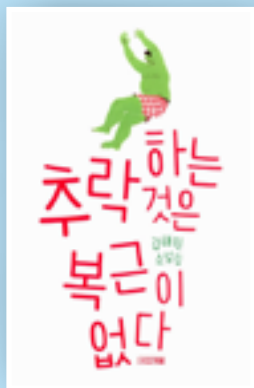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청소년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접했다. 무척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말 청소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잘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눈높이를 맞춘 인문학, 청소년의 마음속으로!

나는 『청소년을 위한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우려가 섞인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렸다. 정말 청소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잘 만든 책이었다.

이 책은 입시에 지치고 바쁜 청소년들을 잘 배려하여 집필되었다. 성인 버전보다 좀 더 재미있고 쉬우며, 더욱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로 읽기’ 편은 논술, 면접, 수능 정복의 핵심인 교과 과정에 충실한 인문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진과 일러스트, 앞으로 소개할 주제에 대한 간략한 정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부연설명을 담은 ‘가로 생각’ 등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입문서로서, 청소년들의 인문학에 대한 궁금증을 잘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에 닿아, 청소년들이 인문학과의 첫 만남을 또렷이 기억하고 다음 만남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올타리 밖으로 내미는 손길

글 김윤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김해원 글

사계절 | 2015 | 203p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올타리가 있다. 올타리 안의 사람들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서로 유대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교감은 필시 그들만의 것이기에 ‘우리’의 유대감이 강할수록 올타리 밖의 사람들에게는 배타성을 띠게 된다.

『열일곱 살의 털』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김해원 작가의 소설집을 만났다. 이번에는 장편소설이 아닌 단편소설집이다. 7편의 단편소설은 그동안 작가의 관심과 사유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7편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서와 신체를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올타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올타리는 올타리를 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누군가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올타리를 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내세워 올타리 밖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힘을 쏟는다. 반대로 타인의 강제에 의해 올타리 안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에서 격리되었거나 소외받은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체에 상관없이 올타리의 공통점은 강하고 견고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타리가 많은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고 분자화된다. 분자화된 개인은 외부와 단절되고 소통하지 못해 고립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제 개인은 올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혹은 스스로 올타리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리그를 치르기 위해 더욱 필사적이 된다. 이런 사회에서 삶은 전쟁이 되고 개인의 유일한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 된다.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를 이루는 단편소설의 주인공은 주로 올타리 밖의 인물들이다. 7편의 이야기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작품은 「최후진술」이다. 「최후진술」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백혈병에 걸린 박선헤 이야기다. 이야기는 박선헤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대기업의 자문협의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증명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고 강하다. 반면에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박선헤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다. 그 나약한 목소리는 대기업이 혹은 전문가들이 혹은 부자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올타리에 아주 조금의 균열도 일으키기 못할 것만 같다. 박선헤는 결국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을지로 순환선을 타고」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얀마에서 온 이주노동자 뚜라다. 뚜라는 을지로 순환선 성수역 부근에 있는 제본소에서 막노동을 한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수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맞은편 플랫폼에서 한 여학생이 철로로 뛰어내리는 것을 본다. 하지만 여학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는 없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퇴근길을 방해하는 여학생의 주검을 향해 냉담한 시선을 던질 뿐이다. 푸라는 여학생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여자 친구 썰베를 떠올린다. 2007년 미얀마, 썰베는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외치던 시위 과정에서 죽음을 맞았다. 푸라에겐 가장 소중한 썰베가 죽었지만 세상은 아무렇지 않았다. 군사정부는 여전히 철용성 안에서 모든 걸 누렸다. 마치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을지로 순환선처럼 세상의 율타리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나머지 5편의 작품에서도 세상을 보는 작가의 암울함이 느껴진다. 「가방에」는 자본주의 먹이사슬에서 밀려나 사기꾼으로 전락한 아버지와 역시 아이들의 힘의 권력 관계에서 밀려난 아들의 고단한 인생살이 이야기다. 「붉은 브라지어」는 새엄마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율타리 안에서 밀려난 남매의 이야기. 「구토」, 「주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표류」에는 청소년이라는 수동적 위치와 학교라는 율타리 안에 갇혀 그야말로 표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표류」에서 작가는 사내의 말을 빌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표류죠. 스스로 항로를 개척해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항구에 닿아 닻을 내리는 것!

— 본문 중에서

이라며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다. 이 말은 사뭇 도전적으로 보이지만 허술한 스티로폼 배에 몸을 의지하고 태평양에 이르렀다는 사내의 공언만큼이나 무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구현하는 세상에 희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율타리를 만들어 서로를 가두고 갇히며, 삶을 싸움터 삼아 서로에게 적의를 품은 채 살아가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을지로 순환선을 타고」의 푸라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 푸라는 2007년의 미얀마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기력함에 괴로워한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다시 찾은 성수역에서 한 남학생을 발견한다. 그 남학생은 여학생이 떨어져 목숨을 다한 철로에,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 국화꽃 한 송이를 던진다. 그 남학생의 숨죽이는 흐느낌은 푸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말한다.

우리 살아, 살자. 살아야 할 아이들을 죽이는 세상, 죽어도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살자. 기억하고 살자. 이 지옥 같은 세상 살아 보자.

— 본문 중에서

이제 작가가 우리에게 그리고 청소년에게 하고픈 말은 분명해진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율타리 안에 갇히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율타리를 치기도 한다. 그렇게 촌촌하게 쌓아 올린 율타리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쟁터로, 지옥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분명해진다. 바로 율타리를 없애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쌓은 율타리 밖 사람들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일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고 나는 믿는다.



역사가 건네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

글 남지현 아동문학평론가

『칼의 아이』

은이결 글

라임 | 2015 | 223p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 같은 김훈의 소설을 읽지 않았더라도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선조와 인조 집권기에 여러모로 눈길이 가게 된다. 특히 이 두 왕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비롯한 전쟁으로 백성의 삶이 파궤해지고 그로 인해 무능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은이결의 『칼의 아이』는 이 가운데 인조 14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을 주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다.

일반적으로 역사소설은 최소한 한 세대 이전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다. 이때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도 다양해진다. 『칼의 아이』는 인조와 병자호란이라는 시대적 맥락 외의 나머지 인물과 사건은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구체적 역사보다는 코스트 드라마처럼 당대의 맥락이 부각되는 시대물에 가까워 보인다.

병자호란이라는 시대적 맥락

전쟁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커다란 피해를 남기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비극과 상처를 남긴다. 특히 병자호란은 조선이 패전국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가혹한 대가를 치른 전쟁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나라에 공물을 바쳤을 뿐 아니라 청의 허가 없이 국방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 왕족과 관료의 인척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청나라에 붙잡혀 간 조선 피로인(被擄人: 적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몸값을 치러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속환 비용은 일반 백성은 엄두를 내기 힘든 금액이었다. 국가에서 대신 몸값을 내주는 공속(公贖)도 추진되었지만 그것은 왕족이나 일부 신하 등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다. 일반 백성은 천신만고 끝에 청으로부터 탈출해 압록강을 건넌다 해도 조선 군사들에게 발각될 경우 다시 청으로 돌려보내졌다. 따라서 당시의 기층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탈출했어도 국가에 의해 다시 돌려보내지는 비극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부칠이는 전쟁 통에 아버지와 소식이 끊기고 누이마저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 부칠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끌려가는 길에 밭이 벗어진 누이에게 버선과 짚신을 주는 것뿐이었다. 누이와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며 잠자리를 구했던 대장간에서 이제는 혼자 남아 그들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루아침에 전쟁고아가 된 부칠이는 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란다. 하지만 부칠이와 달리 양반들의 세계에서는 잡혀간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더구나 온몸에 얼음장이 박힐 만큼 추운 곳에서 온 사람에 게 차가운 개울에 들어가는 벌이라니. 부칠이었다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군불을 지폈을 것이다. (중략) 부칠이는 씩씩하게 돌아섰다. 양반댁에서는 마님보다 가문의 권위가 더 중요한 것 같았다.

— 본문 중에서

병자호란은 피로인의 속환 자체도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여성들은 속환을 한다고 해도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처럼 유교 윤리와 명예를 중시하는 양반들과 달리 부칠이는 가족애라는 좀 더 인간적인 가치관을 중시했다.

두 가지 가치관의 대립과 충돌

위에서 언급한 대조적인 가치관은 이 작품의 중심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인물인 ‘행이’가 자신을 길러 주다시피 한 기방 주인 ‘어매’를 그리워할 때 부칠이는 그런 행이를 위해 먼 길을 다녀온다. 기구한 사연으로 태어나자마자 떨어져 지냈던 행이와 만우 남매를 서로 만나게 해 줄 때에도 부칠이는 그 어떤 대가 없이 나섰다. 이처럼 부칠이가 속한 세계에서는 가족애 혹은 가족을 이어 주고 싶은 의지를 동력으로 인물이 움직인다. 반면 왕의 충신이며, 국운을 되찾아 인조 정권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린아이마저 제물로 삼으려는 이 참판, 그러한 이 참판과 사돈을 맺어 권력의 상층부에 가까워지려는 최 부사의 세계에서는 가문의 번영과 정권의 안위, 권력의 획득이 행위의 동력이 된다.

물론 이처럼 상이한 두 가지 가치체계가 단순히 하나는 평민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반의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 두 세계는 다른 척도에 의해 유지되고 움직인다. 유교적 신분질서 속의 양반들에게는 국운 회복을 위해 신분이 낮은 아이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꺼림칙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최 부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딸이 원치 않는 상대와 혼인을 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부칠이에게는 비록 길가에 구르는 돌맹이 같은 장삼이사들의 목숨일지언정 그것이 결코 양반들의 목숨보다 가볍지 않다.

지금은 당연하게 들리는 이 같은 평등의식이 당대에는 당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권력의 주체들이 정해 놓은 일(사진검 제작)에 행이의 목숨이 도구처럼 쓰이는 것을 거부하는 인물들의 행위와 그 결과는 전복적이다. 특히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행이 대신 옥란 아가씨가 제물로 바쳐진 결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과거의 역사소설이 현재에 던지는 질문들

고백하자면 필자는 행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보다 옥란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느꼈다. 그러한 충격은 현재를 살아가는 필자 역시 양반의 목숨이 더 무겁다는 유교 질서의 전제에 은연중 동의하고 있다는 자각에 이르게 했다. 그러한 자각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과연 이 시대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

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졌다. 루카치는 저서 『역사소설론』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사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한 시대의 특수성을 역사적으로 보는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오래된 시공간의 이야기가 지금-여기의 현실을 곱곰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이 루카치가 말한 역사의식이라고 본다면 『칼의 아이』는 비록 역사적 사실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역사소설이라 할 것이다.



판타지가 현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글 남지현 아동문학평론가

『톡톡톡』

공지희 글

자음과모음 | 2015 | 215p

청소년의 성과 사랑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 놓인 청소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문학에서 쉽게 다루기 어려운 소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신이다. 청소년들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지라도 그 사랑이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성과 사랑’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두 범주는 생물학적으로는 인접할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제3자의 인생에 대한 길고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낳을 것인가, 낳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학생과 남학생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과 태도가 몇 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된다. 우선 이 일을 계기로 사랑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도 하고 안 좋게 끝을 맺기도 한다. 어떤 결론이든 함께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학생이 문제 상황을 외면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면 대부분 출산을 포기하고 정해진 결론을 향해 가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학생 신분의 미혼모가 사회적인 질시와 비난을 피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방법이 거의 전무하거나 설령 그 학생들의 부모가 양육을 맡겠다고 결단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감행한 가족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당당히 생활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고민 끝에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대개 양육이 아니라 입양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우리는 아직 청소년의 임신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의 해법과 도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조차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도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당사자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 과정 동안 혼란과 두려움, 불안을 외롭게 겪어 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고 질책하는 것과 별개로 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조차 하지 못하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들은 언제까지 되풀이될까.

판타지의 쓰임새

공지희의 『톡톡톡』은 이러한 현실 조건 속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태아의 존재를 판타지 장르라는 형식을 통해 형상화하여 보여 준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초점 화자인 달림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친구 미루와 이미 임신을 했다가 낙태를 해야 했던 언니 해림 사이에서 그들을 연민하고 걱정하며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매개자의 위치에 있다. 매개자로서 달림의 입장은 확고하다. 태아처럼 작은 생명체를 상징하는 피겨를 수집하고 만드느라 달림의 취미에서나 우연히 만난 꼬마 아이 ‘노란모자’에게 엄마를 찾아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달림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성성이 충만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 설정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듯 이 이야기는 생명의 소중함을 부각시키며 엄마의 몸속에 잉태된 그 아이들에게도 살아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낙태된 태아들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꼬마 아이들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나타나는 판타지적 설정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어엿한 하나의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애뜻한 정서 속에서 느끼게 한다. 언니 해림과 해림의 태아였던 ‘노란모자’가 만나는 장면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소망을 대신 실현해 주며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감동과 눈물로 이야기를 끝맺기에는……

누군가의 말처럼 책에도 온도가 있다면 이 책은 아마 엄마의 체온과 비슷한 양수의 온도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은 엄마의 양수가 아이를 보호하듯 아프고 꺼내기 힘든 소재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아프지 않게 독자에게 건네준다는 미덕이 있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 사회는 아직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인 달림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굳혀 가지지만 달림은 미루나 언니 해림처럼 임신과 낙태라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문제의 당사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달림처럼 확고한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달림의 언니 해림이 일기장에서 아기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일기라는 자기고백적 형식이 곧바로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일기장에 쓴 다짐이란 것은 그만큼 현실 속에서 그러한 생각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것이다.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들킨 이후 자연스럽게 엄마의 결정에 자신을 맡겼다는 언니의 고백은 차마 일기장에조차 털어놓을 수 없었던 해림의 깊은 갈등을 보여 준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숨어 있던 나를 찾아냈던 거야.

나는 예상했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할 줄을…….

나는 엄마에게 나를 맡겼지. 아주 자연스럽게.

— 본문 중에서

이러한 현실에서 낙태를 피해서 도망친 미루가 만든 배내옷이 아직은 미완성인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생명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친 미루가 어렵게 얻어 낸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스스로 결단할 자유뿐이었다. 그 외에 아이들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결국 이 작품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감잡한 현실을 조금 더 밀어 가며 변화시키는 리얼리즘의 길이 아니라 언니 해림과 해림의 아기 ‘노란 모자’가 아름답게 헤어지는 애뜻한 장면을 보여 주는 판타지의 길일 수밖에 없었다. 이 작품에

서 판타지는 책 표지의 설명처럼 “태어나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진혼곡이자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는 경고”이거나 작가가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조그맣고 연약한 목숨들이 보내는 가느다란 신호”일지언정 현실에서의 희망과 직접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장면에서 ‘노란 모자’가 어른스럽게 건네는 다음의 대사는 이 작품의 판타지 세계가 이러한 목숨들을 위해 마련된 제의적 공간이었음을 나타낸다.

엄마 만나서 정말 정말 좋았어. 이제 나는 괜찮아.

엄마를 만났으니깐. 엄마도 나를 만났으니깐

이제 괜찮아야 해?

— 본문 중에서

독자마다 서사의 결말에 대한 나름대로의 희망사항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노란 모자’가 위의 대사처럼 어른스러운 인사말을 남기고 떠날 때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바로 그 장면에서 책장을 덮고 감정의 출렁임에 머물기보다는, 물기 마른 선명한 눈으로 남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다. 아이들을 위한 제사가 끝나도 그들의 어린 부모들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2015 책 이야기 사서추천도서

유아 문학

걸었어 | 게임을 안 해도 심심하지 않아 | 곧 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 근사한 우리 가족 | 까불지 마! | 나랑 친구할래? | 날마다 말
생 하나! | 노란 장화 | 늑대가 그랬어! | 늑은 쥐와 할아버지 | 달팽이 찰리에겐 새 집이 필요해! | 동동이의 여행 | 동생이 미운 걸 어떡해! |
말말말 | 무슨 생각하니? | 무엇일까? | 방긋 아기씨 | 뽕쇠똥구리와 마주친 날 | 사자가 작아졌어! |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 선생님은
몬스터! | 세상의 낮과 밤 | 아리의 빨간 보자기 | 안녕! 만나서 반가워 | 안녕, 풀 | 안 돼, 내 과자야! | 어수룩 호랑이 | 엄마의 말 | 엄마의
꿈 | 외톨이 꿈 | 우리 가족 납치 사건 |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 특별한 친구들 | 한밤의 선물 | 한밤중 한 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 |
할머니에겐 뭔가 있어! | 형이 짱이지? | 호랑나비와 달님 | 호랑이를 탄 엄마

유아 문학 외

로켓 펄권과 끝내주는 친구들 | 오직 하나뿐인 너 |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초등저학년 문학

감정조절기 하트 | 고슴도치X | 골목이 데려다줄 거예요 | 901호 땡땡 아저씨 | 나도 끝까지 할 거야! | 나 먼저 할래 | 너도 화가 났어? | 단
추마녀의 수상한 식당 | 동네 한 바퀴 | 두근두근 걱정 대장 | 땅속나라 도둑 괴물 | 똥섬이 사라진대요 | 목기린 씨, 타세요! | 버알 삼 형제
| 빨간 여우 | 서근 콩, 닛근 팔 :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수수께끼 옛이야기 | 솔직하면 안 돼? | 췌! 엄마에겐 비밀이야 | 시작 다음 | 엄
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 엄마의 초상화 | 오빠와 나 | 우리가 꿈꾸는 자유 | 자전거로 달에 가서 해바라기 심는 법 | 진짜 투명인간 | 참! 잘
했어요 | 책으로 똥을 똥는 돼지 | 콧구멍 왕자 | 할머니가 사라졌다 | 호박꽃초롱

초등저학년 문학 외

까막눈이 산석의 글공부 | 롤러와 나 | (떼구루루~돌고도는) 100원의 행복 | 사람이 뭐야? : 아빠가 들려주는 진화의 비밀 |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 | 소원을 말해 봐 : 꿈이 담긴 그림, 민화 | 신기하고 조금은 슬픈 역사 속 낙타 이야기 | 입술 유령의 자신감 수첩 |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 | 지렁이 똥을 훑쳐라

초등고학년 문학

개와 고양이와 은밀한 시간 |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 광대 달문 | 기억을 지워 주는 문방구 | 내가 진짜 기자야 | 노잣돈 값기 프로젝트 |
누리아 누리아 | 두 얼굴의 여친 | 마지막 아이들 | 아빠, 소 되다 |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 우리들의 보물섬 제주도 | 유령놀이 | 정의의
악플러 | (내 이름은) 직지 | 책 안 읽고 사는 법 | 컬러보이 | 탄탄동 사거리 만복전파사 | 휴가 온 외계인

초등고학년 문학 외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 내 딸아, 현명한 선택은 너를 행복하게 한단다 | 닭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 당당마녀의 중학교 공략집 | 대지
진이 나던 날 | 로봇 박사 데니스 홍의 꿈 설계도 | 소로 씨, 삶엔 무엇이 있나요? | 오늘 하루가 힘겨운 너희들에게 |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 | 조선 수학의 신, 홍정하 | 지구사용설명서 2 | 지구에서 계속 살래요 | 철이, 가솔을 결심하다 : 마
음을 보는 책 장자 |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청소년 문학

고래 날다 | 관계의 온도 | 국문학 미리보기 | 나는 말하기 좋아하는 말더듬이입니다 | 선암여고 탐정단 : 탐정은 연애 금지 | 세븐틴 세븐틴
| 세상의 수호자들 | 시크릿 박스 | 14세와 타우타우씨 | 앨리스의 소보로빵 | 어나더 미 : 우리는 왜 기적이야야 했을까 | 옆집 아이 보고서
| 오더 메이드 살인 클럽 | 의자 뺏기 |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 |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 홀리스 우즈
의 그림들 | 한별소

청소년 문학 외

나는 왜 자꾸 짜증이 날까? | 발레하는 남자 권투하는 여자 | 뼈뿔뼈뿔 가도 좋아 | 살아 있는 심리학 이야기 | 십대,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
해! | 17세의 책, 나의 고민을 들어줘 | 아베 히로시와 아시히야마 동물원 이야기 | 옛 그림이 쉬워지는 미술책 | 이 놀라운 조선 천재 화가들 |
이 언니를 보라 : 세상에 불응한 여자들의 역사 | 조선왕조실록 1, 조선 패밀리의 탄생 |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탐정이 된 과학자들

걸었어



우지현 글 · 그림 | 이정덕 바느질
청어람주니어 | 2015 | 32p

딸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딸의 그림 위에 엄마가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다. 모녀가 함께 꾸민 책 『걸었어』의 이야기다. 아랫집, 옆집 친구들과 함께 떠난 아이들은 해와 길을 따라 걸어간다. 꽃들과 나비도 아이들을 따라 걸어간다. 숲과 들과 다리와 땅속까지 걸어가면서 바람, 구름, 비도 만나고, 어둠 속에서도 달빛과 별빛을 보며 걸어간다. 괴물을 만나도 용감하게 소리쳐서 물리친다. 그렇게 계속 걷던 아이들은 좋은 냄새가 나자 집으로 갈 시간임을 깨닫는다. 엄마의 좋은 냄새를 맡으며, 옆에 누워서 꿈속으로까지 걸어 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귀여운 그림에 수놓아진 아기자기함은 인물들의 생동감을 더욱 살려 준다. 예쁜 색감으로 나타낸 자연과 동물들로 눈이 즐거워지는 그림책이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게임을 안 해도 심심하지 않아



수잔 콜린스 글 | 마이크 레스터 그림 | 노경실 옮김
두레아이들 | 2014 | 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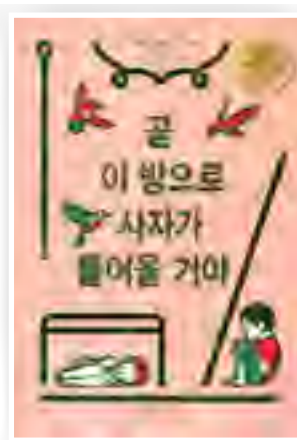
『게임을 안 해도 심심하지 않아』의 주인공 찰리도 게임밖에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찰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급기야 건전지로 작동하는 게임을 하기 위해 동생의 인형에서 강제로 건전지를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 찰리는 엄마에게 혼이 나

고 별로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되면서 지난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별 받는 시간이 끝나자 맨 먼저 동생을 찾았어요. 찰리가 말했어요. “우리 숨바꼭질 놀이 할까” 찰리와 동생은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낮에 재미있게 논 남매는 잠이 들었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와 온 마을이 환해졌어요. 눈을 뜬 찰리는 씩 웃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은 날로 심각해지는 아이들의 게임 중독 문제를 스스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이야기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허거게임』의 수잔 콜린스의 첫 그림책입니다. 특히 재치 있고, 익살스러운 그림으로 표현한 마이크 레스터의 그림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곧 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



아드리앵 파를랑주 글 · 그림 | 박선주 옮김
정글짐북스 | 2015 | 30p

두려움은 모양이나 색깔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 책은 사자의 방을 배경으로 하여 이러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화 기법의 간결한 선으로 구성된 사자의 방은 상상 속의 불안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어느 날 텅 빈 사자의 방에 호기심 많은 소년이 들어옵니다. 조금 후 밖에서 나는 소리에 소년은 재빨리 침대 아래로 숨습니다. 사자가 돌아온 걸까요? 곧이어 소년, 개, 새매가 차례차례 방으로 들어온 뒤 무서운 사자가 귀가하는 순간을 피해 몸을 숨깁니다. 모두들 사자에게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곧 이 방으로 사자가 들어올 거야』는 2015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 픽션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용감한 사자를 방에 숨어 벌벌 떠는 존재로 그리며 통쾌한 반전의 재미를 선사한다”는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밀림의 왕 사자와 여러 동물의 아슬아슬한 숨바꼭질을 상상하며 재미있게 읽어 보세요. 판화 제작 과정에서 생겨나는 흐릿한 부분을 활용한 방 안의 소리 없는 교감 장면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근사한 우리 가족



로랑 모로 글 · 그림 | 박정연 옮김
로그프레스 | 2014 | 25p

책 표지를 보면 동물들에게 둘러 싸여 있는 소녀가 있어요.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근사해요!”

오빠는 힘이 세서 다들 꼬박 못하는 코끼리, 엄마는 가족 중에서 제일 키가 크고 예쁘지만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기린, 우리 할머니는 텔레비전 소리에 유난히 귀가 밝은 부엉이, 사촌들은 장난치는 걸 타고난 원숭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모르겠답니다.

소녀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즐거운 상상력을 작가 로랑 모로가 짧은 글과 화려한 이미지를 화풍으로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가족 또는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을 어떤 동물들과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져 보세요.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까불지 마!



강홍무 글 | 조원희 그림

논장 | 2015 | 33p

아이가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고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자, 엄마는 아이에게 말한다. “그럴 땐 ‘까불지 마!’ 하고 소리쳐야지.” 집 밖으로 나간 아이는 나가자마자 바로 마주친 무서운 강아지에 겁을 먹지만, 이내 온 힘을 다해 소리친다. “까불지 마아!” 아이는 도망치는 강아지를 보며 용기를 얻는다. 평소 동네에서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던 고양이에게도, 아이를 놀렸던 친구에게도 힘을 내 소리

친다. “까불지 마!”

의기양양해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엄마에게도 소리를 치는데…….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엄마와의 재미있는 관계 묘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나랑 친구할래?



최숙희 글 · 그림

웅진주니어 | 2015 | 27p

『나랑 친구할래?』는 여러 동물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친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겹고 따뜻한 그림으로 보여 줍니다. 아이는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 맛있는 것도 나누어 먹고, 다시 만나면 꼭 안아 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한 아이는 사귀고 싶은 친구를 만나 “나랑 친구 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괜찮아』의 최숙희 작가의 신작입니다.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던 아이가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 먼저 손 내밀며 이야기를 건넵니다. “나랑 친구 할래?”라는 말에 담긴 기쁨과 설렘을 아이들이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제 막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아이부터 학교 생활과 친구 사귀는 일이 낯선 초등 1학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입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날마다 말썽 하나!



에릭 로만 글 · 그림 | 이상희 옮김

뜨인돌어린이 | 2014 | 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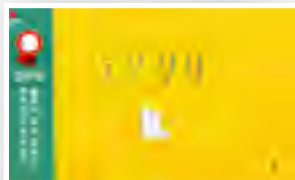
무엇을 만졌다 하면, 어디로 움직였다 하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말썽쟁이 토끼! 그러나 마음만큼은 최고로 착해요. 생쥐의 돌도 없는 친구랍니다. 이번에도 토끼는 생쥐의 장난감 비행기를 높은 나무가지 위로 날려 버리고 맙니다. 미안해진 토끼는 생쥐에게 “걱정 마, 친구.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

어!”라고 말하고 땀을 달러가서 코끼리, 코뿔소, 하마, 엄마 오리까지 여러 동물 친구를 불러모았습니다. 그들과 힘을 모아서 높은 나뭇가지 위에 있는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지요. 과연 토끼는 생쥐의 비행기를 잘 찾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 그림책은 한 장 한 장 두툼한 검은색 테두리가 멋진 판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이미지만으로 사건을 전개하였습니다. 명랑하고 우스꽝스런 그림을 보면서 토끼와 생쥐의 우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성의 의미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룬 그림책입니다. 작가 에릭 로만은 처음 쓰고 그린 책 『이상한 자연사 박물관』로 1995년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던 뛰어난 그림책 작가입니다. 그는 이 책으로 2003년 칼데콧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김선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노란 장화



허정윤 글 | 정진호 그림

반달 | 2015 | 31p

비 오는 날 노란 장화를 신고 싶었던 아이의 장화가 없어졌다! 노란 장화를 찾기 위한 아이의 여정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왜 오늘따라 아이의 눈에는 장화를 닮은 노란 물건이 많이 보이는 것일까? 화분, 달팽이 집, 잠수함, 갈매기의 가방 등. 아이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밤에 다시 장화를 가져다 놓은 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본의 아니게 남기고 간 선물로 아이는 더 행복해진다. 이 책을 덮고 나면 아이의 마지막 모습처럼 함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랑과 대비되는 파랑이나 검정의 사용으로 색감 대비가 훌륭하며, 『위를 봐요』로 2015년 볼로냐 어린이도서전 라카치상을 수상한 정진호 작가의 그림은 단순하면서도 개성이 넘친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늑대가 그랬어!



밀리 카브롤 글 | 아멜리 그로 그림 | 조정훈 옮김
키즈엠 | 2015 | 23p

나는 늑대에 대해 아주 잘 알아요. 늑대는 배가 고프면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고 울부짖어요. 그리고 늑대는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죠. 내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다 늑대 때문이지요. 늑대는 항상 나의 파이를 노리고 있어요. 파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잠옷 주머니에 파이를 숨겨 두었어요. 그 바람에 잠옷이 파이 잼으로 범벅이 되었죠. 엄마는 화를 냈어요. 나는 “내가 안 그랬어요. 늑대가 그랬어요!”라고 외쳤지만 엄마는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늑대 때문에 벌어진 일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늑대를 쫓아낼 기발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정말 늑대가 그런 걸까요?

『늑대가 그랬어!』를 읽은 뒤, 책 속 아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이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좀 더 알고 싶은 엄마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입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달팽이 찰리에겐 새 집이 필요해!



도리스 렉허 글 · 그림 | 유혜자 옮김
한울림어린이 | 2015 | 25p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하기를 좋아하는 달팽이 찰리. 그날도 친구들과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뿌지직! 누군가 찰리의 집을 밟고 말아요. 집이 없으면 겨울에 너무 춥기 때문에 찰리는 새 집을 구하기로 합니다. 고슴도치 아주머니, 놀고 있던 개미들, 잠자리와 생쥐까지 찰리의 새 집을 찾아 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몸에 꼭 맞는 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 꼭 붙어 있던 달팽이집이 그리워진 찰리는 눈물을 흘려요. 과연 찰리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생각할 점을 보여 줍니다. 찰리와 친구들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달팽이의 집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색감이 화사하고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그림책입니다. 찰리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 친구들의 표정 하나까지 잘 표현되어 있어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선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늙은 쥐와 할아버지



이상교 글 | 김세현 그림
봄봄 | 2015 | 25p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늙은 쥐와 할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주름진 피부를 가진 데다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도 비슷하며, 둘 다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에서 고단한 하루를 산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먹을 걸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길에서 병든 쥐 한 마리를 발견해 집에 데려와 먹을 것을 주며 보살핀다. 그 집에 살던 늙은 쥐는 할아버지가 데려온 병든 쥐를 살펴보다 사실은 쥐가 아니라 먼지투성이인 실장갑이라는 걸 알아차린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장갑을 치운 후 자신이 병든 쥐처럼 행동한다.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는 꿈쩍 않던 병든 쥐가 기력을 찾은 줄 알고 기뻐한다. 이 그림책은 약한 존재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그림이 여운을 더한다.

이진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동동이의 여행



그웬돌린 레송 글 | 아멜리 자코스키 그림 | 조정훈 옮김
키즈엠 | 2014 | 33p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어떨까? 바람처럼 잡히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을까? 비처럼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온 세계를 떠다닐까? 이 책은 바닷가 근처에서 친구들과 살고 있는 구름 동동이의 모험을 이야기한다. 동동이는 용감하지만 바다 멀리 보이는 언덕 너머로는 가 본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구름을 보고 호기심에 쫓아서 멀리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에게 잡혀서 작은 유리관에 갇히게 되는데, 과연 동동이는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동동이의 여행을 통해 아이들은 도전정신과 용기를 배우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동생이 미운걸 어떡해!



로렌 차일드 글 | 김난령 옮김
국민서관 | 2015 | 32p

엘모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던 행복한 아이였어요. 자신의 방에서 텔레비전으로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실컷 봤고, 장남감도 모두 차지했지요. 삼촌이 사준 젤리 한 통도 혼자 다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동생'이라는 낯선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동생은 엘모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관심, 장난감, 젤리, 좋아하는 텔레비전 채널까지. 엄마, 아빠는 심지어 동생과 함께 방을 쓰라고 하지 뭐예요. 과연 엘모어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로 2000년 케이트그린어웨이상을 받은 로렌 차일드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들이 동생에게 느끼는 질투의 감정을 잘 표현해 공감을 이끌어 내어, 동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세련되고 장난기 넘치는 그림이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김선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말말말



맥 바넷 글 | 젠 코레이스 그림 | 서연 옮김
아이맘 | 2014 | 33p

재미있는 말 전달 놀이를 연상시키는 『말말말』은 파스텔 톤 하늘 위, 한 가닥 전깃줄 위에 쪼르르 앉아 있는 새들 사이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말입니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피터의 엄마가 피터의 친구 앵무새를 보고 '저녁밥 먹게 집으로 곧장 날아와'라고 말 좀 전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구 놀이에 열중해 있던 앵무새는 '집으로 곧장 날아와'를 '지붕 위로 공을 날려봐'라고 옆에 있던 비행기 조종사 기러기에게 전달하고, 기러기는 '비행기처럼 공중을 날아봐'라며 하늘의 비행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옆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과연 엄마의 말대로 피터는 제때 집으로 돌아가 저녁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새들의 말 전달 모습이 엉뚱하고 황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또한 최고의 의사소통은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에 있다고 알려 주는 그림책입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무슨 생각하니?



로랑 모로 글·그림 | 박정연 옮김
로그프레스 | 2015 | 21p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덧대어진 종이를 펼쳐서 그 속에 감추어진 생각을 살펴보는 방식의 책으로 프랑스의 그림책 작가 로랑 모로가 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각각 두 장면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면에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사각형의 플랩)이, 왼쪽 면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짤막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의 인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신나는 모험을 좋아하는 막심은 야생동물에 올라타고 유유히 걷는 상상을 해요. 아나엘의 생각을 열어 보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고양이가 등장해서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다 읽고 나서 지금까지 거쳐 왔던 등장인물들을 마지막 장에서 하나씩 연결시키면서 다시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책은 멋진 그림으로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묘사하고 있어 보는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높여 줍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 『신나는 우리 가족』도 함께 읽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무엇일까?



레베카 콕 글·그림 | 엄혜숙 옮김
상상스쿨 | 2014 | 25p

어느 날, 아이는 집 마당 벚나무 아래에서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합니다. 개와 공놀이를 하던 중에 빨간 공이 튀어 구멍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는 배를 깔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공을 꺼내려 하지만 팔이 닿지 않아요. 한참을 지켜보던 아이는 구멍 안에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구멍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누구는 생쥐 집이라고 하고, 누구는 트롤의 보금자리라고 하고, 누구는 용의 굴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구멍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작가 레베카 콕은 이 그림책에서 산뜻하고 섬세한 일러스트로 상상력 넘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늘 아이와 함께하는 개의 다양한 표정,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마당의 벚나무가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상상에 따라 달라지는 구멍 안 세상에서 빨간 공을 찾아보는 재미도 놓치지 마세요.

김선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방긋 아기씨



윤지희 글 · 그림

사계절 | 2014 | 33p

크고 화려한 궁궐에 늘 혼자인 것만 같았던 왕비가 살았어요. 몇 해가 흐르고 흘러 어느 날 예쁜 아기씨가 태어났지요. 왕비는 온종일 아기를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런데 얼마 뒤 왕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건 바로 아기씨가 태어나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도대체 왜 웃지 않는 걸까?’ 왕비는 고민 끝에 아기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합니다. 예쁜 옷과 맛있는 요리,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 주지만 아기씨는 웃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영원히 아기씨는 웃지 않는 걸까요?

『방긋 아기씨』는 아이들과 모든 엄마들을 위한 그림책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엄마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공감을 일으킵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뿔쇠똥구리와 마주친 날



호르헤 루한 글 | 치아라 카레르 그림 | 배상희 옮김

내인생의책 | 2014 | 30p

어느 날 에스테반은 뿔쇠똥구리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별 생각 없이 신발로 내리치려던 순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 벌레는 어디로 가려는 걸까?’ 에스테반은 신발을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에스테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벌레가 아닌, 집채만큼 커다란 공룡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게는 너그럽지만, 벌레와 같은 작은 생명에게 잔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해충이라는 이유로, 재미로, 또는 별 생각 없이 말이죠. 이 그림책은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만한 소재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다른 생명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선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글 · 그림

비룡소 | 2015 | 36p

사자는 늘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나무도 풀숲도 들쥐도 개울도 너무 너무 커져 버렸어요.

대체 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작아진 사자는 그만 개울에 폭 빠져 버렸어요. 물속으로 가라앉던 사자를 누군가가 건져 주었어요. 바로 새끼 가젤이었지요.

그런데 자신이 건져 준 사자가 어제 엄마 가젤의 목숨을 빼앗은 그 사자라는 걸 알게 된 새끼 가젤은 “널 당장 다시 물에 빠트리 버려야겠어!”라고 소리칩니다. 깜짝 놀란 사자는 가젤을 달래 보려고 노래도 불러 주고 꽃도 갖다 주고 빨간 식도 해 주겠다고 통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젤은 “다 소용없어! 그냥 우리 엄마를 돌려달란 말이야!”라고 뿌리칩니다.

사자는 어떻게 사과해야 가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성훈 작가는 진정한 사과란 무턱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온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참다운 사과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건넵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선명한 색감과 콜라주 기법의 그림이 보는 재미도 줍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맥 바넷 글 | 존 클라센 그림 | 서남희 옮김

시공사 | 2014 | 35p

여러분은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친구 만나기, 쇼핑, 여행……. 저마다 다르겠죠. 샘과 데이브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기 위해서요. 샘이 데이브에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파야 해?” 데이브가 야무지게 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아낼 때까지 파야 해.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한참 땅을 파던 아이들은 잠시 쉬기로 하다 쿵아떨어지고 옆에 있던 강아지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강아지와 아이들은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데요. 과연 샘과 데이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는 2013년 칼데콧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으로, 작가 존 클라센의 그림과 맥 바넷의 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림책입니다. 흥미로운 시작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린이, 성인 모두에게 남다른 감동을 주는 그림책입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글 · 그림 | 서애경 옮김

사계절 | 2015 | 33p

바비는 학교에서 커비 선생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선생님은 발소리도 쿵쿵쿵, 목소리도 찌렁찌렁, 성격도 괴팍하거든요. 바비 눈에 선생님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초록 괴물입니다. 어느 토요일, 바비는 공원에 있는 비밀 기지로 가려다 우연히 커비 선생님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더는 할 말이 없어 어색해지지요. 그때 바람이 불어 선생님 모자가 날아가 물에 빠지려던 것을 바비가 잡아 드립니다. 그 모자는 선생님께 매우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후 두 사람은 공원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선생님과 헤어질 때, 바비에게 선생님은 더는 초록 괴물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학교에서는 서로를 어려워하던 아이와 선생님이 학교 밖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재치 있게 다루었습니다. 저자 피터 브라운은 『오싹오싹 당근』으로 2013년 칼데콧 아너상을, 『호랑이 씨 숲으로 가다』로 2014년 보스턴글로브 훈복상을 받은, 평단과 독자의 사랑을 모두 받는 작가입니다.

김선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세상의 낮과 밤



파니 마르소 글 | 조엘 졸리베 그림 | 이정주 옮김

보림출판사 | 2015 | 33p

책을 펼치면 어떤 목소리가 말한다. “우리 함께 지구여행을 떠나 보지 않을까?” 그리고 곧 나무뿌리가 뒤엉켜 있는 맹그로브 숲에서 호랑이가 나타난다. 연어들어 날아오르는 알래스카 반도를 지나 뜨거운 태양의 사하라 사막, 계단식 논이 펼쳐진 중국 윈난 성도 만나게 된다. 한 바퀴 돌고 나면 탐험을 떠났던 마을로 되돌아와 있다. 이 책은 4미터에 달하는 병풍 그림책이다. 지구 곳곳의 풍경이 지명과 함께 담겨 있는데 모든 페이지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예술작품처럼 웅장한 느낌마저 든다. 작가는 이 세상에서 자라기 위해 온 모든 아이에게 책을 바친다고 말했는데 책 또한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의 낮과 밤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 느껴진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아리의 빨간 보자기



문승연 글 · 그림

사계절 | 2015 | 27p

초록머리 아리는 오늘 숲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아리는 빨간 보자기를 안고 집을 나섭니다. 아리의 빨간 보자기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봉긋한 아리의 보자기를 풀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표지에서부터 선명한 색감으로 독자의 관심을 끄는 『아리의 빨간 보자기』는 어린이가 자연을 마주하는 기쁨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아리는 땅속의 두더지, 나무 밑동에 사는 토끼, 나무 꼭대기에 사는 다람쥐, 하늘을 나는 후투티를 만납니다. ‘햇살 가득한 숲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초록 이파리를 연상시

키는 아리의 머리색깔은 숲과 하나가 됩니다.

작가 문승연은 아리와 숲 속의 동물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판타지 세계로 그려냅니다. 보자기를 머리에 이고 땅속 구멍으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후투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상상의 공간을 넘나듭니다. 꿈과 현실의 구분 없이 활짝 열린 숲의 상상력이야말로 어린아이의 세계를 닮았습니다.

후투티는 지금도 아리의 빨간 보자기를 목도리로 두르고 있을까요? 작고 소박한 선물이 담겨 있던 빨간 보자기는 어찌면 자연과 함께 나누는 아리의 마음 보파리인지도 모릅니다.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안녕! 만나서 반가워



한성민 글 · 그림
파란자전거 | 2015 | 29p

닭은 듯 다르게 생겼고, 사는 곳도 다른 매너티, 듀공, 바다코끼리, 펭귄이 왜 미국 플로리다에 모이게 되었을까? 이 책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그림책인가 하고 생각할 즈음에 그들의 집이 사라졌음을 알려 준다. 동물들이 직접 집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말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자신의 집이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반성을 하게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다른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전해 주고 있다. 원색의 둥글둥글한 그림체 속에서 매너티, 듀공, 바다코끼리, 펭귄의 다른 점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다. 표지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이어지는 익살스러운 그림은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꾸밀 수 있도록 활용하기 좋을 것이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안녕, 폴



센우 글 · 그림
비룡소 | 2014 | 45p

남극 기지의 요리사 이언은 쓰레기통을 뒤지던 펭귄에게 ‘폴’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친구가 된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기지 밖으로 나가는 폴이 이상해서 이언과 친구들은 폴을 따라가 본다. 얼음동산의 끝엔 부화되지 못하고 깨진 채로 얼어붙은 알이 가득하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깨지지 않은 알들을 모아 놓은 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귀여운 폴을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사진, 종이 등 2차원 재료부터 털실, 메추리 알, 나뭇조각 등의 3차원 재료까지 독특하게 구성된 이 책은 실제로 2013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이탈리아 언론이 선정한 ‘Most Unique Books 5’에 들기도 했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안 돼, 내 과자야



백주희 글 · 그림
책읽는곰 | 2014 | 34p

엇저녁 아빠가 사 오신 과자 열 개, 식구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고 세 개가 남았어요. 더 먹고 싶었지만 엄마는 내일 먹으라고 하시네요. 그러나 과자 생각에 잠도 설쳤어요. 아침밥을 먹을 때에도, 수업 시간에도 온통 과자 생각뿐이었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집으로 뛰어왔어요. 현관문을 벌컥 열자, 동생 앞에 있는 과자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생이 다 먹어 버린 줄 알고 펄쩍 뛰며 화를 냈지요. 그때 들려온 동생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훈훈한 결말을 보여 주는 이 책은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강렬한 색상과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게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형제간의 우애와 나눔과 양보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림책, 꼭 읽기를 권합니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어수룩 호랑이



황순선 글 · 그림
바람의아이들 | 2014 | 31p

산중호걸 호랑이가 어수룩 호랑이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한국 호랑이에 대한 그림책입니다. 민담과 민화에서 어리석으면서도 신령스럽게 묘사된 호랑이 이미지의 기원을 들려줍니다.

아주 옛날 동쪽 나라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호기심 많은 호랑이는 산 넘고 강 건너 왕을 보러 갔다가, 멋진 왕에게 반해 친구가 됩니다. 호랑이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왕을 도와요. 동쪽 나라는 평화롭고 강하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커다란 앞밭에 꽃을 담아 왕에게 건네고, 아름다운 왕비를 보려고 눈알을 굴리는 호랑이가 재미있게 표현됩니다. 민화에 등장하는 어수룩하고 귀여운 호랑이를 아름다운 전통 색채로 다채롭게 그렸습니다.

김선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엄마의 말



최숙희 글 · 그림
책읽는곰 | 2014 | 33p

‘말’을 좋아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순한 눈망울, 보드라운 갈기털, 굳센 다리를 가진 말이었습니

다. 가난했던 옛 시절, 한 집안의 맏딸인 소녀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 처녀가 되어 결혼을 하고 다섯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하늘 아래 산동네 가파른 곳에 일곱 식구의 집이 생겼습니

다. 아이들의 웃음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등 따스던 어느 여름, 아이 하나가 바다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

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엄마는 남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슬픔을 털고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서야 자신을 찾게 된

엄마는 어릴적 그때를 회상하며 엄마의 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의 말은 꿈을 찾아 세상을 향해 힘껏 달려 나갑니

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말들이 힘차게 뛰어노는 모습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책입니

다.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줍니

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엄마의 품



박철 글 | 김재홍 그림
바우솔 | 2015 | 31p

『엄마의 품』은 박철 시인의 시와 김재홍 화가의 그림이 만난 시 그림책입니다. 더운 여름날 눈에 피사리 나간

엄마를 위해 들길로 물심부름을 나간 아이는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

납니다. 캄캄한 하늘과 시야를 가리는 장대비를 헤치며 엄마를 향해 달려가는 소년! 무사히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어디서 비를 피하고 계실까요?

어린 소년은 폭우를 헤치고 엄마를 만나 주전자를 무사히 건네고 엄마는 어린

소년의 등쪽을 내리치며 옷자락을 들어 아이의 얼굴을 닦아 주고는, 품에 꼭 안아 줍니

다. 엄마 품에 안기자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그림책 속 엄마는, 모든 것을 품는 넉넉한 가슴만으로 읽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

다. 김재홍 화가는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왔으며 『동강의 아이들』 등 여러 권의 걸작 그림책을 남겼습니

다. 구석구석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려 낸 입체감 있는 그림과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엄

마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는 깊은 공감을, 어른들은 더없는 위로와 감동을 얻을 것입니

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외톨이 꿈



이노루 글 · 그림
책읽는곰 | 2015 | 36p

귀여운 인형들과 달리 늘 화가 난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곰 인형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

다. 심술궂은 모습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어른들에게는 외면받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곰 인형, 어느날 진열대 뒤쪽으로 밀려났지

요. 자신을 무시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화가 난 곰은 외로움과 원망으로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집채만큼 커졌습니

다. 괴물이 되어 버린 곰 인형은 도시를 거침없이 헤집고 다녔고, 사람들은 곰 인형을 피해 달아났습니

다. 그러다가 도시 저편에 살고 있는 한 꼬마 아이를 만났습니

다. 그런데 이 꼬마는 아무리 겁을 줘도 무시워하지도, 피하지도 않네

요. 과연 곰 인형과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스텔 톤의 수채화 그림은 글을 읽지 않아도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

다. 아이들이 하여금 외톨이 꿈이 친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갖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합니

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우리 가족 납치 사건



김고은 글 · 그림
책읽는곰 | 2015 | 39p

하루라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길 수는 없을까요?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빠는 야근과 회식으로 항상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습니

다. 맛벌이를 하는 엄마는 오늘도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그릇을 치우고, 그제서야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시작합니

다. 주인공은 학교 수업이 끝나도 집에 가지 못하고 이 학원, 저 학원을 옮겨 다니다 엄마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춰 늦게 집에 돌아오습니

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던 어느날, 주인공의 가족은 무언가에 이끌려 아무도 없는 한적한 바닷가에 남겨집니

다. 언제나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게 되는데, 이 책은 그런 상상이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졌습니

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좀 더 넉넉한 삶을 즐기며 살자는 메시지가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잘 나타나 있는 그림책입니

다. 고정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베아트리체 알레마냐 글 · 그림 | 길미향 옮김

현북스 | 2014 | 35p

이 책은 어딘가 하나씩 부족해서 고민하는 다섯 친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배에 큼직한 구멍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몸이 꼬깃꼬깃 주름져 있었어요. 세 번째 친구는 몸통이 물렁물렁해서 힘이 없었어요. 네 번째 친구는 모든 게 거꾸로였어요. 다섯 번째 친구는 팔과 다리가 찝막하고 몸은 찌그러진 커다란 공처럼 생긴 못난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섯 친구들 앞에 완벽해 보이는 낯선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완벽한 새 친구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다섯 친구를 한심하게 대했어요. 다섯 친구는 의기소침해진 채로 새 친구에게 말합니다. 각자가 가진 부족한 점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완벽한 친구는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고!'라고 소리치면서 험한 말을 퍼부었어요. 그 완벽한 새 친구의 고향소리를 듣자마자 다섯 친구는 깨달았어요. 자신들은 전혀 못난이가 아니라는 것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린이』, 『파리에 간 사자』, 『너는 내 사랑이야』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그림책으로 각광 받았던 작가 베아트리체 알레마냐의 신작입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걱정인 아이들, 남보다 자신이 못나다고 느끼기 쉬운 아이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딘가 부족한 것투성이더라도 당당하고 멋지게 자존감을 세워가는 다섯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안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김애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특별한 친구들



경혜원 글 · 그림

시공주니어 | 2014 | 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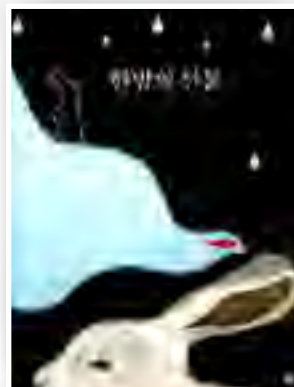
전날목에 기가노토사우루스, 차도에는 스피노사우루스와 타르보사우루스가, 놀이터에도 다양한 공룡이 가득하다. 도심 속 일상에 공룡이라니 이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싶지만, 이는 한 남자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하룻길의 이야기다. 아이는 눈에 들어오는 많은 사물과 사람들을 공룡으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은 티라노사우루스이기까지 하다.

짧은 호흡의 줄거리 속에서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은 전개를 하고 있다. 사물과 닮은

적절한 공룡 그림과 배경 속 곳곳에 숨어 있는 요소들을 찾아 가면서 상상력과 관찰력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한밤의 선물



홍순미 글 · 그림

봄봄 | 2015 | 32p

시간과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빛과 어둠이 낳은 다섯 아이들, 이들의 이름은 새벽, 아침, 한낮, 저녁, 한밤입니다. 다섯 아이는 시간에게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 다. 하지만 한밤에게는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슬퍼하는 한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선물합니다.

한밤의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한밤도 친구들에게 자신의 일부분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에게 재미있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가 아닌 한밤은 행복한 꿈을 꾸며 잠이 듭니다. 이들이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아이들에게 시간의 흐름과 빛의 흐름을 통해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게 합니다.

홍순미 작가는 이 책을 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속의 그림들은 더욱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쉽게 만나기 힘든 따뜻한 책. 곁에 두고 보면 어떨까요.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한밤중 한 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



오쿠하라 유메 글 · 그림 | 이기웅 옮김

길벗어린이 | 2015 | 32p

한밤중 한 시에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니……. 제목을 보고 공포 책이 아닐까 해서 읽지 않을 수도 있고, 기대했다가 무섭지 않아 실망할 수도 있겠다. 속지부터 1시를 가리키고 있는 시계들로 시작하여, 알 수 없는 표정의 검은 모자들이 등장한다. 모의를 마친 검은 모자들이 창틈으로 몰래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밤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검은 모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잠이 들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살금살금 걷는 발을, 하늘로 날아오는 모습을 무채색만으로 완벽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작가의 그림과 익살스런 이야기가 책을 덮는 순간 웃음을 짓게 한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할머니에겐 뭐가 있어!



신혜원 글
사계절출판사 | 2014 | 37p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이 많다. 그런데 그 많은 걸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아이의 질문에 할머니는 달걀은 암탉이, 나물은 밭에서, 땅콩은 흙에서, 꽃감은 감나무에서, 뽕튀기는 옥수수를 잘 말려서 뽕튀기 할아버지가 튀겨 준다고 말한다. 아이는 “말도 안 돼!”를 외치며, 어디선가 사 온 거라고 생각하며 할머니 뒤를 줄줄 따라다니지만 돌아갈 때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다.

이 책은 그 후 할머니의 1년 동안의 일과를 보여 주는 독특한 구성으로 반전의 묘미를 준다. 마트에서 파는 것만 보는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거리가 오는 것인지 알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할머니의 사랑까지 알 수 있는 따뜻한 책이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형이 짱이지?



정다이 글 · 그림
파란자전거 | 2015 | 34p

우는 동생을 보고 자신은 절대 울지 않는다고 말하는 형. 형은 김치도 잘 먹고, 주사도 잘 맞으며, 숨 막히는 목욕탕에도 잘 들어간다고 자랑스레 말한다. 어디 그뿐인가? 도둑이 들어와도, 지구에 악당들이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다는 형은 이쯤 되면 영웅이다. 이렇게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형을 울게 만든 존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형을 다독여 주는 존재는 또 누구일까?

남동생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 주며 ‘형’이라는 존재를 인식시켜 주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그림책이다. 밑도 끝도 없지만 귀여운 형의 허풍을 보며, 든든해지기까지 한다. 통통 튀는 제목부터, 익살스러운 허풍을 더욱 재미있게 표현한 그림까지,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최영민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사서

호랑나비와 달님



장영복 글 | 이해리 그림
보림 | 2015 | 34p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야 하는 호랑나비가 달님에게 기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호랑나비는 자기가 낳은 알들이 잘 자라 나비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달님은 걱정 말라는 말밖에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난처해합니다. 바로 그때, 사마귀가 호랑나비를 낚아 채면서 호랑나비는 달님의 말도 듣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호랑나비의 알은 엄마 없이 홀로 남겨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랑나비가 낳은 알에 대한 달님의 걱정은 커져만 갑니다. 달님은 엄마를 대신해 호랑나비의 알들을 지켜보며 마음의 응원을 보내지만, 무서운 새와 곤충, 굶은 날씨까지 알이 나비가 되는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달님의 응원과 따뜻한 사랑이 닿아 모든 알이 호랑나비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나비의 성장과정과 생태계의 이치를 통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생명을 향한 사랑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이진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호랑이를 탄 엄마



서선연 글 | 오승민 그림
느림보 | 2015 | 35p

옛이야기 속 호랑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요. 무슨 일일까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엄마는, 늦은 저녁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험레벌떡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떡 하나만 달라는 호랑이, 팔죽을 쑤어 달라는 호랑이, 엄마를 잡아먹겠다는 호랑이, 엄마를 보고 ‘꽃감’이라며 무서워하는 호랑이까지!

과연 엄마는 이 무시무시한 호랑이들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엄마는 진주 목걸이와 빨간 하이힐을 무기 삼아 호랑이를 용감하게 물리칩니다. 전래동화의 틀 안에서 현대적으로 내용을 각색하여 호랑이 이야기를 다른 느낌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이고도 강렬한 그림 또한 이 책이 주는 묘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작가는 엄마의 퇴근길을 보여 줌으로써 아이에게는 이해와 공감을 엄마에게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로켓 펭귄과 끝내주는 친구들



예쎬 구쎬스 글 | 마리에 톨만 그림 | 김서정 옮김
그림책공작소 | 2014 | 49p

열대 개미는 홍수가 나도 물 위에서 2주일 넘게 살 수 있습니다. 펭귄은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만 로켓처럼 1.8미터나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눈이 멀어도 주위에 맞게 색을 바꿀 줄 압니다. 기린은 사람보다 10배나 긴 목을 가지고 있지만 목뼈는 사람처럼 일곱 개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혹시 전부터 알고 있었나요? 이 작품에는 제목처럼 ‘끝내주는 동물’ 중에서 24마리가 등장합니다. 생김새도 사는 방법도 각양각색인 이 동물들의 숨겨진 비밀이 흥미롭게 쓰여 있어서 읽는 동안 놀라움을 그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동 작가 예쎬 구쎬스가 글을 쓰고 2010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던 마리에 톨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지구상의 동물은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 더불어 살아야 하는 운명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동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점점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이 책을 읽은 우리 친구들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이 끝내주는 친구들이 우리 곁에서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신기한 동물 친구들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오직 하나뿐인 너



상화 글 | 그렌티 동 그림 | 전수정 옮김
재능교육 | 2015 | 22p

『오직 하나뿐인 너』는 세상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넓혀 주는 시처럼 아름다운 철학 그림책입니다.

무채색의 바다에서 혼자만 아름다운 붉은색을 띠고 있는 물고기에게, 주변 친구들은 붉은 물고기가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붉은 물고기는 혼자 특별한 존재인 것보다 자신과 닮은 물고기를 만나고 싶어 합

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붉은 물고기는 자신의 행복과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긴 탐험 끝에 자신이 찾고자 했던 것과 드디어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이 얻고자 한다면 결국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줍니다.

이 책의 작가는 『연동』, 『열창을 위해』 등으로 황금독수리상 최우수 애니메이션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근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미야니시 다쓰야 글·그림 | 김숙 옮김
북뱅크 | 2015 | 43p

모래밭에서 세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꽃삽도 세 개, 공도 세 개, 모래 구덩이도 세 개, 나비도 세 마리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온통 숫자로 뒤덮인 괴물이 나타나 아이들의 꽃삽을 빼앗아 버립니다.

숫자 괴물은 아이들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꽃삽을 전부 가지고 가겠다고 하네요. 소중한 꽃삽을 지키기 위해서 숫자 괴물이 내놓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볼까요?

귀여운 캐릭터들로 가득한 재미있는 그림 속에서 숫자 괴물이 던져 주는 문제를 풀어 가다 보면 ‘수’의 의미와 읽고 쓰는 법, 수에 대한 감각과 수를 사용하는

법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놀이처럼 수의 기초를 익힐 수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유아교육 연구의 전통이 깊은 아오야마가쿠인대학의 쓰보타 고우조 교수가 들려주는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면서 그림책 각각의 페이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아이와 함께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감정조절기 하트



김보름 글 | 김종석 그림

현북스 | 2014 | 101p

중학생이 되기 전에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우찬이와 친구들은 감정조절기 '하트'를 달고 생활한다. 감정이 차분해야 학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매월 '이달의 감정조절 어린이' 1등을 선정하여 아이들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은찬은 엄마의 성화로 마침내 감정조절 어린이 1등이 되지만 가슴이 답답해져 밤마다 악몽을 꾸다. 그러던 중 이전에 감정조절 어린이 1등이었던 반 친구 세림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는다.

오늘날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단상과 함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고슴도치X



노인경 글 · 그림

문학동네 | 2014 | 50p

오랜 세월 공들여 이룩한 고슴도치들의 완벽한 도시 '울'!

칭칭 감긴 거대한 털실 뭉치의 모양을 닮은 이 도시는 세상의 모든 위험한 요소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그들만의 공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시를 포함한 모든 날카로운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뾰족한 것에 대한

갖가지 금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날 '교양 있는 고슴도치 수직'을 어긴 주인공은 별로 도서관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뽀뽀 싸맨 금지된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그 책을 통해 고슴도치의 진정한 특성은 뾰족한 가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책은 고슴도치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슴도치의 도시 '울(All)'은 모두가 한 가지 가치만 추종하는 우리 사회의 획일적인 단면을 보여 줍니다. 집단의 통제와 금기에 갇힌 채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되돌아볼 일입니다.

작가 노인경은 『책청소부 소소』로 2012년 볼로냐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데 이어,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로 2013년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시회(BIB)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고슴도치 X』에서는 명도가 낮은 인공적 도시 '울'과, 알록달록하고 선명한 자연적 숲을 대비시켜 인상적인 구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골목이 데려다줄 거예요



길상호 글 | 안병현 그림

풀빛 | 2015 | 26p

옛 골목길에서는 사람이 풍경이 되었고, 이웃의 정이 구석구석에 살아 있었다. 이 책은 그때 그 골목의 모습을 되살렸다. 예전에는 어느 골목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생활 속 풍경이 직접 골목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책장을 넘겨 보면 좁은 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집, 낙엽을 함께 청소하는 마을 사람들, 빨간 고추를 말리는 모습, 뛰어노는 아이들, 나무 그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의 모습이 반갑게 이어진다.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뒷장에 나타날 골목 풍경에 마음이 설렌다.

전체적으로는 흑백의 그림에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부분에만 색을 입혔는데, 작가는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잔잔한 색감에 깔끔한 선으로 골목의 따뜻한 정취를 전하고 있다.

박재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901호 땡땡 아저씨



이육재 글 · 그림

노란돼지 | 2014 | 41p

산이 남매는 시골에서 아파트로 이사 와 거실에서 쿵쿵 뛰어다닌다. 어느 날, 아랫집 901호 아저씨가 항의하자 엄마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아빠는 애들은 뭘 수 있는 거라고 아이들의 기운을 북돋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빠는 층간소음 전용 실내화와 매트를 사용해 소음을 안 내고 아이들을 뛰놀게 한다. 한편 산이네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에 901호 아저씨처럼 항의해 보지만 위층 아저씨는 자기네가 안 그랬다며 발뺌을 한다.

층간소음을 다룬 이 책에서 이웃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이 감동을 준다. 또한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며,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나도 끝까지 할 거야!



김정신 글 | 서영경 그림

스콜라 | 2015 | 77p

이 책은 '끈기' 없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끝까지 해내는 방법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좋은 습관 길러주는 생활동화〉 시리즈 중 한 권입니다. 「사람 둔갑 손톱 쥐라」라는 옛이야기를 인용하여 쥐 세 마리가 주인공으로 변신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호기심 많은 주인공 영웅이는 줄넘기 선수, 요리사, 강아지 기르기, 장난감 조립 등을 해 보려고 시도하지만 모두 힘들다며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 때 신기한 주문으로 나타난 가짜 영웅이들의 도움으로 영웅이는 원하던 것을 쉽게 이룹니다. 하지만 가짜 영웅이들이 진짜 영웅이가 되려고 하며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자, 영웅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혼자 끝까지 노력하며 해 봅니다. 그 결과, 독서, 큐브 맞추기, 태권도 등에서 원하던 목표를 차례로 이루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바로 '끈기'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끈기'는 습관으로 길들여지므로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나 먼저 할래



최형미 글 | 권송이 그림

위즈덤하우스 | 2015 | 73p

나만 먼저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양보와 차례 지키기를 해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주인공 라나를 통해 차례 지키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과 배려도 느끼게 해 줍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라나는 항상 자기가 우선인 생활을 합니다. 집에서는 먹는 것도 차를 타는 것도 모두 라나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라나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급식을 먼저 먹고 책을 먼저 보려다가 친구들과 자주 다툼이 일게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라나가

집 바깥에서도 뭐든지 먼저 하려다 보니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없고, 양보해 본 적 없는 라나는 친구들이 자신을 왜 비난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차례를 지키는 것은 사회 생활의 기본입니다. 차례 지키기는 단순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자기 절제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깔려 있습니다. 서로 먼저 먹으려 하거나, 차를 타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 조금 힘들어도 차례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 줍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너도 화가 났어?



톤 텔레헨 글 | 마르크 부타방 그림 | 유동익 옮김

분홍고래 | 2015 | 78p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고,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분노 조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건강한 분노 표현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전문가들은 적절한 분노 표현법을 배워야 하며, 특히 아동기에 건강한 분노 표현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들의 화는 어떻게. 『너도 화가 났어?』는 숲 속에 사는 여러 동물의 눈을 통해 본 '화'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모두 12개로 구성돼 있다. 저자 톤 텔레헨은 네덜란드에서 의사로 일하며 다수의 시집과 동화를 집필하였는데 그런 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화'의 존재를 숨기지 않는다.

너구리는 매일 지는 해에게 오늘은 지지 말라며 화를 낸다. 또 코끼리는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잘 올라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를 낸다. 지렁이와 딱정벌레는 자기가 더 화가 났다며 싸우고 개미핥기는 똑바로 서면 화가 난다며 물구나 무서기를 하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화를 내고 풀고 화해해 나간다.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황당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읽고 곱씹어 보면 이야기의 철학적 깊이를 알게 된다. 또 귀여운 동물들의 삽화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내고 있을까? 이 책을 읽어 보며 동물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읽어 보고 서로에게 화를 내는 상황에 대해, 그때 서로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면 더없이 훌륭한 독후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단추마녀의 수상한 식당



정란희 글 | 한호진 그림

키다리 | 2014 | 93p

민수는 급식시간에 강낭콩, 당근을 골라내는 아이다. 민수네 반 많은 아이가 햄버거, 콜라 등 인스턴트 음식을 즐긴다. 담임 선생님 또한 오이를 싫어하는데 이토피가 있고 얼굴에 뽀루지가 심하다. 어느 날 민수네 반에 건강검진 의사가 와서 비밀식당으로 초대한다. 그곳에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인 아이들을 단추로 만들어 잡아먹는 단추마녀가 있다.

이 책은 몸에 좋은 채소를 싫어하며,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는 아이들을 마녀가 단추로 만들어 잡아먹는다는 내용의 환상동화이다. 결국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마녀를 물리칠 수 있는데 채소를 싫어하고 편식이 심한 아이들에게 권해 주면 좋을 것이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동네 한 바퀴



김순이 글 | 김병하 그림

한겨레아이들 | 2015 | 118p

친구들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힘들어 답답할 때가 있나요? 그럴 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초등학교 3학년인 태우는 똥똥해서 고민이에요. 아빠와 자주 만나지 못해서 슬프기도 하고 말썽꾸러기 5살짜리 동생도 골칫덩이죠. 하지만 태우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정겨운 이웃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이모랑 동생, 때로는 친구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말하지 못하던 마음속 이야기도 술술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태우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얻고 더 어려운 친구에

게 용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납니다.

『동네 한 바퀴』는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동네가 배경이지만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요즘 현실을 생생히 반영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엿보이지만 전혀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는 동네 어귀의 봄별처럼 따뜻하기만 합니다.

잊혀져 가는 '동네' 골목 풍경과 태우네 가족이 세밀하고도 정겹게 표현된 그림은 시 그림책 『강아지와 염소 새끼』를 그린 김병하 작가의 작품입니다. 또한 2012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순이 작가의 마지막 그림책 글이기도 합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두근두근 걱정 대장



우미옥 글 | 노인경 그림

비룡소 | 2015 | 104p

이 책은 십대 이전 성장기 아이들의 고민을 갈등하고 상상하는 일상을 통해 재치 있게 다룬 네 편의 단편 모음집입니다. 제4회 비룡소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데요,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아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 아이, 걱정이 유달리 많은 아이, 느닷없이 자신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아이가 각 편의 주인공입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다운 생각으로 걱정과 고민을 합니다.

작가는 아이들 마음 구석구석을 잘 들여다보고 이들의 걱정과 고민을 다양한 기법으로 재치 있게 표현하며 아이가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걱정, 갈등, 불안 등의 요소를 잘 꼬집어 내어 쓴 책입니다.

국제원화전시회(BIB) 황금사과상 수상 작가인 노인경의 그림은 각각의 아이들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마음과 감정을 섬세하고 아기자기하게 표현해 주어 읽는 재미를 한층 더해 줍니다. 아이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갈등하고 상상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마치 자기 마음을 거울로 보는 듯한 이야기에 큰 위로와 공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주인공들과 마음을 교감하며 아이들의 내면은 한층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땅속나라 도둑 괴물



송언 글 | 장선환 그림

비룡소 | 2014 | 36p

어느날 임금님이 가장 아끼는 버들공주가 땅속나라 '아귀대장'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구해 오면 큰 상을 내리고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누구 한 사람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힘겹게 아귀대장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물리칠 힘이 부족했습니다. 과연 젊은이는 공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무서운 땅속나라 괴물과 용감한 젊은이의 대결을 그린 옛이야기입니다.

다. 작가 송언은 옛이야기를 새롭게 엮어 더욱 신비롭고 역동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율을 한껏 살린 입말체가 큰 소리로 읽어 보기에 좋습니다.

모험과 상상이 가득한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의 용기와 버들공주의 지혜를 배울수 있습니다. 또한 땅속과 땅 바깥 세상의 명암 차이가 뚜렷한 배경과 인물들의 섬세한 표정 묘사, 역동적인 움직임의 표현들이 마치 한 편의 만화영화 같은 그림책입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똥섬이 사라진대요



안영은 글 | 김은경 그림

파란정원 | 2015 | 47p

똥섬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 앨버트로스란 새가 살았어요. 앨버트로스에게는 아무 곳에서나 똥을 누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바다 한 가운데 똥을 누기 좋은 곳을 발견하고 먼 곳을 여행하다가도 똥을 누 때는 꼭 이곳에서 누웠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새똥은 하늘에 닿을 만큼 쌓였고 산호초와 함께 딱딱하게 굳어 섬이 되었어요. 새똥섬에 코코넛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많아지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며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섬의 새똥이 '인광석'이라는 아주 비싼 물질이라는 것이 알

려지면서 똥을 사려는 사람들이 섬으로 모여들었고 새똥섬에 사는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계속 새똥만 팔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팔다 보니 새똥도 바닥이 나 버렸어요. 이제 새똥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이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를 실제 존재하는 섬 '나우루공화국'을 통해서 보여 줍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과 그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 주는 그림책입니다.

박재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글 | 윤정주 그림

창비 | 2014 | 52p

고슴도치 마을회관 관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배려해 마을버스를 만들었어요. 화목마을의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달리 긴 목을 가지고 있는 목기린 씨는 마을버스를 탈 수가 없었어요.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목기린 씨는 마을회관 관장님께 계속해서 마을버스를 탈 수 있게 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지만 관장님과 마을 주민들은 방법을 찾지 못해 난감했어요.

어느 날 학생 돼지 꾸리의 아이디어로 목기린 씨를 위한 마을 버스 만들기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목기린 씨는 마을버스를 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는 동화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첫 읽기 책〉시리즈 5권인 이 책은 적당한 문장의 길이와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장마다 삽입되어 그림책에서 동화책 읽기 단계로 넘어가는 첫 단계에 읽기 좋은 책입니다. 『소나기 밥 공주』로 제 13회 '창비 좋은 어린이 책'을 수상한 이은정 작가의 작품입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벼알 삼 형제



주요섭 글 | 이형진 그림

개암나무 | 2014 | 51p

이 책은 '지옥에 간 세 사람', '네 것 내 것', '추위', '벼알 삼 형제' 4편의 동화가 있는 동화 선집이다. 그중 '네 것 내 것'은 8살 찬이와 옥이의 재미있는 말다툼 이야기이다. 찬이가 "이 느티나무 내 거다" 하자, 옥이가 "이 느티나무 그늘에선 내가 놀 테다"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한다. 느티나무에서 시작한 말다툼은 앞산 뒷산, 땅덩어리, 하늘과 해님달님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 찬이가 갑자기 웃어 버리자, 둘은 다시 재미있게 논다. 8살 어린이들이 주변의 사물을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말다툼하는 것이 놀이처럼 느껴진다. 1930년대의 옛 우리말 표현을 느낄 수 있는, 유아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근대동화선집이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빨간 여우



김기정 글 | 김홍모 그림

별숲 | 2014 | 93p

이 책은 「빨간여우」, 「나귀가 옷을 입」, 「수탁은 힘이 세다」, 「넌 뭐가 될래?」의 4편을 묶은 김기정 작가의 단편동화집이다. 첫 번째 동화 「빨간 여우」의 주인공 개동이는 서당에 자주 늦는다. 그런 개동이에게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며 물어 본다.

– 왜 늦었느냐?

– 오다가 여우를 만나서요.

– 네가 여우하고 무슨 상관이나?

–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빨간 땡기 머리를 한 예쁜 여자아이예요. 심심하다고 놀다가라 해요.

개동이는 매번 여우를 핑계로 지각의 위기를 모면한다. 정말로 개동이는 여우와 놀다가 늦은 것일까? 거짓말을 하는 개동이의 모습이 익살스럽고, 천연덕스러운 개동이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훈장님의 모습도 우스꽝스럽다. 이 외에도 읽다 보면 절로 미소를 띠게 되는 이야기들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발랄함이 돋보인다.

저자는 네 편의 작품이 거짓말을 잘하고 언제나 배가 고프고 떡을 좋아하며, 되고픈 게 많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다고 말한다. 작가처럼 언젠가 우리의 지금 모습이 먼 훗날 우리가 쓸 이야기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하루 씨앗을 소중하게 가꾸어 보자.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서근콩, 닳근 팔: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수수께끼 옛이야기



서정오 글 | 한상언 그림

토토북 | 2015 | 11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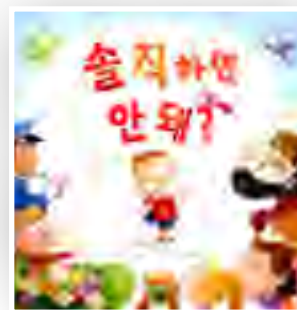
「서근콩, 닳근 팔」을 한번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혹시 ‘씩은콩 닳은 팔’처럼 들리지는 않나요? 이렇게 이 책은 소리가 비슷한 말을 가지고 노는 말놀이와 셈놀이 등의 수수께끼가 옛이야기로 소개된 책입니다.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수수께끼 옛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짧은 이야기 열여덟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수수께끼가 나오는 대목에서 끝이 나고 풀이는 이야기 뒤에 따로 붙여 놓았습니다. 이러한 형식에는 바로 답을 찾아 보기보단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수수께끼를 풀어 가는 과정을 즐겨 보라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풀이에 나온 것만이 정답은 아니니 내가 생각한 답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충분히 생각해서 꼭 각자 나름대로 답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풀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풀어 본다면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솔직하면 안 돼?



도나 W. 언하트 글 | 안드레아 카스텔라니 그림 | 김경연 옮김

씨드북 | 2015 | 26p

프랭크는 친구들, 가족, 선생님에게 언제나 자신이 느낀 그대로 이야기했다. 솔직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랭크가 솔직하게 말할 때마다 모두 언짢아하며 어떤 것은 말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도 한다. 친구들도 정직한 프랭크를 좋아하지 않았다. 프랭크는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 프랭크는 할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할아버지는 상대방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에 든다고 느낀 것을 말해 주라고 조언한다. 솔직함의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정직’이라는 윤리적 신념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고정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췌! 엄마에겐 비밀이야



은효경 글 | 고수 그림
노란돼지 | 2014 | 62p

학교에서 돌아오면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남동생과 집에 오면 숙제부터 먼저 끝내고 책을 보는 누나가 있다. 범생이 누나가 늦자 엄마는 동생에게 찾아보라고 한다. 동생은 누나를 찾다가 누나가 아파트 옥상에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을 알고 함께 키우기로 약속한다. 이후 남매는 햄스터 생각으로 즐겁다. 엄마한테 비밀을 지키는 것으로 남매는 동지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성스럽게 키우던 햄스터가 사라졌다. 누가 가져간 것일까?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심리는 물론,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이 책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저학년 어린이가 읽으면 좋을 듯하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시작 다음



안느-마르코 램스타인, 마티아스 아르귀 그림
한솔수북 | 2015 | 167p

『시작 다음』은 프랑스 작가 안느-마르코 램스타인과 마티아스 아르귀의 그림책으로 어린이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볼로냐 도서전에서 2015년 논픽션 부문 대상인 라가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글 없이 그림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과 후'를 주제로 세상의 모든 순차적 변화를 유기적으로 보여 줍니다. 넓은 초원에 양 떼가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 뭉치의 털실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빨간 털실로 뜨개질을 하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빨간 털모자와 털장갑, 털목도리를 두르고 눈 속을 걷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책은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자연의 섭리와 만나고 순환하는 오묘한 논리를 수백 컷의 인상적인 장면에 담고 있습니다. 글 없이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이유도 그 속에 담긴 뜻과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는 책입니다.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패트리샤 매클라클랜 글 | 천유주 그림 | 김은영 옮김
풀빛미디어 | 2014 | 101p

미국 어느 시골 외딴집에 남매가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던 날 엄마도 세상을 떠나 버렸지요. 그날 이후로 집 안에 흐르던 노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급기야 신문에 엄마를 구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를 보고 머나먼 바닷가 마을에서 키가 크고 수수한 새러 아줌마가 남매의 집으로 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남매는 노래도 잘 부르고 지붕도 잘 고치는 친절한 새러 아줌마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과연 남매는 새러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될까요?

누나인 애니의 순수한 시선으로 엄마가 그리운 남매의 마음을 수채화처럼 잔잔히 펼쳐 보이는 동화입니다.

어린이들은 이 책을 통해 1900년대 미국의 드넓은 초원과 바다를 마음껏 상상할 수 있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키가 크고 수수한 새러 아줌마』이며 1985년 발표되어 뉴베리상을 비롯하여 영미권 주요 아동문학상을 휩쓸고 이미 고전으로 자리 잡은 동화입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엄마의 초상화



유지연 글 · 그림
이야기꽃 | 2014 | 33p

오래된 자개장롱 위에 두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로 다른 하나는 ‘미영 씨’로 불립니다. 작가는 두 개의 초상화를 통해 수수하게 늙은 무채색의 ‘엄마’와 화사한 원색의 ‘미영 씨’ 모습을 대비시켜 엄마의 다른 모습을 보여 줍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드는 엄마,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생선 머리만 발라 먹는 엄마, 울퉁불퉁한 발을 가진 익숙한 집이 되어 주는 엄마를 그립니다. ‘엄마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내가 그린 초상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여행지에서 자신만의 초상화를 그려 옵니다. 화려하고 재미있고 늘 여행을 꿈꾸는 ‘미영 씨’의 초상화를 말입니다.

신예작가 유지연 작가의 『엄마의 초상화』는 이렇듯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엄마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짧은 그림책이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혹은 어른이 읽어도 좋을 깊이 있는 책입니다. 책 뒷표지의 그림 한 장 역시 상징적입니다. 돌아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 엄마의 등 뒤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나비 한 마리가 늘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오빠와 나



김양미 글 | 김효은 그림
시공주니어 | 2014 | 116p

이 책의 표지에는 교복을 입은 오빠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넘겨 보면 화목한 가족 사진 뒤로 아직 손이 여물지 않아서 힘겹게 옷을 입고 있는 여자아이와 쉽게 옷을 입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자아이 이름은 단추이고 오빠와 단추는 7살 차이입니다.

오빠는 단추 이름을 넣어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거나 벼룩시장에 가면 벼룩을 판다고 말하는 등 매일 단추를 놀립니다. 단추는 이런 오빠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습니다. 남매는 늘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단추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고 언제나 보살펴 주는 사람은 오빠입니다. 오빠와 단추가 주고받는 대화를 따라가 보면 두 남매의 어려운 사정이 드러납니다. 아빠는 다쳐서 누워 있고 엄마는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하셔야 해서 남매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우울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매의 지극한 우애와 가족의 사랑때문이겠지요? 이야기는 오빠의 소원처럼 온 가족이 캠핑카를 타고 산이 있는 동물원에 놀러 가는 그림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전전군과 두빵두』로 제2회 마해송문학상을 받은 김양미 작가의 신작 동화입니다. 엉뚱하고 장난기 많지만 책임감 많은 14살 오빠와 늘 오빠를 이기고 싶어하면서도 오빠를 따르고 사랑하는 7살 동생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주제이지만 꼭 주제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다정한 문장과 서정적인 그림 덕분에 추운 겨울에 읽으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화입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우리가 꿈꾸는 자유



아웅 산 수치 외 글 | 피터 시스 외 그림 | 최재숙 옮김
사파리 | 2015 | 37p

『우리가 꿈꾸는 자유』는 그림책에 세계인권선언을 담아 전 세계에 출간되었던 『우리는 모두 소중한데요』에 이어 발간된 책입니다.

그림으로 보여 주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로, ▲꿈을 꿀 자유 ▲아이답게 자랄 자유 ▲원하는 대로 배울 수 있는 자유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 ▲나답게 살 자유 ▲표현할 자유 등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담았습니다.

아웅 산 수치, 넬슨 만델라 등 자유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의 명언과 전 세계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의 아름다운 그림이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명언의 주인공과 일러스트 작가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어 내용을 알기 쉽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세계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 모두 기부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이 독자들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님까지 멋진 그림과 함께 자유에 대해 곰곰이 곱씹어 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림책입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진짜 투명인간



레미 쿠르종 글 · 그림 | 이정주 옮김
씨드북 | 2015 | 24p

어린이들이 직접 뽑는 대표적인 프랑스의 아동문학상인 앙코르티블상의 19회 수상작입니다. 이 책은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소년과 시각 장애인의 아름다운 우정을 다룹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주인공 에밀은 투명인간의 세계에 호기심 많은 소년입니다. 에밀은 특히 피아노 연습이 너무 싫어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시각장애인 피아노 조율사 블링크 아저씨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는 아저씨 때문에 슬퍼진 에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깔을 알려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블링크 아저씨도 그 색깔을 담은 연주를 에밀에게 들려줍니다. 서로에게 색깔을 느끼게 해 주는 가운데 자라나는 둘만의 우정이 참 따뜻합니다. 어느 겨울날 아저씨는 홀연히 먼 여행을 떠나고 에밀은 마지막 연주를 위해 많은 색 피아노로 연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저씨와 색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싶어 하는 에밀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자전거로 달에 가서 해바라기 심는 법



모디케이 저스타인 글 · 그림 | 이정모 옮김
스콜라 | 2015 | 44p

이 책은 달나라 여행을 꿈꾸는 어린이들을 위한 우주 모험서이다. 주인공은 슬픈 어릿광대처럼 외로워하는 달을 달래 주고 싶어서 달에 가서 해바라기를 심고 싶어 한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384,403km)만큼 긴 호스를 큰 새총으로 달에 날려 길을 만들고 수도꼭지를 틀어 고무호스를 팽팽하게 해 자전거에 올라타는 장면에서는 정말 엉뚱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그 상상력 속에는 실제 달에 갈 수 있는 과학적 방법과 원리가 깃들어 있다. 칼데콧상을 수상한 모디케이 저스타인은 이 책에서 어린이다운 상상력과 과학적 지식을 조화롭게 엮었다.

다. 이 재미있고 기발한 우주 모험서와 함께 낯선 세계에 대한 모험심도 키우고 멋진 달나라 여행에 동참해 보자.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참! 잘했어요



이경국 글 · 그림
고래뱃속 | 2015 | 36p

침착하게 문제를 잘 읽고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쓰라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며, 참이는 한 문제씩 진지하게 풀어 나간다. 선생님은 생각했던 답이 아니기에 시험지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쳤다가, 파란 색연필로 그 위에 다시 동그라미를 치고 ‘참! 잘했어요’ 표시를 한다. 저학년 어린이의 따뜻한 마음 표현과 익살스런 그림이 재미를 더한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최은옥 글 | 오정택 그림
주니어김영사 | 2015 | 91p

책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이상한 마을의 이야기이다. 꼬마 돼지 레옹이 사는 버드나무 마을에서는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 뱀 할머니는 햇빛 가리개로 쓰고, 곰 아저씨는 베개로 베고, 레옹은 책장을 찢어 똥 닦는 휴지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그들도 책을 읽었지만, 언젠가부터 책을 읽지 않게 됐다. 시장이 '책 사용법 대회'를 열어서 책을 기발하게 사용하는 주민에게만 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게는 다른 공짜이가 있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레옹은 책을 읽기 시작하고 시장의 음모를 폭로한다. 시장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동물들은 다시 책을 읽게 될까? 기상천외한 소재로 작품을 써 온 작가가 주인공 레옹의 활약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며 '독서'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알려 준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콧구멍 왕자



김회경 글 | 박정섭 그림
사계절 | 2014 | 117p

콧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작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던 왕자가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자신만의 장점과 개성을 발견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두랑스텐 왕국에 귀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왕자의 콧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작아 왕실은 발각 뒤집힙니다. 어머니인 왕비는 이런 아들을 수치스러워하며 세상에 숨기려 하고 왕자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집니다. 신통한 무당 '어때 할머니'만 왕자 콧구멍의 비상한 능력을 알아채고 '사랑받는 왕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결국 성에서 쫓겨나 혼자의 길을 가는 왕자. 가는 곳마다 왕자의 콧구멍은 놀림의 대상

이고 왕자는 점점 작아집니다. 왕자는 사람 말을 하는 재주 때문에 귀신 취급을 받고 있는 두꺼비 친구를 만나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고 코피리 묘기를 부리게 됩니다. 왕자는 이제 자기 콧구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 책은 남들과 다른 것이 차별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이고 장점이며 다르기에 더욱 특별하고 소중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할머니가 사라졌다



박현숙 글 | 김현영 그림
시공주니어 | 2014 | 80p

반재와 형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고 엄마, 아빠는 가게 일과 회사 일로 바쁩니다. 반재네 집의 온갖 집안일은 할머니 몫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반찬을 해 놓으시고 말이죠.

가족들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 경찰서로 갑니다.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려 하니 아무도 할머니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왜 사라지신 걸까요?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요즘 가족들의 바쁜 일상을 잘 그려 내고 있으며 사라진 할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작가의 말'을 통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쓴 박현숙 작가는 2006년 대전일보 신춘문에 동화 부문에 당선된 이후로 45편이 넘는 동화를 선보였습니다. 2014년에는 탈북자 어린이에 관해 쓴 『국경을 넘는 아이들』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호박꽃초롱



강소천 글 | 김영덕 그림

재미마주 | 2015 | 126p

“물/한 모금/입에 물고//하늘/한 번/쳐다보고//또/한 모금/입에 물고//구름/한 번/쳐다보고”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동시는 바로 한국의 안데르센, 강소천 선생의 동시입니다. 『호박꽃초롱』은 강소천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화의 환상성을 잘 살린 선생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펴낸 동요동시집입니다. 작품의 배열, 표지 그림 등 최대한 초간본을 그대로 재현한 이 책은 동요시 33편과 동화 2편이 4부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충칼로 억압하던 일제 말기에 펴낸 작품집이라지만 봄바람, 가을 하늘, 바다, 엄마, 아이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동시를 읊조리다 보면 민족적 고난 속에서도 천진난만한 동심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시집은 독특하게 동화 두 편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강소천의 첫 동화인 ‘돌멩이’는 말 못하는 돌멩이와 돌멩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경구의 시점을 넘나들면서 진행됩니다. 요즘 동화에서는 느낄수 없는 소박한 정서를 느끼게 해 줍니다. 동화의 구성은 80여 년이 지났는데도 세련되기까지 하며 문장의 운율이나 돌멩이를 의인화하는 은유에서 시적 요소가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 함께 깔깔 웃으며 큰 소리로 동시를 읊어보면 어떨까요?

『호박꽃초롱』외에 『꿈을 찍는 사진관』, 『진달래와 철쭉』 등 다른 동화집도 100주년 기념으로 복간되었습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까막눈이 산석의 글공부



김주현 글 | 원유미 그림
개암나무 | 2014 | 71p

〈위대한 책벌레〉 시리즈 세 번째인 ‘정약용이 가장 아꼈던 제자 황상 이야기’는 위대한 학자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양 갔을 때 서당을 열어 만난 제자, 황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릴 적 황상, 산석은 훈장에게서 일어나 하라는 타박을 들을 정도로 이해력이 좋지 못했다. 이후 서당에 가기를 꺼렸던 산석은 어느 날 정약용 훈장을 만나게 된다. 둔한 자신도 공부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산석에게 정약용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공부는 너 같은 아이러야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산석은 정약용의 말을 따라 마음을 다해 글공부를 시작한다.

훗날 시대의 문인으로 불릴 만큼 학식이 뛰어났던 황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롤라와 나



키아라 벨렌티나 세그레 글 | 파올로 도메니코니 그림 | 길상호 옮김
씨드북 | 2015 | 29p

시각장애 소녀와 안내견의 우정과 애뜻한 일상을 담은 이 책은 장애우에 대한 정겨움을 느끼게 합니다. 2015년에는 국제어린이도서평의회(IBBY)의 장애어린이를 위한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맹인안내견 스텔라와 시각장애인 롤라의 이야기를 안내견의 시선으로 구성하고 서술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롤라는 맹인안내견 학교로 찾아갑니다. 롤라와 안내견 스텔라는 첫눈에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안내견 스텔라는 외롭고 나약한 롤라를 돌보게 됩니다. 롤라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작은 소리나 자동차 소리에는 기겁을 했어

요. 그런 롤라를 스텔라는 치밀하게 훈련시켜 둘이서 산과 바다로 즐겁게 여행도 다니게 됩니다.

침울했던 시각장애소녀 롤라는 안내견과 티격태격하는 일상생활을 통해 웃음과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시각장애 소녀의 일상이 밝게 표현되어 동정보다는 공감을 줍니다. 소녀를 이끌며 때로는 맞서기도 하지만 말없이 함께 하며 행복해 하는 안내견 스텔라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서로가 삶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멋진 이탈리아 유화 그림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떼구루루~돌고 도는) 100원의 행복



이상배 글 | 조혜진 그림
좋은꿈 | 2014 | 80p

2014년에 태어난 100원짜리 동전 ‘떼구루루’의 세상 여행을 통해 돈의 쓰임과 가치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떼구루루’는 세상을 돌고 도는 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떼구루루는 욕심 많은 구두쇠의 첫 거스름돈이 되면서부터 세상 여행을 시작합니다. 구두쇠의 자장면 값, 채소장사 할머니의 우동값 거스름돈, 동냥돈, 동냥아치의 라면값으로 여러 사람의 주머니를 들락거리고 한번은 구두 닳은 아이에게 주는 용돈으로도 쓰입니다. 갑자기 캄캄한 장롱 틈사이로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돼지저금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 떼구루루는 돈이 얼마나 다양한 장소에서 쓰이는지 알게 됩니다.

이를 동안 정신없는 여행을 마친 떼구루루는 소녀가장 ‘순미’를 돕는 기부금이 됩니다. 작은 돈들이 모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곳에 자리 잡으면서 이런 고운 마음을 실현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하찮은 100원짜리 동전이지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도 느낍니다. 요즘과 같은 물질만능의 시대에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통하여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사람이 뭐야? : 아빠가 들려주는 진화의 비밀



최승필 글 | 한지혜 그림
창비 | 2015 | 111p

『사람이 뭐야?』는 ‘아빠가 들려주는 진화의 비밀’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이가 일곱 살 때 던졌던 질문에서 이 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사람이 뭐야? 사람은 다른 동물이랑 왜 이렇게 달라?”라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아빠에게 물어보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아빠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인간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동물과 다른 인간의 여덟 가지 특징을 잡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빠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따뜻한 대화체 글은 읽기에 편안하고 세밀화 일러스트는 동물의 개별적인 특징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빠가 아이의 성장 사진을 보며 사람의 특징을 짚어 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접근도 새롭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시선에서 아이를 향한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어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



오승현 글 | 소복이 그림
토토북 | 2015 | 103p

올해 8.15는 광복 70년입니다. 독립이나 광복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유관순 누나입니다. 그런데 유관순처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안중근이나 윤봉길은 아저씨나 형,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 유관순 열사만 누나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처럼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뀌요!』는 여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을 향해 무심코 쓰는 말 속에 담긴 차별과 편견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는 앞서 소개한 ‘유관순 누나’는 누나라는 표현을 씌으로써 ‘안중근 의사’와 달리

여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성차별 의식이 담긴 공정하지 않은 호칭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의 힘에 크게 휘둘려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온 말이 우리의 생각을 가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른 말의 사용은 바른 사고로 이어지기에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 왔던 차별과 편견이 담긴 말을 돌아보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 형성을 위해 바른 말 사용 설명서로 어린 이뿐 아니라 부모와 교사에게도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소원을 말해 봐: 꿈이 담긴 그림, 민화



김소연 글 | 이승원 그림
비룡소 | 2014 | 35p

‘민화’라고 들어 보셨나요? 민화(民畵)는 한자로 ‘백성의 그림’을 뜻해요. 조선 후기 산업이 발달한 때 유행한 그림으로 이전까지 그림들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비해 민화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자손을 많이 낳고, 부부 사이가 좋기를 빌고자 걸었어요.

어린 소년 오복이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오복이는 시장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림 그리는 장수를 만나요. 그는 오복이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겠으니 함께 떠나자고 제안해요. 길을 나선 오복이는 ‘화조도’,

‘모란도’, ‘호작도’, ‘백동자도’ 등 다양한 소원이 담긴 그림을 만나요. 과연 오복이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될까요?

아름다운 민화풍의 그림으로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감흥을 안겨 주는 이 책은 2006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되었던 이승원 그림책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민화 속 그림에는 호랑이, 까치, 물고기, 학 등 친근한 동물이 자유분방하게 묘사되고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보는 재미가 더해져요. 또한 민화만의 화려한 색채에 마지막 책장을 넘길 때까지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신기하고 조금은 슬픈 역사 속 낙타 이야기



설훈 글 | 안재선 그림
스콜라 | 2015 | 79p

요즘은 동물원에 가야만 낙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낙타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신기하고도 조금은 슬픈 역사 속 낙타 이야기』는 흔히 들어 본 적이 없던 우리 역사 속 낙타에 얹힌 이야기들을 옛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흥미롭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낙타 선 마리를 모두 굶어 죽게 한 임금님, 낙타를 사고 싶었으나 사지 못했던 임금님, 낙타를 너무 보고 싶어 했던 선비, 낙타를 보고 슬퍼하던 임금님 이야기들이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 조상들과 관련된 낙타 이야기가 우습기도 하고 때론 슬프기도 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야기 끝에는 역사 퀴즈와 역사 용어 사전이 실려 있어 초등 저학년이 어려운 역사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훈 작가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고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로 2010년 제1회 창비 청소년도서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고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입술 유령의 자신감 수첩



상진아 글 | 박정섭 그림
웅진씽크빅 | 2009 | 35p

〈사회성을 키우는 동글 세모 이야기〉 시리즈 중 〈더 나은 내가 되기〉 파트의 한 권인 이 책은 평소에 자신감이 없는 주인공, 심우주 어린이가 자신감 수첩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내용이다. 자신감 테스트를 해 볼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우는 법칙을 배워 소심한 어린이가 씩씩하게 크는 데 도움이 될 좋은 책이다. 만화 형식의 재미있는 그림과 적당한 글밥으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 주는 책이 될 것이다.

김미경 노원평생학습관 사서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



데이비드 스미스 글 | 스티븐 애덤스 그림 | 황세림 옮김
푸른숲주니어 | 2015 | 39p

만약에 지구 역사를 1년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인류가 등장한 것은 언제쯤 일까요? 지구가 1월 1일에 생겼다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예요! 이렇게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가늠하기 쉬운 단위로 상상하고 살펴보니,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짧은지 제대로 실감이 나지요?

이 책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큰 규모를 30cm 줄자나 식빵조각 등의 친근한 단위로 축소하여 보자고 제안해요. 이런 설정은 실제 숫자를 접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줘요. 수리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운 개념과 대상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마지막 장에는 '인간의 일생이 12조각으로 나뉜 커다란 피자라면'으로 가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을 피자로 가정한다면 책을 읽었던 시간은 몇 조각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이 책과 함께 저자 데이비드 J. 스미스의 전작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을 함께 읽어 본다면 축소와 비례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현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지렁이 똥을 흠쳐라



김은의 글 | 유설화 그림
스콜라 | 2014 | 94p

이 책은 지렁이의 역사와 생태, 특징 등에 대해 세린이와 하늘이의 지렁이 농장 체험기를 통해 알려 줍니다. 세린이와 하늘이는 우연히 지렁이 농장에 가서 농장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농장의 괴짜 할아버지는 그 벌로 그들에게 지렁이를 기르고, 지렁이 똥으로 식물을 기르고, 지렁이 일지도 쓰라고 합니다. 하늘이는 지렁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도 주고 지렁이 똥에 감자를 심습니다. 지렁이를 싫어하는 세린이는 맨땅에 감자를 심는데 하늘이의 튼튼한 감자싹과 자신의 감자싹을 보고 지렁이 똥이 식물에게 좋은 비료가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은 지

렁이를 조금씩 알아 가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신나게 키우게 됩니다.

이야기 단락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관련 지식이 첨부되어 있어 지렁이를 더 잘 이해할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삽화들이 코믹하고 친숙하게 그려져 지렁이를 귀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못생기고 징그럽기만 한 지렁이가 음식 쓰레기 해결사이며, 식물들에게는 천연비료를 제공해 지구 환경을 지켜 주는 고마운 동물임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지렁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매우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은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개와 고양이의 은밀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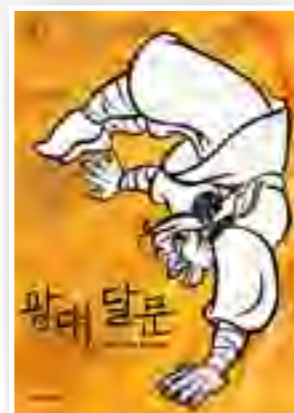


김종렬 글 | 신은숙 그림
한림출판사 | 2014 | 138p

『개와 고양이의 은밀한 시간』은 사람들이 모르는 개와 고양이만의 시간 속에서 동물들의 삶과 죽음을 그린 책으로 도시화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그동안 동물을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광대 달문



김영주 글 | 홍선주 그림
문학과지성사 | 2015 | 203p

여기 천한 거지 출신에다 얼굴마저 너무 못생긴 주인공 '달문'이 있습니다. 입은 뺨뚫어진 데다 너무 커서 얼굴의 반이 입인 것처럼 보이고, 찌진 눈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어 있어 누가 봐도 못난 얼굴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아이돌'이었던 실존인물 달문의 이야기입니다. 달문은 어떻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그는 뛰어난 재주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거지 움막에서 쫓겨나지만 다친 몸으로 움막에서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러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암 박지원은 달문의 의로운 행실을 알리기 위해 『광문자전』을 지었고, 역관이자 시인인 홍신유는 〈달문가〉라는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달문의 삶을 통해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의 외모보다는 내면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유미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견방이의 견방진 수련기



천효정 글 | 강경수 그림
비룡소 | 2014 | 173p

견이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를 잃고 외롭거나 답답할 때마다 들르던 비밀의 집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우연히 오방도사의 오방구절을 듣게 된다. 그러나 도사는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선 절대로 오방구절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돌아가신 스승과 약속한 바 있다. 한판 승부 끝에 견이는 오방도사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 '하늘의 방위'라는 뜻의 '견방이'라는 이름을 받고 권법을 수련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여 마치 독자가 함께 무술을 배우는 것 같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고민하는 아이로 자라는 과정이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이다.

어린이 심사위원 100명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제2회 스토리킹 문학상 수상작이며 '무협동화'라는 장르도 신선하다. 생동감 넘치는 그림은 2011년 볼로냐 아동 도서전 논픽션 부문에서 라카치상 우수상을 받았던 강경수 작가가 그렸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기억을 지워 주는 문방구



조규미 글 | 홍지혜 그림
살림어린이 | 2014 | 175p

살다 보면 하나 이상은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이 책의 주인공인 미지는 소풍 갔을 때 친구들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과 따돌림을 받았던 기억을 지우고 싶고, 전학 온 우정이는 아픈 엄마가 시골로 요양을 가는 날 싸웠던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두 친구는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귀신딱지 문방구'에서 힘든일을 잊게 해 주는 '오늘을 잊는 초콜릿'을 먹게 됩니다. 힘들었던 기억을 지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미지와 우정이는 기억을 잃는 것은 상처를 극복해 가는 최선의 방법 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기억이라도 상처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겠죠.

아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를 판타지로 풀어 가는 흥미로운 구성의 창작동화이며, 제11회 건국대학교 창작동화상 수상 작품이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많아 기운 빠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미지와 우정이가 갈등을 이겨 내는 과정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은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내가 진짜 기자야



김해우 글 | 민경숙 그림

바람의아이들 | 2015 | 163p

첫눈에 반한 소녀를 따라 신문 동아리에 힘겹게 입성한 5학년 진우의 성장기이다. 학급 기자가 된 진우는 짝사랑하는 편집장 선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로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먼저 학생의 입장에서 비위생적이고 식단이 다양하지 않은 학교 급식을 개선하고자 설문지를 돌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사를 작성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학교 홍보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사의 많은 부분이 삭제된다. 이 과정에서 진우는 편집권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된다. 이어서 체육대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 사건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게 된다. 진우는 학급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의도하지 않은 큰 시련이 찾아온다. 학생 기자 진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 여러 사건을 계기로 학급신문 동아리는 해체되고 진우는 아이들과 힘을 합쳐 ‘우리들 신문’을 발행하게 된다.

독자는 진우의 도전과 활약을 통해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기자라는 직업의 사회적 역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기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김진희 글 | 손지희 그림

문학동네 | 2015 | 167p

오늘도 동우는 준희를 괴롭히려고 쫓아가다 교통사고로 저승에 가게 됩니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잘못 가게 된 동우는 이승으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버스비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착한 일을 하면 저승 공간에 나만의 노잣돈이 쌓인다고 해요. 그러나 동우의 공간은 텅텅 비어 있어 공교롭게도 준희의 노잣돈을 빌려 되돌아오게 됩니다. 단 49일째까지 노잣돈을 갚지 못하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노잣돈을 갚기 위해 친구집에서 돈을 훔쳐 준희에게 갚지만 노잣돈 장부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노잣돈 장부에 있는 바를 정(正) 자가 사라질까요?

“고마움을 꼭 돈으로 표시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라는 저승사자의 말과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면 공간이 채워진다고 했음을 생각하고 준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49일 안에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 돌아왔어!”라는 동우의 마지막 외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책은 제15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수상작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진실한 양심과 학교 폭력, 왕따 등으로 얼룩진 지금의 학교생활에서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누리아 누리아



양귀자 글 | 김송이 그림

쓰다 | 2015 | 223p

『누리아 누리아』는 슬픈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았던 나누리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다. 아홉 살에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엄마마저 집을 나가 혼자 된 누리는 잇따른 불행과 슬픔을 겪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 누리를 의젓하게 성장하게 한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어린이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행복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두 얼굴의 여친



박현정 외 글

푸른책들 | 2014 | 153p

제12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 부문에 선정된 4편과 역대 수상 작가의 신작 2편이 실려 있는 소설집입니다. 행운의 편지를 소재로 한 「편지가 내민 손」, 다른 사람에게는 천사같이 행동하다가도 항상 ‘경우’에게만 못되게 구는 두 얼굴을 가진 같은 반 친구 ‘새별’이와의 이야기 「두 얼굴의 여친」, 쌍둥이 언니의 죽음을 극복해 가는 주은이네 가족 이야기 「4B 연필을 들고」 등의 단편이 담겨 있습니다. 중·단편 동화이기 때문에 분량의 부담 없이, 읽고 싶은 소설을 먼저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소설은 등장인물도 처해진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소설 속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빠의 실직, 가족의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이 소설집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유미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마지막 아이들



최정금 글 | 고상미 그림

해와나무 | 2014 | 211p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파라나’는 배가 난파되는 사고로 인해 신비의 섬 ‘가온’에 우연히 닿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나, 바람칼, 풀치 세 명의 아이와 눈이 여섯 개인 개 ‘얀’과 함께 모험을 떠납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발언권을 얻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문을 지나야 하는 여행입니다. 이 아이들 앞에는 어떤 신기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회색 톤인 일러스트는 신비의 섬 가온과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험난한 모험길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온’의 아이들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아이들』은 한국 작가가 쓴 판타지 이야기입니다.

어른, 아이 모두의 사랑을 받는 『해리포터』와 같은 해외 판타지 소설들이 많은데 그 작품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온의 아이들처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을 키워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유미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아빠, 소 되다



헬리 혜성 글 | 사사메야 유키 그림 | 김버들 옮김

한림출판사 | 2015 | 159p

연극·영화 제작, 시 낭독 대회 우승 등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의 첫 작품으로, ‘헬리 혜성’은 그의 가명입니다.

유이치의 아빠는 가족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소처럼 묵묵히 일합니다. 가족들이 소가 된 아빠를 발견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소로 변해 버린 아빠의 몸에 그대로 붙어 있는 파스나 더는 도시의 주택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된 아빠가 가족과 헤어져서 할머니댁으로 가는 장면 등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웃음과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소가 된 아빠는 외롭게 일하던 시절에 받지 못하던 가족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한 몸에 받습니다. 책 속에는 아빠가 어찌다가 소가 되었는지는 결국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아빠, 내 주변의 가족들이 이루어 가는 관계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유미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황선미 글 | 신지수 그림

비룡소 | 2014 | 118p

활발하게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반장 혜수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따돌림을 당했던 주경이가 어느새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전학 온 명인의의 구두 한 짝을 창밖으로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책은 자신에게는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주인공 공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공감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유령 놀이



서화교 글 | 소윤경 그림

살림어린이 | 2014 | 183p

한 아이를 유령으로 만들어 따돌리는 '유령 놀이'의 유령으로 지목된 주인공 서준이는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에 큰 상처를 받는다. 어느 날 공원에서 진짜 유령인 재희를 만난 서준이는 서로 몸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고, 서준이와 몸을 바꾼 재희는 공부도, 말도 잘하는 완전히 다른 서준이가 되어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유령 놀이'로 서준이를 괴롭혔던 민기는 바뀐 서준이가 진짜 서준이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가장 어두운 현실인 왕따를 소재로 한다. 각 챕터는 주인공인 서준, 민기, 소영, 재희 네 어린이의 시점으로 이야기와 심리를 풀어낸다. 이 책을 통해 왕따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들을 지켜만 보는 사람들 모두가 반성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우리들의 보물섬 제주도



황선미 글 | 조에스터 그림

조선Books | 2014 | 149p

가파초등학교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동화 속에서 아이들은 제주교 육문화축제를 준비하며, 제주도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된다. 아이들이 보물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아름다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제주도의 역사, 문화, 사회 등 제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 특별 부록으로 어린이를 위한 제주도 그림지도와 관광지 소개 및 입장권을 함께 담았다. 이 책을 읽고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도의 진짜 보물들을 직접 찾아보길 바란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정의의 악플러



김혜영 글 | 이다연 그림

스폰북 | 2015 | 151p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생긴다면 어떨까? 초등학교 6학년 준하는 우연히 만난 태오라는 친구에게서 열쇠가 달린 목걸이를 받는다. 처음에는 이 열쇠의 힘으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의 악점을 폭로하기 위해 '정의의 악플러'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플을 쓰기 시작한 준하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지만 차차 이것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열쇠의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된 준하는 그간의 행동에 책임질 방법을 고민하는데……. 준하는 이 열쇠와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 책은 정의를 빙자하여 올리는 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와 언어 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한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내 이름은) 직지



이규희 글 | 김주경 그림
밝은미래 | 2014 | 139p

『직지』는 백운화상이 불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거지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한 내용을 금속활자로 남긴 책이에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유물이기도 합니다. 『내 이름은 직지』는 직지가 화자가 되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 직지가 프랑스로 가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나갑니다.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한 박병선 박사님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박병선 박사님이 『직지』를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게 되기까지의 배경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도 『직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에서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직지와 금속활자의 역사도 함께 참고해서 보면 『직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은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책 안 읽고 사는 법



토미 그린월드 글 | 이희은 그림 | 박수현 옮김
책읽는곰 | 2014 | 285p

『책 안 읽고 사는 법』은 책을 안 읽기 위해 책 쓰는 숙제를 선택한 찰리 조 책슨의 고군분투 이야기입니다. 여섯 살 생일에 선물로 받은 전집으로 인해 책을 혐오하게 된 찰리 조는 책을 읽지 않으려는 전략이 성공해 또래 사이에서 ‘책 안 읽기 전문가’로 꽤 유명세를 탑니다. 그러나 쓴 책을 발표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은 책을 쓰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러 자료를 읽은 찰리 조를 발견하게 되는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점점 책 같은 책으로 변했어”라는 찰리 조의 말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 책은 요소요소에 기발한 책 안 읽기 노하우를 소개하는데, 찰리 조의 잔머리 계획은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또한 이런 기발한 책 안 읽는 방법을 알아내려 두꺼운 책 한권을 다 읽게 만드는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은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컬러보이



손서은 글 | 소윤경 그림
비룡소 | 2014 | 211p

방사능 오염과 세계전쟁 이후 암흑기가 지나고 인간과 로봇 할리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 ‘미르국’. 형형색색의 특이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컬러보이’라는 별명이 생긴 상민이의 이야기이다. 상민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누구든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면 ‘바누슈슈’라는 음료를 마시게 하지만 점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에 상민은 ‘바누슈슈’를 거부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다. 어느 날 상민은 대통령과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되고 결국 할리 로봇 제이슨의 도움을 받아 우사카섬으로 탈출하게 되지만 더욱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아이들이 뽑는 ‘스토리킹’ 본선까지 오른 작품으로 미래세계, 모험 등 자극적인 요소가 많아 읽는 동안 흥미를 높여 주고 있다. 기계문명의 발달 속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미래소설이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탄탄동 사거리 만복전파사



김려령 글 | 조승연 그림
문학동네 | 2014 | 121p

탄탄동에서 만복전파사는 누구나 아는 오래된 전파사입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전파사가 문을 닫게 되었고, 부모님은 도시를 떠나 시골 산속의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모님과 산속 별장으로 여행을 떠나 낡은 집에서 산타클로스 마을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고장난 장난감, 뿔이 부러진 사슴들의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집으로 돌아와 친구 유동이와 낡은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놀다가 자린고비 할아버지가 사는 시간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은근히 빈틈이 많은 자린고비 할아버지와 아이들의 대화는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또한 지금은 낯선 이름이 되어 버린 전파사, 카세트테이프에서 녹음이 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어른들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작가 김려령의 작품으로는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은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휴가 온 외계인



클리트 배럿 스미스 글 | 박정섭 그림 | 장현주 옮김

책읽는곰 | 2015 | 314p

여름방학을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된 스크럽은 도착하자마자 창피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은하 여관'이라는 수상한 간판과 반짝이는 행성의 그림으로 꾸민 할머니 집은, 과장망측한 여름 감옥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크럽은 할머니의 은하 여관이 사실 외계인들이 지구로 휴가를 올 때 사용하는 접수처이자 숙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스크럽은 할머니를 돕고, 외계인에 관심이 많은 친구 에이미와 사귀면서 예상치 못한 모험과 함께 방학을 보낸다. 은박지와 표백제를 간식으로 먹거나, 오징어를 닮았거나, 머리 끝에 초록색의 야자 잎 같은 것이 돋은 기상천외한 온갖 외계인을 만나게 되는 스크럽. 하지만 보안관인 에이미 아빠는 은하 여관을 의심스럽게 보고 면허를 빼앗으려 한다. 스크럽은 무사히 은하 여관을 지켜 낼 수 있을까?

문현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이완배 글 | 박정원 그림

아르볼 | 2015 | 135p

〈돌콩 사회 톡톡〉시리즈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사회 지식과 정보를 담은 교양서이다. 톡톡이와 엉뚱이는 평소 경제를 몰라 곤란한 사건을 많이 겪지만 경제와 관련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때마다 나타나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쉽게 경제 개념을 익히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경제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다소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화폐의 기능, 수요-공급의 법칙, 환율 등 총 12가지의 경제 용어를 만화와 선생님의 설명으로 소개하고 있어 경제학의 기초 지식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돕는다. 또한 책의 말미에 나와 있는 ‘경제 용어 모아 보기’, ‘꼭 짚어 찾아보기’는 책 속의 경제학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게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10대를 위한 경제학 이야기라고 하지만 경제에 접근하고픈 모든 세대에게 좋은 책이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내 딸아, 현명한 선택은 너를 행복하게 한단다



오정은 글 | 최제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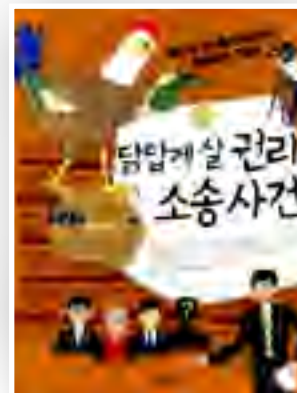
글고은 | 2014 | 165p

『내 딸아, 현명한 선택은 너를 행복하게 한단다』는 세상으로 나아갈 딸에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염려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철학책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일상의 소소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크고 위험한 선택들이 우리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 선택의 결과물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반복되는 선택은 습관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공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무조건 다수의 선택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야 할까요? 이 책은 정답과 공식은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참고할 수 있는 40가지 Tip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현명한 선택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답답게 살 권리 소송사건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뜨인돌어린이 | 2015 | 147p

이 책은 동물들의 불편한 진실을 편지, 인터뷰, 일기, 보고서 등 다양한 형식의 이야기로 구성한 동화집이다. 좁고 더러운 공간에서 평생 알만 낳다가 죽는 산란탕 등 동물들의 안타까운 삶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하고 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동물들의 고발장’이라는 부제에서 느낄 수 있듯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기에 동물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몫을 존중 받아야 한다. 한 편의 동화가 끝날 때마다 지구촌에서의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의미있는 활동을 소개하며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해 보게 된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당당마녀의 중학교 공략집



이기규 글 | 김영진 그림

책읽는곰 | 2015 | 154p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학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 학교생활 등 주변 환경도 크게 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는 것에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정말 배치고사를 잘 봐야 학교생활이 편해져?’,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면 어떡하지?’, ‘정말 일진한테 찍히면 끝장이야?’ 등 중학교 진학을 앞둔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주제별로 선정하여 궁금증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서현이와 윤재가 ‘당당마녀의 중학교 공략집’이란 누리집을 운영하는 ‘당당마녀’에게 문답하는 형식입니다.

저자는 실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내용이 현실적이면서 당연하게만 여겼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각 장의 끝에는 ‘당당마녀의 생각’ 코너를 실어 생각해 볼 문제나 학교생활 팁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생활이 궁금한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유미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대지진이 나던 날



고정욱 글 | 한재홍 그림
자유로운 상상 | 2014 | 136p

영산초등학교 4학년 으뜸반 교실에서는 독도가 누구네 땅인지에 대하여 열띤 토론 중이다. 엄마는 일본사람, 아빠는 한국사람이라는 이유로 항상 시선의 중심이 되는 건이. 심지어 같은반 친구 현철로부터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협박까지 받게 된다. '어려울 때 살아남고 힘들 때 견뎌 내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는 아빠의 뜻에 따라 힘들게 참아 낸다. 건이의 엄마는 일본에서의 잦은 지진으로 재난 대비를 하지만 건이는 그런 행동들이 우습기도 하고 낯은 컴퓨터나 바퀴 주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지진이 발생하고 사전 준비를 늦추지 않았던 건이네는 힘들지만 무사히 헤쳐 나가게 된다. 하지만 주인공과 친구 현철이의 엇갈린 운명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기도 한다.

이 책은 재난을 주제로 한 동화이다. 사실 우리는 재난이 얼마나 무섭고 준비가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 그러나 한재홍 작가의 사실적인 그림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지식을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책 속에서 소개된 재난 관련 Tip은 우리의 안전의식에 지침이 된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소로 씨, 삶엔 무엇이 있나요?



권은미 글 | 최라톤 그림
눈이깊은아이 | 2014 | 141p

어린이를 위한 철학 시리즈 <눈이 깊은 아이 철학을 말하다> 3권으로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소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와 전쟁에 반대한 소로의 철학은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은 소로의 저서 『월든』, 『시민불복종』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로는 28달러가 조금 넘는 돈으로 월든 숲에 오두막을 짓습니다. 월든 숲에서의 인디언 소녀와의 만남, 우정 속에서 삶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월든 숲은 소로에게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숲에서조차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책의 중간과 끝에 포함되어 있는 '철학 만나기'와 '생각 넓히기' 코너는 인종차별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로의 목소리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유미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로봇 박사 데니스 홍의 꿈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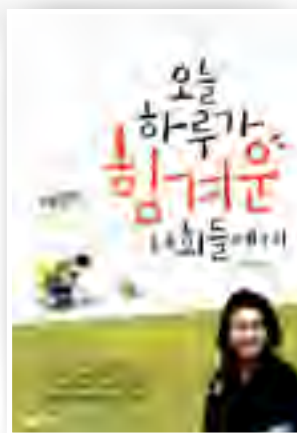


데니스 홍 글 | 유준재 그림
샘터 | 2014 | 159p

『로봇 박사 데니스 홍의 꿈 설계도』는 어린 시절 호기심 가득한 장난꾸러기 데니스 홍이 지금껏 자라 오면서 겪은 이야기들과 꿈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꿈을 꾸고, 꿈을 올바르게 좇아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며,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현명한 이해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 책은 데니스 홍이 2013년에 펴낸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의 내용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오늘 하루가 힘겨운 너희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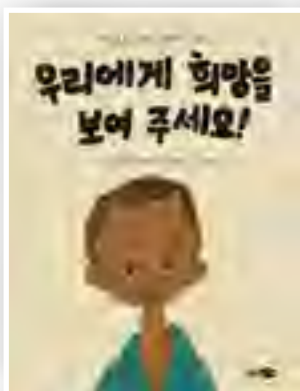


오은영 글
녹색지팡이&프레스 | 2015 | 208p

『오늘 하루가 힘겨운 너희들에게』는 나비의 번데기 시절과 같이 혼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춘기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아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또래 사춘기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답답한 마음과 행동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따뜻한 위로와 때로는 따끔한 조언을 건네는 이 책을 길잡이 삼아 아이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춘기라는 긴 터널을 잘 통과하길 바란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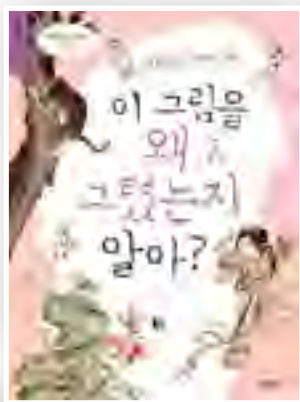
서지원 글 | 윤세정 그림

소담주니어 | 2014 | 116p

이 책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발다, 마녀 사냥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지안, 소년병으로 납치를 당했던 소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북, 햇살을 쬔 권리를 돌려받고 싶은 대한이 등 보호받아야 할 다섯 아이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어린이 인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선아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 사서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



송희경 글 | 김종석 그림

웃는돌고래 | 2015 | 188p

이 책은 우리 옛 화가들과 그들이 남긴 그림에 숨어 있는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그림을 사랑했던 우리 옛 화가들에게는 대부분 저마다 흠뻑 빠져서 그렸던 대상이 있었다. 강아지, 물고기, 소나무, 매화, 아리따운 여인까지 아주 다양했는데, 이 책은 그 다양한 대상을 세 가지로 묶어 소개한다.

1부는 동물을 예뻐한 화가들 이야기고, 2부에는 소나무를 멋들어지게 그린 정선처럼 식물을 사랑했던 화가들 이야기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3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멋지게 그렸던 화가들의 이야기를 실었다. 옛 그림을 볼 때마다 '옛 화가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 하고 궁금증을 느낀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옛 그림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조선 수학의 신, 홍정하



강미선 글 | 권문희 그림

휴먼어린이 | 2014 | 187p

수학의 역사 하면 일반적으로 서양 학자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수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주인공 톨이는 홍정하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지만 수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대표 수학자인 홍정하가 쓴 『구일집』의 문제들을 조선시대 생활 속 다양한 수학 이야기로 들려주는 수학 동화입니다. 동화 속에는 역사 속 홍정하의 실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흥미진진! 조선의 수학 이야기' 코너를 실어 조선시대 수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권말에는 『구일집』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 볼 수 있는 코너도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수학의 역사와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유미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지구사용설명서 2



환경교육센터 기획 | 장미정 외 글 | 김지민 그림 및 스토리텔링

한솔수북 | 2014 | 153p

이 책은 막쓸레옹 가족의 지구 생존 여행을 통해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아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지키고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 준다. 페이지 중간마다 '~는 지금!'이라는 코너에서 현재 지구촌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구를 사랑한다면'에서는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소개한다.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 막쓸레옹 가족처럼 나는 '지구를 망하게 할 인물'은 아닌지 반성해 보고, 지구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도 찾아보길 바란다.

김선아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사서

지구에서 계속 살래요



게바 실라 글 · 그림 | 김배경 옮김

책속물고기 | 2015 | 101p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힘들어하는 지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인 환경문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대화체로 설명합니다.

이 책에는 누구나 환경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일 쓰레기 10개를 주워 가까운 쓰레기통에 넣는 '티끌 모아 태산 게임'은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 곳곳에 있어 직접 참여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 만큼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유미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철이, 가출을 결심하다 : 마음을 보는 책 장자



김선희 글 | 이현미 그림

학고재 | 2015 | 123p

돌아가신 엄마와 지방근무 하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하는 누나와 크게 싸운 초등학교 5학년 철이는 무작정 집을 나왔다. 그러다 '도사'라는 이름의 아저씨를 만나고 아저씨는 철이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며 보석 같은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철이에게는 해결 안 되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사고를 겪고 '먼저 마음을 열어 보이라'는 도사 아저씨의 마지막 숙제를 행하면서 표현에 서툴렀던 아버지와 오해도 풀고 가족의 사랑도 되찾는다.

이 책은 학고재 <동양고전> 시리즈 일곱번째 작품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을 중국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인 '장자'의 가르침을 동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아울러 철이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한문 원문과 상세한 풀이가 수록되어 있어 참고하여 더 깊이 공부해 볼 수 있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조경희 글 | 원정민 그림

어린이나무생각 | 2014 | 159p

자신의 감정은 감추고 상대를 대해야 하는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아울러 고객이 왕이란 말을 오해하여 점점 폭군이 되어 가는 고객을 '블랙컨슈머'라고 한다.

이 책은 '블랙컨슈머'로 인하여 감정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와 동료들의 이야기이다. 살 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한 구양순 여사의 아들 태양이의 '노동'에 관한 모둠 발표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힘든 과정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하고 있다.

이 책과 함께 <어린이나무생각 문학숲> 시리즈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여 생각의 깊이를 키워 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한다. 남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성미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고래 날다



박경희 글
다른 | 2015 | 215p

이 책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이들이 날개학교에서 꿈을 찾는 과정을 그린 청소년 소설이다.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시기의 청소년을 주변인이라 부른다. 이 책은 또래 집단, 학교, 가족 등 어디에도 정확하게 소속되지 못하고 지내고 있어서 주변인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네 아이의 이야기를 담았다.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뺨뺨어진 것처럼 행동해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몽희, 은규, 태수, 아영이는 각자의 아픔을 안은 채 날개학교에 오게 된다. 네 주인공은 저마다 '공정 여행'이나 '교환 수업', '직업 체험' 등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기 시작한다. 어디에도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설 자리를 발견하고 꿈을 찾는 긴 여정을 보여 준다.

이소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국문학 미리보기



김영희 글 | 소복이 그림
길벗스쿨 | 2014 | 181p

이 책은 〈청소년 진로탐색〉 시리즈 중 '국문학'에 대해 미리보기를 제공해 준다. '국문학'이라고 하면 따분하다고 느끼거나 나와 동떨어진 어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문학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문학이 만들어 내는 효과, 문학 하는 즐거움 등을 마치 내 앞에서 직접 이야기해 주듯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 또한 문학을 하고 있고, 문학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할 힘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이야기를 통해 사람 사는 삶을 알아갈 수 있어"라는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힘을 가진 문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관계의 온도



김리리 외 글 | 유영진 엮음
문학동네 | 2014 | 204p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친구, 이웃, 동료까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들과의 관계를 이어 나가고 소통해야 할지가 큰 고민일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특히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로 관계에서 또한 복잡하고 난해해집니다.

『관계의 온도』는 아동청소년문학가 7명이 쓴 7편의 단편소설집으로 청소년에게 이런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문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기다리는 소녀, 뜨개질을 하면서 반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꾼 소년, 새아빠와의 거리를 좁혀 가는 소년 등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이야기들을 읽어 나가며 나 또는 내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또 다른 고민거리인 미래, 콤플렉스를 주제로 한 단편소설집 『내일의 무게』, 『콤플렉스의 밀도』 또한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나는 말하기 좋아하는 말더듬이입니다



빈스 바터 글 | 김선영 옮김
푸른숲주니어 | 2015 | 239p

『나는 말하기 좋아하는 말더듬이입니다』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극복해 가는 열세 살 소년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빅터는 두 눈과 두 팔, 두 다리를 가진, 짧게 깎은 머리의 소년입니다. 하지만 말을 더듬는 자신을 모자라다고 여기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낯선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문 배달을 한 달 동안 돕다가 만난 스피로 아저씨와 청각 장애로 TV만 보고 지내던 폴 등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상처와 배움을 얻으면서 자라납니다.

이 책은 사회적 관계를 기피하던 빅터가 타인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말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 줍니다. 장애를 고치지는 못해도 극복할 수 있으며, 그 힘은 본연의 자기 모습을 마주하고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는 말 더듬는 증세를 고치지는 못했지만 잘 이겨 내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4년 뉴베리 아너상을 받았습니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선암여고 탐정단 : 탐정은 연애 금지



박하익 글

황금가지 | 2014 | 416p

유쾌하고 독특한 다섯 명의 여고생 탐정단이 돌아왔다! 2012년 '방과 후의 미스 터리'에 이은 두 번째 책으로 주인공들은 조금 더 무거운 요즘의 교육 현실에 부딪히며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전교 등수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의 귀신사건을 해결하는 '선암여고 기숙사 귀신사건', 아이돌 그룹의 의뢰를 받아 방송계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원위크 걸그룹', 실종된 남학생의 종적을 찾는 '사라진 책가방'. 탐정단은 성적과 장래에 대한 고민, 왕따, 게임중독 등 또래의 문제를 경쾌한 추리극으로 발랄하게 풀어 나간다.

조윤미 증평도서관 사서

세븐틴 세븐틴



이옥수 외 글

사계절 | 2015 | 211p

열일곱 살은 세상을 충만한 감성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세븐틴 세븐틴』은 우리 청소년문학의 출발을 연 사계절 1318문고의 100번째 책을 기념하는 책으로 그동안 이 시리즈에서 작품을 펴낸 대표적인 작가 여덟 명이 참여한 단편집입니다. 작가들은 어른들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청소년 시기의 찬란한 슬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별점을 받아 나간 봉사활동에서 이구아나와 함께 사는 노인을 돕게 된 소년, 괴담 속 아파트 귀신을 확인하러 나선 소년들, 11살 때부터 세 명의 고모와 큰아버지 집을 전전하며 지내온 소년, 성형외과에 다녀온 후 턱이 조금씩 자라나는 소녀의 이야기 등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없는 청소년들의 속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려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십대의 삶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를 지나는 성인들도 지난 시기의 아픔과 희망을 떠올리기에 좋은 책입니다.

이소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세상의 수호자들



시몬 스트랑게르 글 | 손화수 옮김

갈매나무 | 2014 | 261p

이 작품에서는 사는 곳과 형편이 전혀 다른 두 인물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됩니다. 고등학생 에밀리에는 노르웨이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반면 리나는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에서 일합니다. 에밀리에는 우연히 만난 안토니오를 통해 '세상의 수호자들'이라는 비밀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클럽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입고 버리는 티셔츠 한 장, 초콜릿 한 조각 뒤에도 다국적 기업에 의해 노예처럼 학대당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밀리와 또래의 친구들은 다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입니다.

노르웨이의 작가 시몬 스트랑게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평범한 10대들의 성장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권합니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시크릿 박스



김혜정 지음

자음과모음 | 2015 | 251p

이 책은 『다이어트 학교』, 『잘 먹고 있나요?』를 쓴 김혜정 작가의 신작이다. 『시크릿 박스』라는 제목을 '비밀 상자'라고 해석하면 청소년들의 비밀이야기를 다루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기대와 달리 이 책은 창업에 대한 도전과 십대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울, 다숨, 유준, 지후, 넷은 현실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고등학생 아이들이다. 이들이 모여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심리변화, 친구와의 관계, 녹록치 않은 세상으로의 한계 등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공과 실패를 함께 맛보며 점차 성장해 간다. 십대라도 자신이 한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감'과 십대만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패기 가득한 '도전'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책이다. '나는 안돼.'보다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고 꿈이 없어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비밀 선물이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14세와 타우타우씨



우메다 순사쿠, 우메다 요시코 글 · 그림 | 조세진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 2014 | 304p

중학교 2학년생인 '요시오'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친구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옥한 마음에 사고를 치면서 마지못해 휴학을 하게 된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던 요시오의 눈에 마을에서 이상행동을 하며 돌아다니는 타우타우씨가 들어온다. 타우타우씨는 자유로우면서도 세상 만물에 대해 인정이 많은 모습을 한 사람이다. 요시오는 그를 보며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 간다. 요시오는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의 꽃이 빨리 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천천히 필요한 시간을 채워야 꽃이 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늘 자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요시오에게는 사실 타우타우씨, 사쿠라 선배, 할머니, 할아버지, 고보 선생님 등 좋은 사람들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큰 용기를 낸다. 오랜 방황을 접고 인생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요시오의 모습에서 벅찬 감동이 느껴진다. 『14세와 타우타우씨』는 그림책인데 청소년문학으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책 속의 그림들은 14세 소년 요시오의 눈에 비친 세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시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날카롭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다. 나무 위에 그려 나뭇결을 그대로 살린 배경 그림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사춘기 중학생인 요시오에게 작가의 시선이 일차적으로 맞추어져 있지만 선생님, 학부모, 타우타우씨 등의 요시오 주위의 어른들도 저마다의 어려운 사정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르는 척』으로 국내에도 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일본 작가 우메다 순사쿠와 우메다 요시코의 작품이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앨리스의 소보로빵



홍명진 글

북멘토 | 2015 | 200p

『앨리스의 소보로빵』은 치매에 걸린 엄마를 둔 열네 살 소녀 두희와 두희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입니다.

마흔다섯 살인 엄마는 일곱 살 아이처럼 변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소보로빵에 말을 건네고, 딸 두희를 아가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에 게 엄마는 함부로 떼어 낼 수 없는 커다란 혹과 같다”는 말이 어린 두희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두희는 엄마를 늘 돌봐야만 하고, 엄마가 잠들어 있을 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이 버겁기도 합니다. 두희와 친구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엄마의 존재와 더불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홍명진 작가는 2012년 『우주 비행』으로 제10회 세계절문학상과 우현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어나더 미 : 우리는 왜 기적이어야 했을까



아나이스 보르디에, 사만다 푸터먼 글 | 정영수 옮김

책담 | 2015 | 365p

“어느 날 유튜브에서 나와 똑같은 얼굴을 발견했다.” 영화 ‘에너미’의 한 장면처럼 시작하는 이 책은 실은 그 어떤 소설보다 극적인 울림을 담고 있는 실화이다. 1987년 부산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는 각각 다른 나라로 입양되고,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26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중 한 명인 아나이스가 자신과 꼭 닮은 사만다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발견하면서 두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설렘과 의심, 혼란 속에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입양의 슬픔을 말하는 대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가족의 사랑에 대해 말하며, 독자에게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윤미 증평도서관 사서

옆집 아이 보고서



최고나 글

한우리문학 | 2015 | 243p

『옆집 아이 보고서』는 오목조목 할 말 다 하는 ‘박무민’의 반성문으로 시작합니다. 퇴학 위기에 놓인 문제아 무민이는 1년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옆집 아이 지순희를 관찰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지순희’를 학교에 다시 나오게 하면 무민이 받을 징계도 없어진다는 건데요, 스스로 자신을 방에 가둔 순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무민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순희의 진술서와 무민의 관찰 보고서로 구성된 이 작품은 청소년의 언어로 말을 건넵니다. 무엇이든 함부로 오해하고 규정짓는 세상의 잣대를 비판하는 동시에,

평범한 아이들의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내 주는 소설입니다. 작가는 진술서와 보고서로 교차되는 독특한 서술 방식을 통해, 결코 가볍지 않은 청소년기의 어두운 일면을 억지 부리지 않고 마주 보게 합니다.

제4회 한우리 문학상 청소년 부문 당선작으로 아이들에게 침묵하라고 하는 어른들과, 학교의 비정상적인 권력에 상처받는 상황들을 재치 있게 고발합니다. 우리의 옆집 아이, 순희는 진정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오더 메이드 살인 클럽



초지무라 미즈키 글 | 김선영 옮김

북스토리 | 2012 | 464p

센스 없는 엄마와 평범한 아이들에게 염증을 느끼는 중학교 2학년 소녀 고바야시 앤은 자신의 이름도 학교도 지긋지긋할 뿐이다. 살인사건 기사를 스크랩하고 다른 아이들은 보지 않는 책을 찾아 읽으며 ‘부끄러운 청춘’에 폭 잠겨 있는 소녀는 어느 날 동급생 도쿠가와 쇼리에게 자신을 살해해 주기를 부탁한다. 지역 언론에 회자될 정도로 화려하고 인상적인 죽음을 원하는 두 소년 소녀는 수차례 토론과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가장 이상적인 살인을 계획한다.

이 책은 ‘중 2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부끄럽고, 모든 것이 너무 느려 참을 수 없던 시기. 스무 살 이후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

조차 버거운 철없는 소녀의 기행과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사건을 일으키려 했던 소녀의 동조는 ‘어느 완벽한 밤’을 기점으로 깨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 여생을 사는 둘은 저지르지 못한 비극의 기억을 가슴에 안고 그저 인정하고, 각오하고, 포기하고, 가능하면 즐겁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조윤미 증평도서관 사서

의자 뺏기



박하령 글

살림출판사 | 2015 | 182p

성격과 행동 모두가 다른 일란성 쌍둥이 은오, 지오 자매는 어렸을 때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 부모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원치 않는 양보를 하게 되는 소심한 성격의 언니 은오,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하며 엄마의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자기 보호를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동생 지오, 모두 어른들의 과욕에 치여 자라난 아이들이다. 이 둘이 다시 한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미있게, 때로는 가슴 먹먹하게 그려 나가고 있다.

은오의 시점에서 내용이 전개되는데, 피해의식과 소심함으로 가득 찼던 은오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지 함께 따라가다 보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의자 뺏기’라는 제목이 살아남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몫을 잘 건사하자는 의미의 건강한 ‘의자 뺏기’라고 하였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청소년들이 남이 아닌 본인을 위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5회 살림 청소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



정약용 글 | 박지숙 엮음

보물창고 | 2015 | 21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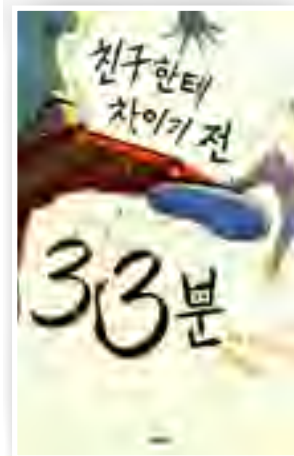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는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엮은 서간집으로 학자 이전의 인간 정약용을 만날 수 있다. 두 아들과 제자에게 보낸, 가슴으로 전하는 가르침과 형제간의 학문 토론을 읽다 보면 정약용의 인간적 면모와 삶에 대한 태도가 전해진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비롯해, 아들에게 내리는 교훈, 형님에게 드리는 편지, 제자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담은 인생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엄하고 다정한 아버지이자 속 깊은 동생으로, 때론 강직한 스승의 모습들이 구석구석 녹아 있다.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학자’로 불리는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김홍도, 조선을 그리다』의 박지숙 작가는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를 청소년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읽기 쉽게 엮었다. 관련 도판은 물론 중간 중간 유배 이야기, 시 세계, 정약용의 형제들, 저서 등 정약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200년 전으로부터 온 정약용의 편지를 통해 잠시나마 되새김의 시간이 머물기를 바란다.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토드 하삭 로위 글 | 김영아 옮김

미래M&B | 2015 | 199p

샘과 모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로 흔히 말해 ‘베프’였는데, 중학생이 되고부터 점차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샘은 공부, 모건은 운동으로 관심사가 달라져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했고 새로 전학 온 크리스의 이간질까지 더해지면서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멀어진다. 그러다 샘이 생각 없이 적은 쪽지로 인해 한때 베프와의 ‘맞짱’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샘과 모건의 우정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이 책의 주인공들처럼 단짝이었던 친구와 점차 멀어지고 서먹해져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듯이 우정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친구를 만들고 우정을 쌓아 가는 것만큼이나 ‘우정의 종말’ 또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샘과 모건을 보면 가볍게 여겼던 친구 관계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뻔하지 않은 결말로 반전을 선사함과 동시에 익살스러운 그림이 곳곳에 더해져 보는 재미도 크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이주은 글

이봄 | 2013 | 287p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유럽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특정 시기를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절)’라고 부른다. 오늘날 향유되는 기술과 문화의 태동기이자 당대의 사람들이 시대적 변화를 체감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랐던 시기이다. 미술사학자인 저자는 미술작품과 문학 속 장면을 통해 시대를 설명한다. 백화점과 영화, 기차, 비행기, 바캉스, 자전거 등 그 시대에 새로이 태어난 문물에 경탄하고 이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을 저자의 설명에 따라 읽어 내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과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조윤미 증평도서관 사서

홀리스 우즈의 그림들



패트리샤 레일리 기프 글 | 원지인 옮김

보물창고 | 2014 | 214p

여기, 상처받은 한 소녀가 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곳의 지명에서 따온 ‘홀리스 우즈’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 『홀리스 우즈의 그림들』은 가족의 부재로 오는 상실감,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의 혼란과 어려움을 열두 살의 시선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먼저 도망가는 홀리스는 위탁가정을 떠돌며 정착하지 못한다.

홀리스가 그린 열네 장의 그림은,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 수 있는 가족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장치다. 리건 가족과의 생활을 담고 있는 그림과, 점점 마음을 열어 가는 조시 아줌마와의 생활은 낯설과 씨실처럼 잘 짜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X’라는 첫 번째 그림은 상징적이다. 가족을 소망(wish)하고 원하는(want) 홀리스의 가족을 그린 그림에서, ‘W’자를 찾지 못한 에반스 선생님은 그림 위로 ‘X’표를 긋는다.

이 작품은 가정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와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들 중 성공작으로 꼽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작가는 『홀리스 우즈의 그림들』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동청소년문학상인 ‘뉴베리상’과 ‘크리스토퍼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흰별소



이순원 글 | 이소영 그림

단비 | 2015 | 211p

강원도 깊은 산골, 우추리 차무집 외양간에도 세월은 흐른다. 워낭으로 전해 내려오는 차무집 외양간 12대의 내력은 어미와 생이별한 *그릿소가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그릿소는 차무집 외양간의 큰할머니가 될 ‘흰별소’를 낳고 돌아간다.

바깥 세상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차무집 외양간이지만, 갑신정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현장까지 한국의 백년사를 주변 배경으로 삼는다. 우리 민족과 더불어 생업을 함께하며 살아온 소와 인간의 삶을 반추하는 대목이다. 『흰별소』는 그렇게 소와 함께하는 차무집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낸다. 소와 사람의 시점이 교차되는 소설의 구성 또한 사람을 속 깊이 이해하는 소와의 교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1985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서 ‘소’로 당선된 이순원 작가는 다시 『흰별소』를 통해 소와 인간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려 냈다. 한 권의 소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빠른 속에서 소의 발자국 같은 느낌을 느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릿소: 소가 없는 가난한 집이 남의 집에서 빌려다 키우는 소를 일컬음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나는 왜 자꾸 짜증이 날까?



얼 힙 글 | 김선희 옮김
뜨인돌 | 2015 | 199p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말다툼,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책은 '중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처방전'이란 부제처럼 스트레스의 정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10가지 비법을 알려 줍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긴장을 푸는 연습, 시간 관리 등의 해결법을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냅니다. 또한 각 장의 끝에는 '함께 보면 좋을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사는 호랑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매사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결법을 찾아서 마음속 호랑이를 잘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빼돌빼돌 가도 좋아



이남석 지음 | 김현영 그림
사계절 | 2015 | 181p

'빼돌빼돌 가도 좋아'가 이 책의 제목이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이 책은 '작심 삼일' 수정이와 '범생이' 규식이 겪는 좌충우돌 도전기다. 사계절 지식소설 시리즈의 열 번째 책으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 에피소드에 심리학적 접근을 곁들여 보여 준다. 먼저 소설의 형태로 주인공의 도전과정을 풀어낸 후, 각 장의 끝에는 '생각의 징검다리' 코너를 만들어 최신 심리학 이론과 실험 성과에 대한 소개를 담았다.

꿈과 직업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금은 꿈을 꾼다 좋다. 설령 그것이 한없이 무모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빼돌빼돌'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앓는 나비(함민복의 시 '나를 위로하며')가 되는 건 어떨까? 독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의무이니까.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발레하는 남자 권투하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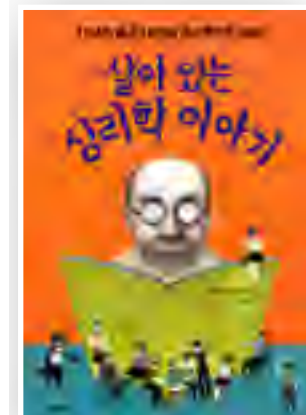


임옥희 글 | 어진선 그림
풀빛 | 2015 | 323p

왜 우리는 화장하고 치마 입고 뜨개질하는 남자아이, 해커나 첩보요원, 오지탐험가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아이를 상상하기 힘들까? 일견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 이 책은 여자 대 남자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당대의 삶과 의식이 반영된 문학을 통해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을 결정짓는 내면의 무의식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헤친다. 고전과 신화, 현대 소설 속에 나타난 양성불평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해결점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윤미 증평도서관 사서

살아 있는 심리학 이야기



류쉬에 글 | 허진아 옮김
글담출판사 | 2014 | 269p

이 책의 수식어는 '10대가 묻고 18명의 심리학자가 답하는'이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심리학 관련 질문은 무엇이며 어떤 심리학자가 대답을 해 주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일반 심리학 서적과는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만날 수 있다. 총 18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리학자 프로이트, 융, 손다이크를 비롯하여 페스팅거, 올포트, 트버스키 등이 직접 등장하여 우리가 평소 궁금해했던 심리학 이야기를 들려주며, 암기, 실수, 성격, 열등감, 사랑 등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심리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십대,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



전진우 글
팜파스 | 2014 | 223p

청소년 시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몸과 마음이 자라는 십대 시기에 '나에 대한 탐구'를 해 나가기를 권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를 알려 준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 '나를 알면 고민도 풀린다'에서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꿈과 직업을 헷갈리기 시작했으며, 직업으로 꿈을 한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4장 '일상을 내 것으로 저장하는 방법'에서는 매일 10분씩 글쓰기, 손글씨 써 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 주는데, 입시, 진로, 친구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많은 십대들이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책이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아베 히로시와 아사히야마 동물원 이야기



아베 히로시 글·그림 | 엄혜숙 옮김
돌베개 | 2014 | 159p

그림책 『폭풍우 치는 밤에』의 작가로 알려진 아베 히로시가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기 전 25년 동안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뚜렷한 꿈은 없었던 저자가 동물원 사육사로, 그림책 작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전적 에세이다.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난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어떤 일에 열정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17세의 책, 나의 고민을 들어줘



이지은 글
엘로스톤 | 2014 | 221p

‘청소년 고민 상담’, 어딘지 진부하고 지루할 것만 같지만 ‘그냥 한번 읽어 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읽다 보면 책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7세, 나의 고민을 들어줘』는 막연히 답답하고 짜증이 많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어떤 감동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지 알려 주며 슬며시 ‘한번 읽어 봐’라고 귀뜸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딱딱한 독서 지도서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쓴 것이 특징이다. 어른이 나서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책의 구절들과 함께 또래 친구들의 비슷한 고민을 예로 보며 자신만의 생각과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옛 그림이 쉬워지는 미술책



윤철규 글
탐 | 2014 | 210p

옛 그림은 배경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그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옛 그림을 감상하는 법, 그림 보는 법을 설명해 주는, 청소년을 위한 한국 미술 입문서다. 산수화, 인물화, 초상화, 풍속화, 화조화와 민화의 장르로 나누어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 누가 그렸는지, 무엇을 그렸는지를 이야기한다.

한국미술정보개발원 대표인 저자 윤철규는 학생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처럼 낯춤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책의 내용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도 매력이다. 책 제목처럼 박물관과 미술관 가기 전에 읽으면 그림을 감상하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미술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이 놀라운 조선 천재 화가들



이일수 글
구름서재 | 2015 | 133p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 안견, 신사임당, 정선,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 시대까지 만날 수 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 생활 풍습, 화가들의 개인사, 그림의 내력 등 작품과 연결해 우리 옛 그림에 대한 배경지식을 들려준다. 우리 옛 그림을 제대로 느끼고 즐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양화와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가령 서양화가 정면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점이라면, 한국화는 내려다보는 여러 개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전시기획자 이일수가 보내는 작품 관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옛 그림의 표현법은 물론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실제적인 관람방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서혜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조선왕조실록 1, 조선 패밀리의 탄생



무적핑크 글
이마 | 2015 | 351p

조선의 왕이 '독'으로 대화를 나눈다? 왕을 중심으로 오간 대화를 옮긴 『조선왕조실록』이 수백 년을 넘어 대화장에서 재구성된다. 황희 정승이 명예퇴직을 시켜 달라고 왕을 조르고, 왕의 편식에 골치를 썩는 상궁들의 대화가 오가는가 하면 위화도회군과 단종애사 등 굵직한 사건들도 가감 없이 다루고 있다. 대사와 프로 필 사진, 이모티콘이 적절히 버무려진 조선시대 그분들의 대화를 읽다 보면 어렵기만 하던 역사 속 왕들의 계보가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조윤미 증평도서관 사서

이 언니를 보라 : 세상에 불응한 여자들의 역사



박신영 글
한빛비즈 | 2014 | 288p

외모로 평가를 받을 때, 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주변의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힘을 느낄 때, 내 앞의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세상에 맞서 왔는지 궁금해지곤 한다. 저자는 각 시대에 주어진 한계에 맞섰던 여자들, 그간의 남성 중심의 역사서에서는 악녀로 다루어지거나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던 '언니'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루머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현대 여성들은 행복할까?'라는 질문이 화두로 던져진다. 제각각의 이유로 희생되어야 했던 그 시대 언니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다시 한 번 그 모든 역경 속에 삶을 계속해 온 그녀들에게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게 된다.

조윤미 증평도서관 사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박상률 글
해냄 | 2015 | 275p

통계 조사에 따르면 시험공부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무척 낮은 수준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은 청소년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 줍니다. 청소년 소설 『봄바람』을 쓴 박상률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책을 읽는 것의 의미, 책 읽기에 대한 추억을 들려줍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책 읽기의 즐거움'으로 시작하여 경계를 넘어선 확장된 책읽기,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색으로 이어지는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소개한 책에 대한 아쉬움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각 장에 소개된 도서의 색인을 첨부하였습니다.

“나쁜 책은 없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을 읽고 좋은 책, 나쁜 책의 구분 없이 편견 없는 독서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정신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탐정이 된 과학자들



마릴리 피터스 글 | 지여울 옮김

다른 | 2014 | 215p

『탐정이 된 과학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염병 현장을 연구하고 원인을 파헤친 '전염병학자'들과 그들이 알아낸 전염병의 원리를 다룬 책이다. '전염병학'의 과거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 탐정처럼 발로 뛰며 질병의 비밀을 파헤쳐 준 몇몇 의사와 과학자 등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오늘날 전염병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까지 과정을 짚어 보는 책이다. 전염병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단서인 최초 감염자를 추적하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 대처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추리소설 형식이다.

최근 메르스 확산을 비롯해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예방의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고등학생이나 일반인에게도 알맞은 책이다. 책 말미에 중학교 과학과 사회 교과 연계표가 같이 소개되어 있다.

송민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2015 책 이야기
찾아보기

| | |
|--------------------|-----|
| 이웃의 이웃에는 누가 살지? | 108 |
| 입술 유령의 자신감 수첩 | 175 |
| ㄷ | |
| 자전거로 달에 가서 | |
| 해바라기 심는 법 | 166 |
| 작은 배추 | 47 |
| 작은 파도 | 49 |
| 정글북 사건의 재구성 | 110 |
|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의 편지 | 206 |
| 정의의 악플러 | 185 |
|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 146 |
| 조선 수학의 신, 홍정하 | 195 |
| 조선왕조실록 1, | |
| 조선 패밀리의 탄생 | 215 |
| 지구사용설명서 2 | 195 |
| 지구에서 계속 살래요 | 196 |
| 지구의 역사가 1년이라면 | 176 |
|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 206 |
| 지렁이 똥을 훑쳐라 | 176 |
| 지렁이 일기 예보 | 77 |
| (내 이름은) 직지 | 186 |
| 진짜 투명인간 | 167 |
| ㄸ | |
| 차별 없는 세상을 연 넬슨 만델라 | 113 |
| 참! 잘했어요 | 167 |
| 창밖의 아이들 | 115 |
| 책 안 읽고 사는 법 | 186 |

| | |
|----------------|-----|
| 책으로 똥을 닦는 돼지 | 168 |
| 처음 만나는 수학 그림책 | 151 |
| 처음엔 삐딱하게 | 75 |
| 철이, 가솔을 결심하다 : | |
| 마음을 보는 책 장자 | 196 |
| 청소년을 위한 독서 에세이 | 215 |
| 청소년을 위한 | |
|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 117 |
|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 119 |
| 친구한테 차이기 전 33분 | 207 |
| ㅋ | |
| 칼의 아이 | 121 |
| 컬러보이 | 187 |
| 콧구멍 왕자 | 168 |
| 큰 바위 아버지 | 80 |
| ㅌ | |
| 탄탄동 사거리 만복 전파사 | 187 |
| 탐정이 된 과학자들 | 216 |
| 톡톡톡 | 124 |
| 특별한 친구들 | 146 |
| ㅍ | |
| 플라스틱 섬 | 51 |
| ㅎ | |
| 한밤의 선물 | 147 |

| | |
|--------------|-----|
| 한밤중 한 시에 | |
| 검은 모자들이 찾아온다 | 147 |
| 할머니가 사라졌다 | 169 |
| 할머니에겐 뭔가 있어! | 148 |
|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 |
| 오늘도 스마일 | 197 |
| 형이 짱이지? | 148 |
| 호랑나비와 달님 | 149 |
| 호랑이를 탄 엄마 | 149 |
| 호박꽃초롱 | 170 |
| 홀리스 우즈의 그림들 | 208 |
| 휴가 온 외계인 | 188 |
| 흰별소 | 209 |